



1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1호

(루게 375)



◆◆◆◆◆◆◆◆◆◆ 차 례 ◆◆◆◆◆◆◆◆◆◆

신년사	4
아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축원의 노래	9
인민의 간절한 마음	11
생활의 론리에 맞게 양상을 통일시킨 불멸의 고전적본보기	13
훌륭한 화폭, 위대한 생활력	18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의 완전한 통일	20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주인공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겠다	23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송가	24
마안산의 그 사랑속에 우리의 꽃봉오리들은 행복하게 자라고있습니다	26
백두산 명승가	28
탄부의 영예 빛내여가리	28
생명수에 깃든 크나큰 은덕에 대한 생동한 화폭	29
시대의 자취를 더듬으며	36
충성의 한길로 불러주는 생활의 교과서	39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높이 받들고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우자	40
흙냄새 나는 주인공을!	45
영원히 죽음을 타승한 인간들	45
높은 정신적자세와 깊은 정서적토양	46
혁명적서정과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노래	47

형상수준을 높이겠습니다	47
백두산정우에	48
공화국 기치	50
내 나라는 살기도 좋아라	51
강철지구의 인사	52
줄기찬 흐름속에서	53
한가정	61
탄부들의 인사 (외 3 편)	71
천길땅속에 콘베아 돈다	71
아버지와 아들	72
내 걸어가는 갯도길을... ..	73
발파소리 울리는 고향의 밤	73
조국의 맡아들로	75
새해 첫 아침에	76
탄부의 영예	78
희망과 신심을 주는 시	80

김일성

신년사

(1979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될 희망찬 새해 1979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가지고 새해 첫 전투에 달라붙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원썬들의 총칼이 숲을 이루고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화국복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축하를 보냅니다.

1978년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남조선인민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기념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30돐을 기념하는 전인민적인 정치행사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비할바없이 두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끝없는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혁명적각오를 가지고있습니다.

1978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자랑스런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전설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77년에 비하여 117%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년평균 공업생산증가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장성으로 됩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주타격방향을 담당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채굴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모든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운수부문에서는 다시 한번 수송혁명200일전투를 벌려 수송의 긴장성을 풀었으며 길주-혜산사이, 대동강-신성천사이의 철도전기화를 완공하고 남포항과 해주항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수송능력을 훨씬 높였습니다.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에서도 일을 잘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1977년에 비하여 전력 생산은 110%, 강철생산을 127%, 화학비료생산은 123%, 세멘트생산은 132%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동해안지대농사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전진이 있었습니다. 교육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가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조국보위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놓았습니다.

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첫해전투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1979년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는 1979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토의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채취공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연료, 동력의 기본자원이며 주체공업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석탄이 있어야 전기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가며 여러가지 공업제품이 나올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구호입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진확장하고 중소규모탄광들을 많이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특히 매장량이 많고 전망이 좋은 안주지구탄광들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지구 탄광들에서 올해에 석탄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배로 늘이며 가까운 앞날에 석탄생산능력을 1,500만톤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전망성있는 광산들을 개진확장하여 철광석과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과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며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고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기간공업부문들에서는 올해에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압연강재, 세멘트, 마그네샤크링카, 공작기계, 채굴설비, 자동차, 트랙트르, 짐배를 생산하는데 힘을 넣어 그 생산량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매우 넓어지고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제3세계나라들, 뽐력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이고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일용품수품과 식료품을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화학섬유, 합성수지, 기초화학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수산물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어로활동을 과학화하며 중소어업과 세소어업을 적극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냄으로써 물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수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송사업을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외수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운수부문에서는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철도수송,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다그치고 철길을 보장하며 전기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려 철도수송능력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거리자동차수송대를 널리 조직하여 소소한 짐들과 긴급히 요구되는 짐들은 자동차로 많이 실어나르며 짐배들을 늘리고 무역항들을 개건확장하여 배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입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우물을 더 많이 파고 줄쟁을 대대적으로 박아 어떠한 가물도 이겨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미리부터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였다가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나라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자체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야금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당면한 과업은 우리 나라에 마련되어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정치적방법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경제실무수준을 빨리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신성한 민족적의무입니다. 올해에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에 따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뽀력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동원되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축원의 노래

금수대 높은 창문가에
만수대 잎푸른 전나무에
송이송이 새해의 흰눈이 내리어라

기쁨을 안고
공지를 안고
승리의 높은 봉우리우에서
수령님 펼쳐주신
새 리정표를 바라보는
새해의 이 아침
온 나라 온 인민이
온 세상 온 마음이
축원의 노래를 담아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여라

수령님 슬하에서 혁명가로 자라며
수령님 따라 영광의 길 걸어왔기에
로고의 그 자욱자욱
사랑의 그 자욱자욱
감사의 눈물로 더듬는
인민의 이 마음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그리도 많은 걸음 걸으시며
세상의 모든 행복 다 안겨주시고도
새 7개년의 첫 진군길을 열어주시려
온 한해
온 나라를
다 걸으신 우리 수령님

이른봄의 눈석이에 젖으시며
가을날의 찬이슬을 맞으시며
이 땅의 한끝 두만강기슭을 찾으시고

이 땅의 기슭 서해바다를 찾아주신
그 잊을수 없는 사랑의 길우에
영광의 한해가 저물어가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높은 연단우에서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길
우리 인민이 해야 할 일을 놓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던
그날을 감회깊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속엔
그날의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였어라

혁명의 길우에
시련이 겹치던 그해
내리는 눈을 맞으시며
강선의 구내길에
깊은 자욱을 새기신
우리 수령님

로동자들과 마주앉으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혁명의 난국을 헤치자고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
어버이수령님

함박눈은 펄펄 내리는데
떠나던 차를 멈추시고
따라나선 로동자들의 어깨에

내리는 눈을 털어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손길이어

나는 백두산에서 눈을 많이 맞아 일 없지만
불앞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찬눈을 맞으면
감기에 걸린다고
어서들 들어가라고
로동자들을 돌려보내시고서야
다시 눈내리는 길을 떠나실 때

아 그 사랑에 목이 메어
그 사랑에 흐느끼며
다시 따라서는 사나이들의 가슴우에
눈은 내리고 내려서 녹아 흘렀어라

수령님 걸으신 그날의 그 길우에
조선의 천리마는 나래쳤고
사회주의강국은 이 땅우에 솟았건만
오늘도 그날의 그 걸음
그날의 그 자욱을 새기시며
수령님께선 어찌하여
온 한해 들길우에 서계시는것인가

젖으신 신발을
말리실 사이 없이
마을을 찾아주시고
이슬에 젖으신 옷을
갈아입으실 사이 없이
공장을 찾아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어찌
맹세의 눈물로 젖지 않을수 있었으랴

오로지 인민을 위하시는 한길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이 땅 이 인민을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보는
궁지높은 주체의 인민으로 세워주신 수령님

수령님 계시여
이 땅에 행복한 인민이 있고
수령님 계시여
조선의 빛나는 래일이 있고
수령님 계시여
세계는 자주외 봄을 안고
발구름 높이 나아가노라

세월이 흐르고 다시 흘러도
그날의 그 눈송이
사랑의 이슬이 되어
불멸의 이야기 되어
우리의 가슴속에 내리고 또 내리거니

3대혁명의 기치높이
당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이 땅 이 하늘에
창조의 노래
승리의 노래 높이 울리며
우리는 나아가리라
수령님 사랑으로
저 하늘에 봄빛이 흐르고
수령님 이끄시여
이 강산에 행복이 물결치거니

아 인민의 태양
우리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삼천리에 밝아올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누리에 만발하는 자주시대의 화원을 위하여

인민의 간절한 마음

새해의
밝은 해살 비껴드는 창문가에서
마음도 새로이
가슴도 뜨거이
온 나라 인민이 옷깃 여미며
아버이 수령님 우리러뵈옵는
설날아침

수령님 우리러
감사의 노래
축원의 노래 드리며
새해에 가닿을 높은 령마루
한없이 받아안을 그 영광에
가슴부풀어오르는 이 아침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우리 수령님
얼마나 먼길을 걸으시었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 안겨주셨던가

수령님의 로고 많으신
날을 더듬어
길을 더듬어
끝없이 따르는 마음속에
숭엄히
그날의 후더운 이슬이 내리고
그날의 깨끗한 눈이 내리어라

그날 아침에도
어느 집중화물역구내에
수령님 서계실 때
이 땅에는 새해의 첫눈이 내리었고

온 나라 인민이 즐겁게
4 월의 봄명절을 맞던 그날
수령님 초소의 언덕길을 넘으실 때
강산에 소리없이 내리던 봄비는
우리 마음 적시었고
먼 바다가 도래굽이에
가을바람 찬바람 불던 날

우리 수령님
동해의 어로공들과 새벽 한때를 보내실 때
창문을 흔들던 그날의 바람소리
우리 마음 뜨겁게 두드렸어라

하루 또 하루
보내는 날마다
밤이면 눈물에 젖던 이 가슴
들바람 차던 대안의 구내길이
눈앞에 어러오고
눈보라 일던 두메의 그 령길이
가슴속에 뜨거이 굽이치여
어느 하루도 무심히 보낼수 없었노라

온 한해
수도에서 멀고먼 북변의 한끝까지
봄서리 내리는 발머리 넘어
열풍 뜨거운 용해장
해풍 사나운 바다길을 지나
단 하루도 쉬임없이
너무도 많은 길을 걷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

수령님의 옷자락
새벽이슬에 젖으시던
그 발이랑우에
만풍년의 금나락 실리였고
수령님 끼니를 건느시며 넘으시던
그 산너머에서
발파소리 울리어
이 땅에는
사랑의 빛과 열이 차넘쳤어라

아 험한 령 비탈길에 새기신 그 자욱
찬바람 찬비속을 헤치신 그 자욱이
위대한 사랑의 날이 되고
끝없는 창조의 날이 되여
불멸의 력사로 새겨졌어라

생각하면

아득한 태고로부터
수천수만년
억압속에 구슬피 흘러가던 세월
가는 날도 모르고 울며 살던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 탄생하시어
주체시대의 새아침을 맞이했고

수령님 걸으신 수천수만리
거룩하신 그 자욱자욱 따라
백두밀림속에 가고가던 날과 날들이
햇불같이 타오르고
기발처럼 나뭇기며
주체시대의 년대기를 펼쳤나니

아 눈물속에 기우는 달을 보며
자연의 계절밖에 모르던 인민이
웃음속에 솟아오는 해를 맞으며
수령님의 은덕으로 꽃피는
사랑의 계절속에
자주의 인민
창조의 인민으로
안겨사는 행복이여

수령님의 위업으로 빛나는
이 나라의 모든 날과 날을
찬란한 력사의 한페지한페지로
온 세상에 펼쳐들고 자랑하는
인민의 공지여

오는 해에도
하루 또 하루
얼마나 자랑찬 창조의 력사
얼마나 크나큰 사랑의 력사
아름답게 수놓아질것인가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사는 이 땅에
찬란히 밝아온 1979 년
수령님 부르심 따라 또 한해
비약의 나래 펼치며 나가는
인민의 머리우에
새해 승리의 노을이 타올라라
장엄히 흘러가는 새해의 하루하루

충성의 자욱자욱을 새겨
우리 맞고 보내는 날마다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는
대고조의 날이 되고
새 비약의 날이 되어
이 강산에 전변의 새 력사 굽이치리라

조국의 항구를 떠나
세계로 나아가는 배고동소리
공업의 돌파구를 열며 산발을 흔드는
지하전선의 발파소리
조국의 철길우에 기적소리 울리며
새날이 밝아
새 7 개년의 두번째해 승리의 새 력사를
이 땅에 새겨가리라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쌓이며
3 대혁명진군의 나날을 넘어
수령님 높이 모신 내 나라
조선은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치달아오르리라

이렇게 승리의 날이 가고
투쟁의 달이 흘러
아버이수령님 통일광장에 우러러모시고
남북겨레 열싸안고 흐느끼며
환호성 터칠 그날은 오리라

날에날마다 아름다와지고
달에달마다 강대해지는
주체의 내 나라
아버이수령님 계시여
찬란한 승리가 있고
영광은 넘치나니

총진군의 발구름소리 높이
밝아온 이 아침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충성의 꽃을 안고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마음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부디 만년장수하시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양상을 통일시킨 불멸의 고전적본보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에 력사의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주체적인 혁명연극 **《성황당》**을 창조하심으로써 혁명연극의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뿐아니라 종교와 미신 등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심오한 주체철학의 원리를 구현한것으로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연극전통의 시원을 이루는 기념비적명작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거든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작품의 양상적특성을 완벽하게 해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형식이 옹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생활을 여러모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려나가는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은 필연코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작품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생활의 논리와 본색에 맞게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정서도 있는 새로운 양상을 독창적으로 개척한 작품으로서 생활과 양상의 호상관계에 대한 완벽한 예술적해명을 준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양상이 철저히 생활에 기초하고 생활의 본질에서 그 특징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생활을 떠난 양상은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 형식의 멋을 부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양상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수 없다.

양상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방식이므로 철저히 생활내용에 복종되어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서도 있는 독특한 양상으로 될수 있는것은 부정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던 종래의 풍자극과는 달리 긍정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근로하는 농민들의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데서 나온 합법칙적이며 필수적인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긍정적주인공과 근로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풍자극에서 생활의 논리에 기초하여 양상을 잡는것은 생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요인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생활의 논리에 따라서 양상을 통일시키는 것은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진실하게 밝힐수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풍자극이라 하여 처음부터 마감까지 웃기려고만 한다면 생활의 논리와 그 진실성을 담보할수 없을뿐아니라 작품의 품위까지 손상시킬수 있다.

또한 명작의 양상이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독특한 양상으로 될수 있는것은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와도 관련된다.

생활의 토양속에 뿌리내린 종자와 그를 꽃피우는 인물들의 성격에 알맞는 양상이랴 생활의 논리에 기초한 독특한 정서적색깔을 창조할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사람은 신이나 종교를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종자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부정인물들만 등장시켜 그들을 단순히 폭로비판하는 종래의 연극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온갖 계급적원수들과 종교와 미신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종자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계급적원수들의 학정밑에서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로하는 인민들의 피눈물나는 생활과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긍정적주인공의 생활을 반영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작품은 면장벼슬을 얻으려고 발악하는 지주놈과 구장놈의 흥계와 그를 짓부셔버리고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한 주인공의 투쟁을 기본 이야기줄거리로 전개하고있다. 미신에 빠진 박씨를 깨우쳐주는것은 딸 복순이를 구원하고 동네사

람들을 미신의 올라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며
면장운동을 하는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투쟁의
길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만춘이와 선돌마을 농민들의 기쁨과 증오,
웃음과 정서를 반영하는것은 생활의 합법칙적인 요
구이다.

그러므로 풍자극에서 눈물도 있고 정서도 있는
생활을 그리는것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
사상적요구인 동시에 당대의 전형적인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형식으로 진실하게 그리는 사실주의의 본
성적요구와도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양상에서 생활적내용을 다채로운 무늬로 수놓아
진 형상의 화원으로 가꾸는것은 생활자체의 본질적
요구이다.

생활내용은 어떻든간에 웃음 일반의 한가지 색깔
로 일관시키고있던 형식주의적풍자극과는 달리 철
저히 현실에 존재하는 생활의 본색대로 다채로운
정서적색깔을 진실하게 그린 여기에 이 작품이 새
롭게 개척한 양상의 독창성이 있다.

만일 풍자극이라고 하여 근로하는 인민의 생활을
외면하고 희극적인 생활의 한 측면만 확대하여 작
품을 구성하고 양상을 일관시킨다면 생활의 진실성
을 추구할수 없게 된다.

사회적의의가 있고 생활의 진실에서 저절로 흘러
나오는 웃음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것은 풍자극
의 고상한 사명파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양
상은 교양적목적에 맞게 잡아야 한다.

양상을 살리는 리유는 그 어떤 형식의 멋을 부리
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옳바로
표현하여 그 교양적의의를 높이기 위한데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창작경위와 창작목적
이에 대하여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풍자극에서 눈물도 있고 정서도 있는 적극적인
생활을 반영하는것은 또한 생활발전의 논리에 따라
인간들의 성격과 생활내용을 진실하게 조직해야 하
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 작품은 생활의 논리에 맞게 풍자적인것과 함
께 긍정인물들의 적극적인 생활을 하나의 산 유기
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리게 한데 그 특성이
있다. 레하면 잔치날을 앞두고 만춘이와 복순이가
래일에 대한 행복한 꿈을 약속하는 제5장의 서정적
장면이나 지주와 구장놈의 흥계에 의하여 그들의

행복한 리상이 파탄되어 리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7장의 심각한 장면들은 눈물도 있고 서정도 있는
이 작품의 정서적색깔을 잘 반영해주고있다.

긍정인물들의 적극적인 생활이 풍자적인것과 유
기적으로 결합된것은 생활의 논리에 맞는 진실한
구성형식이다. 비록 지주놈과 구장놈의 등쌀에 기
를 펴지 못하고 조들리지만 부지런히 일해서 어머
니를 모시고 오붓하게 살려는 만춘이와 복순이의
래일에 대한 꿈장면은 티없이 깨끗하고 밝은 서정
적양상의 측면을 생동하고 참신하게 펼쳐보이고있
다. 그리고 잔치를 앞두고 탁군수의 집으로 끌려가
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시각에 복순이와 만춘이
의 애절하고 통분한 심정을 반영한 장면을 통하여
눈물로 진하게 채색된 작품의 양상적 한측면을 감
동적으로 보이고있다.

티없이 깨끗하고 밝은 정서적인 요소와 눈물로
진하게 채색된 정서적요소들은 풍자적인 기본색갈
과 함께 이 작품의 양상을 규정해주고있는바 이것
은 생활의 논리와 묘사대상의 본색에 기초한 양상
의 구현으로 된다.

슬픔과 정서로 충만된 장면들의 풍자적인 장면들
과의 유착, 이것은 혁명연극 《성황당》의 고유한
특성이며 생활의 본색에 맞는 독특한 생김새이다.

어떤 작품이든지 양상이 독특하면서도 정극이나
희극이나 하는 예술의 형태상특성을 똑똑히 살려내
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예술형태상 어디까지나
풍자희극인것만큼 풍자적인것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정극적인 생활선에서 비쳐나오는 이
러저러한 색채들도 풍자적인 선을 돈구고 강조하여
주는데 잘 어울리게 배합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풍자적인것은 엽음새발전의 전과정
에서 사건선과 인물선에 깊이 맞물려있다.

연극의 중심에는 지주놈과 구장놈이 면장이 되기
위해 며칠후이면 잔치를 할 복순이를 군수놈의 셋
째 첩으로 보내려는 사건과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
구어놓은 성황터밭을 서로 자기의것으로 만들려는
사건선이 놓여있다. 여기에 전도부인과 중놈, 그리
고 무당까지 끼여들어 날친다.

성황터밭을 빼앗으며 복순이를 끌어가려는 사건
을 놓고 복잡하게 엮힌 엽음새발전의 전과정을 통
하여 지주놈과 구장놈을 비롯한 온갖 원썬들의 반
동적본질과 종교의 허위성이 날날이 폭로된다.

풍자적인것은 생활의 다양한 화폭속에 나타나는 각이한 인간들의 성격에 의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고있다.

권세욕에 눈이 어두운 지주놈과 구장놈의 희극성은 자기의 내면적본질을 음폐하려는데서, 또 그것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더욱 짙게 조성되고있다.

포악하고 린색하기 그지없는 지주놈은 면장자리를 얻어보려고 잔치날을 앞둔 복순이를 탁군수놈에게 첩으로 섬겨바치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복순이를 생각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것처럼 위장하여나선다. 이놈은 이와 같은 자기 목적실현을 위해 무당을 내세우는 등 갖은 술책을 다 꾸미며 복순이 어머니를 구슬린다.

면장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주놈은 수많은 돈과 금가락까지 무당에게 뒤편로 바치게 하고는 마치나군수네 집의 아이보개로 보내지 않으면 복순이가 잘못되고 그의 가정에 큰 불화가 닥쳐올것처럼 점을 치게 한다.

한편 구장놈도 면장자리에 올라앉기 위하여 무당을 위협공갈하여 복순이를 군수네 집으로 보내려고 교묘하게 선손을 쓰면서도 마치 선심이나 쓰는것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자기의 내면적본질을 음폐하면서 허위와 위선을 가장한데서 낚은 계급에 대한 풍자적웃음이 야기된다.

풍자적웃음이 이처럼 날카롭고 신랄한것도 허위와 위선으로 가장된 은폐된 성격의 본질과 관련되어있다.

이 작품의 풍자적대상의 중요인물들인 무당, 중, 전도부인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에게 특혜를 베푼다고 말하고있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전도부인,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뒤골방에 들어앉아서는 고기와 술을 처먹으면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내려고 궁궁이를 하는 중, 사рам들의 사주팔자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재산과 돈을 로략질해먹는 무당 등 이들의 안팎이 다른 행위는 이 작품의 희극성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지주를 비롯한 부정인물들의 어리석은 몽상과 결과간의 모순, 허위와 기만, 위선으로 가장된 그들의 언행과 음폐된 성격적본질과의 모순에서 이 작품의 풍자적웃음이 고조된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풍자적인것이 엮음새발전의 기본주류로 힘있게 흐르면서 슬픔과 정서로 충만된 정극적인 장면들이 이에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고있다.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의 생활체험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눈물도 제가닥으로가 아니라 놈들을 단죄하는 풍자적색갈을 돋구어주는데 잘 맞물리고있다.

이것은 정극적인것과 풍자적인것이 호상 침투하고 견인력있게 작용하는 원칙에서 빈틈없이 맞물린 구성의 짜임새와도 밀접히 관련되어있다복순이와 그의 어머니의 생활체험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눈물도 제가닥으로가 아니라 놈들을 단죄하는 풍자적색갈을 돋구어주는데 잘 맞물리고있다. 다시말하여 근로하는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생활도 놈들의 반동적본질을 폭로규탄하고 계급적증오를 불러일으키는 형상적기능을 높게 함으로써 풍자적인것과 정극적인것이 하나의 산 유기체를 이루게 하였다.

돌쇠를 비롯한 농민들이 당하게 되는 가혹한 착취와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가 겪게 되는 심각한 극적체험도 면장자리를 먼저 가로타고 앉으며 성황터밭을 빼앗으려는 지주놈과 구장놈들 그리고 그들의 등에 업혀서 한몫 보려는 종교와 미신의 온갖 잡귀신들의 개싸움에 의해 산생된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공 돌쇠를 한편으로 하고 지주놈과 구장놈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극적관계의 능동적인 작용은 풍자적인것과 정극적인것이 호상 견인력있게 침투하는 극의 정황을 마련함으로써 양상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게 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양상의 통일은 생활발전의 기본흐름을 줄기차게 끌고나가면서도 생활의 의의있는 측면들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양상의 색깔을 이루게 하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창조과정은 기쁨과 눈물이 풍자적인 생활권내에 들어가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난날의 풍자극리론이 얼마나 허황하며 생활의 논리와 본색을 떠나서 생활을 양상이라는 형식에 복종시키려는 경향이 사회주의사실주의연극 예술의 본성적요구와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양상통일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풍자적인것으로부터 정극적인것으로, 정극적인것으로부터 희극적인것으로 넘어가는 생활과 감정의 전환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주름잡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양한 생활과 판이한 감정으로 넘어가는 련결부를 잘못 처리하면 올라가 갑자기 웃게 되고 웃다가 갑자기 울게 되는 번덕스러운 무리한 정황이 조성될 수 있다.

웃음으로부터 눈물로 넘어가고 정서적인것으로부터 웃음으로 넘어가는 대목들을 자연스럽게 잘 조화시키는것은 풍자극에서 감정조직과 생활의 진실성을 이룩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생활과 감정의 련결부와 대목들에서 심리적준비를 시키는 전제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정서적여운을 주는 다리를 자연스럽게 놓고있다.

복순이를 탁군수의 집에 보내야만 사주팔자를 고칠수 있다고 무당이 박씨에게 거짓 점을 치는 제6장에서 제7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을 놓고 보자.

제6장에서 점을 치는 무당의 행위를 통하여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 착취자로서의 본성을 풍자적으로 잘 폭로하고있다.

그런데 풍자적인 이 장면에서 심각한 극으로 전환된 제7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품에서는 무당에게 속아넘어간 박씨가 자기 딸의 운명에 행운이 올것을 바라는 눈물의 세계로 정서적다리를 놓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풍자적인것으로부터 군수네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복순이의 피눈물나는 생활에로의 이행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고있다.

그리고 7장 슬픔의 장면에서 8장 구장네 집의 희극적인 장면으로 넘어갈 때도 7장 마지막 대목에 구장처를 등장시켜 풍자적인 전제를 깔아줌으로써 눈물에서 웃음으로 넘어가는 정서적다리를 놓아 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조성시키고있다.

이처럼 정서적다리를 놓고 생활적전제를 충분히 깔아주어 양상의 통일을 보장한 여기에 이 혁명연극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양상통일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부정인물들에 대한 풍자와 긍정인물들의 적극적인 요소를 주인공 돌쇠의 성격과 행동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화롭게 통일시킨것이다.

지난날의 풍자극에서는 부정인물들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기때문에 작품의 사상은 주로 작가의 간접적인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스쳐지나고마는 제약성을 가지고있었다. 간혹 긍정인물을 등장시키는 경우에도 아주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였거나

부정적주인공의 성격을 계발시키는 수단으로밖에 리용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종래의 풍자극에서는 긍정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풍자극이 될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이 법칙화되어있었으므로 정극이나 희극이나 하는 예술형태상 특성과 양상이 주인공을 규정하여주었다.

작품의 형식이 주인공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생활내용과 인물의 성격이 예술형태상 특성을 규정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예술형태상 특성이 주인공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작품의 주제사상을 주도적으로 천명할 주인공이 야기시킨 웃음의 질이 희극의 양상을 규정하게 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긍정적주인공을 중심으로 세우고 여기에 다양한 극적관계를 긴밀히 맺으면서 양상을 통일시키고있다.

연극에서 양상을 직접적으로 특징짓고 일관시켜나가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이다. 돌쇠는 인물관계에서 양상통일의 기둥을 이루는 중심위치에 선 주인공이다. 주인공 돌쇠는 긍정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락천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동시에 원썬놈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풍자적웃음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주동적으로 수행하고있다.

돌쇠는 구장놈과 그의 처를 끌어들여 대판 싸움을 벌리게 함으로써 지주놈과 그의 처를 골탕먹였을뿐아니라 구장집으로 가는 무당을 길가에서 가로채어 지주집에 끌어들임으로써 구장놈과 그의 처를 망신시키게 하였다.

또한 그는 지나가던 전도부인과 중놈을 지주집에 끌어들여 개싸움을 하게끔 부추기였으며 나중에는 온갖 원썬들을 성황당에까지 올라오게 하여 그 싸움이 절정에 달하게 한다.

다시말하여 돌쇠가 던진 지혜의 미끼를 덥석 받아문 놈들은 저희들끼리 개싸움을 벌린다.

이와 같이 지주놈과 구장놈을 비롯한 계급적원썬놈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적웃음은 돌쇠의 행동선과 관련되지 않는것이란 없다.

계급적원썬들을 죽음에로 가차없이 매장해버리려는 그의 적극적인 행동은 이 작품의 양상을 특징짓고있다.

생활의 정서적색채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그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인간들의 사상정서상태이다.

중오가 강하고 규탄성이 강한 박력있고 힘있는 단죄적인 웃음과 진취적이고 통쾌한 웃음은 이 작품의 고유한 체질적특성인 동시에 양상의 특성을 규정하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사상에술적특성의 하나는 돌쇠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을 극의 중심에 내세우고 근로대중의 역할을 보여준데 있다.

사람들은 긍정적주인공 돌쇠에게서 온갖 종교와 미신의 구속을 박차고 포악하고 교활한 놈들을 풍자적웃음으로 단죄하고 죽음을 선언하는 인민대중의 슬기와 힘을 보게 된다.

이로부터 혁명연극 **《성황당》**은 중오와 규탄성이 강한 혁명적인 풍자극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 명작의 양상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다.

다음으로 명작에서는 희극적수법과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풍자적양상의 정서적색깔을 한층 더 돋구게 하고있다.

그것은 포악하고 우둔하면서도 탐욕성이 강한 지주의 성격에 여우처럼 교활하기 그지없는 구장의 성격은 절구통같이 무지마치한 지주처의 성격에 꼬장꼬장하고 앙칼스러운 구장처의 성격을 대조시킨 수법, 그리고 놈들끼리 개싸움을 시키기 위하여 돌쇠가 지주를 헐뜯는 구장의 흉내를 지주앞에서 내다가 반대로 구장을 헐뜯는 지주의 흉내를 구장앞에서 다시 하게 하는 반복수법 등을 들수 있다.

대조와 반복의 수법뿐만아니라 파장의 수법도 적절히 사용되고있는바 그것은 설정된 생활의 논리에 충실하며 그 생활의 본색을 뚜렷이 살리는데 잘 리용되고있다.

파장의 수법을 쓰는 목적도 오직 묘사되는 현상의 생활적진실을 밝히는데 있으므로 이것은 생활적진실을 담보하는 예술적수법이라고 말할수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에서는 생활의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그 어떠한 예술적수법도 허용될수 없으며 파장된 수법도 이 요구로부터 물러날수 없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본보기로 되는것은 자체폭로의 수법이다.

제4장 중, 전도부인, 큰무당이 불교와 예수교 그리고 **《신령님》**을 우상화하면서 서로 자기 교를 승벽내기로 자랑하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의 기만성과 반동적본질을 폭로시키고있다.

또한 제9장에서 성황신으로 가장하여 소리치는 돌쇠의 목소리에 위압당한 지주와 그의 처, 구장과 그의 처, 큰무당은 마을청년들을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과 금가락지를 주어 거짓말 점을 치고 복순이를 군수네 집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저저마다 낱알이 자백하고있다.

이것은 멸망에 직면한 부정인물들의 장송곡이기도 하다.

자체폭로의 수법은 돌쇠의 계략에 의하여 부정인물들이 서로마다 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음폐된 본질을 드러내게 하여 풍자적웃음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놓고있다.

이밖에도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는 양상을 잘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고있다.

박력있고 규탄성이 강한 작품의 양상적특성에 맞게 지주집을 순식간에 통채로 회전시켜 지주놈과 중놈의 음모를 예리하게 발가놓는 3장과 4장의 무대전환, 향토적색채가 짙은 작품의 서정적양상의 측면을 살리기 위해 선돌마을의 자연풍경을 그린 간막을 서서히 흐르게 한 흐름식 전환방법,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이 풍자극의 양상을 살리기 위해 성황당을 까부시며 힘있게 울리는 폭넓고 무게있는 음악의 리용 등은 그 좋은 실례의 하나이다.

* *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탄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적발견의 과정이었다.

풍자적인것을 위주로 하여 슬픔과 정서도 있는 색깔로 하나의 산 유기체로 이루게 한 혁명연극 **《성황당》**은 생활의 논리와 본색에 맞는 양상으로서 지난 시기 풍자극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측면을 개척하였다.

그러므로 혁명연극 **《성황당》**은 풍자극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첫 기념비적대작으로, 본보기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창작된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작품이 제기하는 심오한 철학적문제성과 독창적으로 창조된 양상을 비롯한 불멸의 예술적본보기들은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귀중한 재부로 영원불후할것이다.

리대철

훌륭한 화폭, 위대한 생활력

보면 볼수록 더 보고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예술은 달이 가고 해가 썩어 세기가 바뀌어도 그 빛이 영원히 뿌려지는것이다.

그처럼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옹근 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에 의하여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됨으로써 광범한 관중들의 깊은 감명과 커다란 기쁨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 노는 교양적역활은 매우 큼니다.》

혁명연극의 시원을 열어놓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착취사회의 부패상을 똑똑히 깨닫고 증오하게 하며 세계의 주인으로서 낡은 사회를 변혁하고 새 사회를 창조하는 존재로 등장한 근로인민대중의 위대한 정신적면모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뿐만아니라 종교와 미신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이 된 새형의 주체적인간으로 활짝 꽃피워주실 위대한 구상밑에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교 공연하도록 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온갖 종교와 미신에서 영원히 해방된 유일한 주체적인민이라는 높은 긍지를 안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보는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열화같은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있는 작품의 하나로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사람들이 무지와 몽매속에서 벗어나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신랄하게 조소하고 풍자하면서 놈들의 반동적본질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심오하게 밝히고 혁명투쟁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힘있게 보여준 주인공 돌쇠의 형상은 슬기와 예지로 빛나는 자주적인간성격을 훌륭히 체현한 산모범이다.

주인공 돌쇠는 인간최하층에서 천대에 시달리는 머슴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야학에서 눈을 뜨고

성장한 청년이다. 하여 인민을 속여먹는 온갖 원수들을 웃음과 지혜로 족쳐버린다. 그는 있지도 않는 신이나 하느님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어야 하며 자기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심원한 진리로 동네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이다.

마침내 동네사람들은 단합된 힘으로 지주놈과 구장놈을 꺼꾸러뜨리고 종교와 미신을 비롯한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되며 행복을 약속하는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예술에서는 사상도 성격도 생활을 통하여서만 깊이 있고 생동하게 그릴수 있는것이다.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문제를 풀며 사상을 밝히는것은 예술의 고유한 본성이다. 주인공의 행동선을 따라 이야기흐름이 박력있게 전개되고 원수들에 대한 신랄한 야유와 통쾌한 웃음, 짓밟히고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궁한 처지에 대한 련민의정이 경제적굴곡을 이루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틀어잡는것은 혁명연극 **《성황당》**에 펼쳐지는 생활 그 하나하나가 모두 주옥같이 다듬어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이루어졌기때문이다.

강냉이가을을 하는 극의 첫 장면과 타작을 하여 지주집으로 곡식을 나르는 마을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주는 로동풍경, 잡화풍속을 둘러메고 촌동네를 돌아다니는 장돌뱅이와 옛장사의 생활세태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모두 1920년대말 우리 나라 농촌의 생활정경을 진실하게 재현한 전형적인 생활화폭들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화폭들에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상과 혁명정세를 예리하고 심오하게 엿볼수 있는것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후 다시금 대륙침략의 마수를 뻗치면서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억압과 략탈을 더욱더 강화하고있었다. 또한 놈들은 인민들의 높아가는 반일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폭압망을 거미줄처럼 늘이는 한편 우리 인민을 중세기적 무지와 몽매속에 몰아넣고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종교와 미신을 대대적으로 전파시켰던것이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 반항이 있으며 반항이 있는곳에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일제와 그 주구들이 전진하는 력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세우려고 발버둥치는것은 곧 시대착오이며 풍자의 대상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이러한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생활세부들을 전형화의 요구에 맞게 진실

하게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작품의 양상에 맞게 계급과 계층의 전형적인물들을 골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수 있도록 잘 맺어놓아 그것이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 생활적기초로 되게 하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 지주놈과 구장놈은 치부욕과 권세욕에 눈깔이 뒤집혀 박씨모녀가 피땀으로 걸군 성황당터 부대밭을 가로채려고 하며 그의 딸 복순을 군수놈의 셋째첩으로 바치며 면장자리를 얻으려고 날땀다. 흉물스러운 지주놈과 간교하고 횡포한 구장놈뿐아니라 기독교 전도부인, 운흥사의 중, 덕산 큰무당까지 달라붙어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려고 날땀다.

이러한 인간쓰레기들의 더러운 야욕을 신랄하게 조소하고 풍자하며 그놈들의 더러운 꿈꾸이를 걸음마다 파탄시키는 돌쇠의 형상은 극구성의 중심위치에 서있으며 극발전의 결정적작용을 하고있다.

《…황각쟁이라는게 배때기에 욕심만 가득 차서 동리 백성들이 손이 닳도록 일군 이 부대밭까지 제 밭이라니 환장을 해서 개뿔같은 뿔이 쑥 나왔지… 그런 도적놈이 어디 있나 응? 그 주제에 면장을 해보겠다구 잔치날까지 다 받아놓은 남의 외동딸을 군수네 집에 보내겠다니 그런 악귀같은놈이 어디 있나. 이제 그러다가야 동리 사람들한테 맞아죽어서…》

이것은 지주놈과 개, 고양이 사이인 구장놈의 흉내를 내는 돌쇠의 대사이다. 돌쇠가 구장놈의 욕설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서 지주놈의 앞에서 퍼붓는 이 야유는 얼마나 신랄하고 통쾌한것인가.

지주놈의 더러운 속심을 날날이 발가놓은 평이하면서도 예리한 풍자는 지주놈에게 내려진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것을 알리 없는 미혹한 지주놈은 분통이 터져 펄펄 뿜다. 돌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나가는 구장놈과 그 녀편년을 지주집뜨락으로 끌어들여 개싸움을 붙인다. 지주놈과 구장놈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사건은 발전하고 놈들로 하여금 멸망의 구렁텅이에도 줄달음치게 한다.

돌쇠에 의하여 전도부인, 중, 큰무당이 지주집뜨락에 모여들고 개싸움을 하는 장면은 종교와 미신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고 사기와 협잡을 일삼는력사의 오물들인 놈들의 추잡상을 립체적으로 발가놓는 생동한 극적묘사의 극치를 이루는것이다.

작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가 못보여주는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모순을 옳게 그려내는가 못그려내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주며 구성의 치밀한 짜임새와 설득력있는 립체성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고리로 되는것이다.

매 인물이 뚜렷한 형상의 뿔을 가지고 극구성에서 자기의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려면 결국 여러 인

물을 련결시키고 끌고나가는 주인공의 선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달려있다.

림기웅변하는 재치, 복잡한 사건의 갈래속에서 문제의 요점을 밝혀내는 슬기, 어려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돌파구를 발견하며 그것을 대담하게 헤쳐나가는 예지, 이것이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활동할줄 아는 인민적주인공 돌쇠의 성격적책이며 극을 추동하는 힘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돌쇠의 역할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여의 인물들이 끌려들어와서 서로 관계를 맺고 이야기가 엮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이 생활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건과 행동을 련속적으로 낳기 때문에 매개 인물이 뚜렷하게 살아나며 극의 흐름이 탄력성있게 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돌쇠의 마지막대사는 자주적인간의 열렬한 호소로 우렁차게 울린다.

《우리가 잘 살려면말이에요. 없는 귀신을 믿을게 아니라 제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다 잠에서 깨여납시다. 이제 여기두 또 야학을 세웁시다. 아는것이 힘이에요. 모든건 우리들이 어떻게 제구실을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두 잘살 때가 와요.》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생활론리에 맞게 인간관계를 극적흐름속에 옳게 맺어줌으로써 사람이 자기의 힘을 알고 자기의 존재를 찾았을 때 그것은 곧 자주적인 인간들의 단합된 힘으로 변한다는것을 보여주며 그 힘에 의하여 사회적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의 온갖 오물을 쓸어버리는 혁명투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활의 철학을 깊이있게 해명해주고있는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종교와 미신을 침략의 길잡이로 내세우고있으며 그 주구 박정희피괴악당은 이에 더욱 편승하여 온갖 종교와 미신을 퍼뜨려 민족우매화으로 몰아넣고 그 더러운 《대통령》감투를 종신토록 뒤집어쓰려고 하는한 혁명연극 《성황당》의 이야기는 결코 지나간 옛이야기로 되지 않을것이며 앞으로 남반부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도 힘있는 생활력을 가지게 될것이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해가며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자주적인 인간으로 키우는데서나 그들을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썬들과의 판가리싸움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서 높은 감화력과 거센 추동력을 가지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며 작품이 창작된 당시는 물론 오늘날 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훌륭한 화폭속에 담긴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뿌려지는 빛은 찬란한것이다.

로은옥

역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의 완전한 통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혁명가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면서 15년동안이나 무장투쟁을 한것만큼 그 자료들도 더 발굴할것이 많고 유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소설화할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내용으로 한 혁명적인 소설을 더 많이 써내야 하겠습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함으로써 내용이 명백하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한데 있다.

이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하고있음으로 하여 그 내용이 명백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주는 사상정서적교양의 힘도 더욱 크게 된것이다.

이것은 바꾸어말하면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역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의 관계문제를 위대한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옳게 처리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작품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중요한 역사적사변들을 그리면서 거기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을 제대로 다 밝혀내는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사건들을 반영하는데서는 그 본질을 깊이있게 밝혀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이 역사적사실로 널리 알려져있을뿐아니라 그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형상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는것은 작가들이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전만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면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시는 그 로정이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과정이며 그 과정에 벌어지는 역사적사건들과 투사들의 생활은 시대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 전형적인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역사적사건들과 당대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할 때에만 그 본질을 옳게 밝힐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으로 근로자

들을 교양하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6년 2월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신후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될 백두산쪽을 향하여 남하의 길에 오르시여 미혼진과 마안산밀영등을 거치시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신데 기초하여 1936년 4월말 무송현 동강에 이르시여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기까지의 로정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남호두회의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회의로서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0년대 중엽에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 역사적인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시고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긴절한 과업으로 나선것은 항일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는것이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후 얼마 안되는 사령부호위성원들을 거느리시고 무송지구예로의 역사적진군을 개시하신때로부터 약 2개월간 무송현 동강에 이르는 행군길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바로 이 영광에 찬 역사적인 행군로정을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벌어지는 사건들속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을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이 소설이 이처럼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그토록 준엄하고도 간고한 시련속에서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 영명하시고 위대한신 령도자로서의 품모를 진실하고 깊이 있게 그려낸것과 관련된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몸에 맡아안으신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숭고한 정신과 거룩한 인품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어디까지나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썼기때문에 내용이 명백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작품으로 되었다.

작품의 내용이 명백하다는것은 주제사상이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뚜렷이 밝혀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실재한 인물들과 실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형상하였기때문에 작품을 읽어나면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잘 알고있는 력사적사실들을 산 현실로서 눈앞에 선하게 그려볼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후 얼마 안되는 사령부호위성원들을 거느리시고 무송지구를 향하여 출발하신데 대하여, 간고한 행군길에 가로놓인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시고 미혼진밀영에 이르시여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재편성하며 새로운 사단들을 편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미혼진밀영지의 병원, 무기수리소, 재봉소 등을 돌아보시면서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할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열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을 친히 찾으시여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미혼진에서 복잡한 사업들을 친히 조직지도하시고 소부대성원들을 이끄시여 마안산지구로 진출하신데 대하여 그리고있다.

소설은 마안산지구로 진출하시는 도중에 적들과 조우하여 벌리신 전투에 대하여, 마안산밀영에 이르시여 그곳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반 《민생단》투쟁에서 범하였던 좌경적후과를 청산하시면서 새사단을 편성하신데 대하여, 억울하게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는 대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되찾아주시고 좌경기회주의자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있는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나가도록 아버지사랑을 베풀어주신 감동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그려내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이처럼 심오한 형상의 진실성과 거대한 사상정서적교양의 힘을 지니게 된것은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

히 모시고 만민이 인류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령도자적품모와 공산주의적덕성을 사실그대로 응심깊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결과이다.

이 소설이 이처럼 내용이 명백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또한 그것이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 력사적사건들의 본질적의의를 뚜렷이 밝혀내도록 주제사상적과제의 요구에 맞게 구성을 바로 세워나갔기때문이다.

장편소설은 온 세상이 다 잘 알고있는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갔으며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조화로운 예술적화폭을 이루어놓았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남호두회의로부터 동강회의에 이르기까지의 약 두달동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사적에 기초하여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길만이 가장 옳바르고 빠른 조국해방의 길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예술적으로 빛나게 실현하고있다.

소설은 이 사상적알맹이를 아름다운 형상의 꽃으로 피워내도록 인간관계를 바로 설정하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벌리시는 투쟁로정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친위전사들인 경위중대 정치지도원이었고 새로 련대장이 된 강세호, 중대장 리복철을 비롯한 경위중대원들, 억울하게 《민생단》의 혐의를 받고있으나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이의 품을 찾아 간고한 행군길을 다그치고있는 리경준과 그의 안해 최선금, 기관총수 장기령, 작식대원 윤철녀 일행, 아동단지도원 한남실이 이끌고있는 응남이, 경수, 순녀를 비롯한 아동단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살려는 뜻을 품고 나섰다가 종파군들에게 휩쓸려 파란곡절을 다 겪고 산간벽지에 물러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강세호를 따라 사령부를 찾아온 《대통령감》의 별명을 받은 권학식, 일찌기 중학교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참다운 삶의 길을 알게 되었으나 유족한 가정환경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다가 그이의 손길에 이끌리어 투쟁대오에 들어서게 되는 박문필과 그의 안해 철숙이 등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 형상의 묘를 가지고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혀지도록 구성조직을 치밀하게 짜고있으며 그 모든 인물선들이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복종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일무장투쟁사와 항일투사들의 회상기를 통하여 잘 알고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위대한 령도자의 품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 가슴뜨거운 력사적사건들과

일화들이 생활의 논리를 타고 하나의 줄거리에 조화롭게 꿰어져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이루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었으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며 조국해방의 래일을 확신하면서 투쟁의 대오에 뭉쳐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뜨거운 지향과 념원을 펼쳐보이고있다.

실로 소설은 이 나라에 생을 둔 모든 선량한 사람들, 늙은이도 젊은이도 지어 명숙이와 같이 철이 들기에는 너무도 애어린 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강도 일체의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우러르고 따르며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항일무장투쟁에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있었던 1930년대 조선의 현실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도록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세부묘사에서 거기에 담겨진 깊은 뜻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리에 타서 기운 군복바지를 입고계시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면서 사령관동지를 받들어모시고 안녕을 도모해드리는 일에서는 양보없이 욕심을 써야 한다고 리복철중대장을 깨우쳐주는 강세호의 모습이며 걸음마다 목숨을 위협하는 험난한 고생이 앞을 막아나서도 장군님을 뵈기전에는 죽을수 없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간고한 행군길을 다그치고있는 《민생단》협의자들의 뜨거운 소망과 행동은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또한 장군님께 인사드릴 때 매꼴하면서 빨간 땀기를 고이 간수하며 장군님을 만나뵈게 된 기쁨속에서 그것을 매고 나타나 《난 장군님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그 티없이 맑고 깨끗한 녀의 호소를 토로하는 명숙이의 모습이며 온갖 천대와 모멸을 받으며 지내다가 그리운 장군님을 맞이하여 종이꽃가지를 두손에 정히 반쳐드리는 아동단원 순녀의 가룩한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리고 마르크스(맑스)라는 사람을 신봉한다는 아들의 뜻과 소행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된 아들을 감방면회실에서 만나서 자기가 신봉하고있는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며 오직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일생을 살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네가 그분을 따른다니 그릇된 길로 갈 념려가 없다구 믿는다면서 자신도 아들을 실망시키는 짓을 안하리라는것을 다짐하는 박문필의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진실한가.

소설의 마감장면에서 주어진 권학식의 목소리,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돈화땅에서부터 백두산기슭 동강까지의 로정을 장군님을 모시고 따라오며 그 로정우에서 맺어진 눈물겹도록 자랑차고 위대한 력사의 목격자로, 참가자로, 기록자로 된 권학식의 그

처럼 절절한 서정토로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것인가.

그 짧은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두달동안에 그는 어떻게 열다섯명의 전사와 한정의 기관총이 혁명무력의 최정에부대로 변하고, 혁명가의 존엄과 인간적가치를 상실당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운명과 력사의 주인으로 변해지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숭고한 삶을 마치는가를 보고 알았으며 어떻게 불가능한것이 가능한것으로 되며 어떻게 먼 장래에나 실현될지 말지 막연하게 여겨졌던 리상이 삽시에 현실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깨달은것이다.

우리는 이 작품을 읽고나서 권학식이 지난날 그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의 해방도 이제 반드시 장군님의 의지대로 이룩되고야말리라는것을 굳게 믿어마지않게 되었을 때, 남달리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세상의 단맛 쓴맛을 다 보아온 그가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수 있는 유일한분이시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만이 가장 옳바르고 빠른 조국해방의 길임을 절절하게 느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것이다.

(우리 조선의 2천만겨레는 한결같이 위대한 금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마음속으로 격조높이 부르짖는 권학식의 이 뜨거운 내면독백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고있으며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사상적결론이기도 하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혁명소설창작에서 철저히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려내며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일 때 사상정서적감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게 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항일투사들의 회상기를 통하여 잘 알고있는 마안산에서의 사건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좌경 기회주의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민생단》협의자들에 관한 문서보따리를 불태우시고 그들에게 정치적생명을 되찾아주시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배타주의자들에게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던 아동단원들에게 강반석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사연깊은 20원의 돈을 서슴없이 내시여 새옷을 해입히신 이야기들이 소설에서는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면서 우리앞에 더욱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실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함으로써 내용이 명백하고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되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유일사상교양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김하명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주인공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소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학작품들을 읽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많은것을 느낄수 있고 생활에서 필요한것을 많이 배울수 있습니다.》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을 커다란 감명속에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생활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 그들과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격분에 가슴을 떨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혁명은 인간을 위하여 하는것만큼 인간을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생활력과 그 정당성을 형상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모든 사업의 중심에 인간을 놓고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며 커다란 정치적신임과 육친적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작품은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로부터 억울한 정치적무명을 쓰고 박해를 받던 혁명전사들 뿐만아니라 복잡한 시대의 정치적혼탁속에서 밀려나온 사람들까지도 넓고넓은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옹호해 싸울수는 없습니다. 믿지 못할것을 옹호해나설수 있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동무들을 부당하게 박해하고 동무들의 혁명가적, 인간적 존엄을 훼손하는 이따위 문서보따리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동무들! 나는 이 시각부터 동무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민생단>협이가 완전히 무효라는것을 선포합니다.》

억울하게 《민생단》련루자로 몰려 박해를 받던 백여명의 대원들앞에서 《민생단》보따리에 불을 지르며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대원들이 울음을 터치고 흐느끼는 장면에서는 정말 눈물없이는 읽을수 없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싸우는 혁명투쟁에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혁명동지들을 믿지 못하고는 투쟁을 할수 없다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간고한 혁명투쟁의 력사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보살핌 속에서 이룩된 위대한 사랑의 력사입니다.

협애한 민족배타주의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불도 때지 않은 차디찬 령방에서 모포도 없이 누워있고있는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말씀 없이 방안을 거니시다가 자신께서 입으셨던 외투를 벗으시여 앓고있는 아이들에게 덮어주시는것입니다.

대원들이 배낭에 젖던 자기들의 모포를 풀어들고 외투를 도로 입으실것을 간청하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가 백별의 외투를 입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기어이 외투를 덮어주시는것입니다.

그러시고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샷빨래질하여 한 푼두 푼 모아두었다가 남자의 주머니에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며 넣어주신 귀중한 20원의 돈으로 아동단원들의 옷을 전부 해입히도록 해주시는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서는 머리로 깨닫기보다 심장으로 느껴야 하오.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것이 머리로 하는것이 아니요.》

추위와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 아동단원들을 돌볼대신 오히려 부담거리로 생각하면서 깊숙한 밀영에 들여박혀 어린 그들까지 《민생단》련루자로 몰아 박해한 정치주임이라는자를 준절히 꾸짖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입니까.

항일혁명투사들이 눈을 헤치고 풀뿌리를 캐서 삶아먹으며 모진 추위를 뚫고 향방을 알길 없는 사령부를 찾아갈 때 그들의 가슴속 소원이란 어떤것입니까.

살아서도 사령부가까이에, 죽어서도 사령부가까이에 가서 죽겠다는 단 하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것입니다.

주인공들의 그 불타는 충성심들이 어데서 흘러나오는가를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하고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나는 잘 알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령관동지를 찾아가겠다.》

근거지 해산후 뒤처리를 하느라고 왕청에 남아있던 리경준일행은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민생단》협의를 들쭉우며 적 통치구역에 내려

갈것을 설교하자 그것을 단호히 뿌리치며 이렇게 말하는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철두철미 우리 주인공들은 아버지수령님께 민족과 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만을 위해 살며 싸우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들의 불타는 충성심은 혁명의 사령부를 호위하고 사령관동지의 신변과 편의를 보좌해드리는데서도 볼수 있는것입니다.

정치지도원이였고 후에 련대장이 된 강세호는 사령관동지께서 군복을 기워입고 다니시는것을 보고 얼마나 아프게 질책하는것입니까.

사령관동지를 모시고있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사업이 최대로 최고로 중요하며 그것에서 조그마한 실수나 파오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 가장 큰 엄중성을 띠는 죄악으로 된다고 강세호는 말합니다.

사령관동지를 받들어 모시고 안녕을 도모해드리는데에서는 양보 없이 욕심을 써야 하며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키는 문제는 모든 혁명가들의 심정 일뿐만아니라 조선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하며 그토록 심각하게 일깨워줄 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본분에 대하여 커다란 충동을 받았습시다.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의 피어린 그 자욱자욱우에는 가슴아픈 희생과 참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많았지만 항일혁명투사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장군님을 모시고있었기에 원수들의 흉탄에 희생되면서도 사령부가 있는 먼 하늘가를 우러르며 사령관동지의 귀중한 존함을 목메여 부르는것입니다.

아버지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그 어떤 고통도 꺾듯이 이겨나가는 주인공들의 티없이 맑고 순결한 그 충성심은 병사의 이 가슴에 한없는 충동과 걱정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고생이나 시련 같은것은 말로만 들어오고 복잡한 환경과 생활체험을 거쳐보지 못한 나에게 있어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많은것을 이야기하여줍니다.

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싸우며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하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생활의 지침으로 정치수양의 교과서로 되는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주인공들처럼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만을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싸워가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상위 최승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송가

어느날 지하철도전동차를 탔던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은 한 애기어머니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다가 눈가에 가랑가랑 이슬을 짓더니 손님과 눈길이 마주치게 되자 창밖으로 얼굴을 돌리며 눈굽을 닦는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아주머니의 가슴속 걱정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나도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어떤 장면에서는 가슴 벅찬 충격에 자신을 견잡지 못하기도 한때문이였습니다.

이것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은 모든 독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체험일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그렇듯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비할바없이 큰 사상적서적감화력과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키는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빛나는 혁명업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가장

간고하고도 의의깊은 시기였던 1936년 2월부터 1936년 5월까지 이르는 남포두에서 백두산기슭에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군로정에 실재하였던 그 위대하고 거창한 력사적사변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훌륭하게 반영하였기때문인것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기슭으로의 행군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시고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산지사방에 흩어졌던 혁명전사들과 아동단원들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대오에 묶어세우시고 마지막에 조국광복

회 창립을 선포하시기까지의 뜻깊은 역사적사변들을 장엄한 화폭속에 생동하게 옮겨놓음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향상하고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백두산을 두고 많은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때부터 우리 인민의 념원과 희망이 이 혁명의 성산에 가닿아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이른바 《명사》라고 하는 거짓 위인들에게 수없이 속아온 《대통령감》 권학식, 신비성이란 믿지않는 그였지만 인민들이 것처럼 흠모하며 우러르는 《놀라운 지략》을 지니시고 《축지법》 같은것을 자유자재로 하신다는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 모든것의 진가를 확인하고싶은 열망에 휩싸여있다가 드디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고 유격대오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민들의 전설속에 이처럼 신비롭게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운 숨바지를 입으시고 손수 장작도 패시는분이었습니다.

요란스런 상상으로 《전설의 영웅》을 그려보던 권학식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이 순간의 권학식이처럼 놀라지는 않았을것입니다.

더없이 인자하신 얼굴에 부드럽고 겸허하신 미소를 띠우신 젊디젊으신분.

《...이분이 과연 30년대 역사우에 높이 솟아오르신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이시며 항일유격대 사령관이신 금성장군님이시란말인가!》

권학식의 머리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겸손하시면서도 끝없는 무게와 깊이가 감출수 없이 풍겨나오는 인품에서 이제껏 보아온 《명사》나 《위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위대하고 거룩한 풍모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날 그가 보아온 《영웅호걸》이나 《위인》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류다른 행색과 언동으로 혹은 높은 대우와 절대적권력자세로 자기들을 비범하게 돋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범성》대신 철저한 평범성을 지니고계시는 것입니다. 권학식은 이 철저한 평범성이야말로 그 어느 《영웅호걸》이나 《위인》에게도 없었던 비

범성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여직껏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얻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사자도 잊고있던 전령병의 생일까지 잊지 않으시고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며 부모를 대신하여 봉길이에게 수저를 돌려주실 때 권학식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생각합니다.

《주의자》들속에 섭쓸려 돌아치던 시기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안해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를 짊어맡고 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은것을...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전사의 생일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런 환경에서라면 친부모도 생각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는것입니다.

권학식은 여기서 심각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장 비범한 성품을 지니신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것을.

그는 심장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렇다. 그이는 군을 통솔하시는 사령관이실뿐 아니라 그 각자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한몸에 맡아안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이야말로 만인의 운명을 한몸에 맡아안으실 비범한 천품이시며 만인이 의탁한 운명을 감당하실 특출한 자질이시다.)

마안산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뺏은 아동단원들의 참상이 그렇듯 가슴아프시여 강반석어머님께서 남기신 돈 20원을 내놓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라고 하실 때, 강반석어머님의 뜻깊은 사랑이 담긴 돈으로 사온 천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군복을 만들어 수령님께 올리시자 그것을 권학식에게 돌려주실 때 자신보다 언제나 혁명전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에 목이 메고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서보따리를 손수 불태우시고 희생된 전사의 마지막 유언을잊지 않으시고 그 동무가 못보더라도 그의 곁에 가보시자고 하시는 그 사랑,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소설속의 친위전사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 흠모의 눈물을 머금게 되는것이니 권학식은 그이를 우러러 이렇게 칭송하는것입니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금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별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별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이 위대한 태양의 빛과 열을 받으며 수많은 충성의 해바라기들이 자라나 그것은 조선혁명의 억센 대군이 되어 일제침략의 아성을 짓부셔나가는것입니다.

이처럼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생동하게 보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 인간에 대한 사랑의 해발이 어떻게 이 땅우에 충성의 별무리들을 낳게 하였는가를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필승불패의 통일단결과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충만하게 하며 특히 우리 군인들로 하여금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끌어주고있습니다.

나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깊은 감동속에 읽고 앞으로 모든 사업과 생활, 학습과 전투정치훈련에서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과 같은 자세와 립장,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충성심을 발휘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조선인민군 소위 조래욱

마안산의 그 사랑속에 우리의 꽃봉오리들은 행복하게 자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예술만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사람들을 웃길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한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혁명전사들과 아동단원들을 뜨거운 사랑의 한몸에 안아 혁명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숭고한 영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과 몇십명도 되나마나한 사령부호위성원들과 함께 준엄하고 고난에 찬 행군길을 몸소 헤쳐나가시며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크나큰 믿음으로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화폭을 보여주는 소설의 매 장면들은 실로 저에게 영원토록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마안산밀영에 도착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배타주의자들로부터 《민생단》런 루자라는 루명을 쓰고 배척을 받으며 굶주리고 떨고있는 아동단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

의 대목에 이르러 건잡을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한참동안이나 앓을 더 읽을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날에 새세대들에게 기울으신 은혜로운 그 사랑이 저의 가슴속에도 스며들어 마음은 한없이 뜨거워질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과 몇십명도 되나마나한 사령부호위성원들과 함께 준엄하고 고난에 찬 행군길을 몸소 헤쳐나가시며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크나큰 믿음으로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화폭을 보여주는 소설의 매 장면들은 실로 저에게 영원토록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소위 혁명을 한다고,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던 놈들이 단지 돌봐주기 싫고 시끄럽다는 리유로 의지가 없는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딱지를 붙여놓고 가혹하게 박대한 그 비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크나큰 괴로움을 끼쳐드린 더없는 엄중한 행위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찬바람 스며드는 썰렁한 귀틀집에 누대기이불도 걸치지 못하고 혹한과 굶주림속에서 얼은 병마에 시달리고있는 아동단원들의 처참한 모습을 가슴 저미는 아픔속에 바라보시며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벌의 외투를 입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 수 있겠소?!》라고 하시며 단 한벌밖에 없으신 외투를 벗어 덮어주십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밝아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간고한 싸움의 불길속에서도 혁명의 싱싱한 꽃봉오리를 키워주시며 그토록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던 아동단원들이었습니다. 하기에 어린이들을 배척한자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날카로운 규탄은 바로 수령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열렬하신것이였으니만큼 서리발같은 분노로 불타오르는것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로서의 초보적인 본분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감정도 저버리고 민족배타주의자들에게 맹종맹동한 정치주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노하신 심정을 억눌러가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인간다운데가 있고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만들진 않았을것ियो. 조금이라도 혁명가다운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와 한길에서 손잡고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전우들의 유자녀들을 저렇게 내버려두진 않았을것ियो. 조금이라도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저 아이들을 저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리지 않았을것ियो.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혁명을 우리 대에 다하지 못하면 저 아이들이 하게 하고 또 저 아이들 대에도 다하지 못하면 그 다음 대에까지라도 이어가며 기어이 혁명을 완성하게 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 자신이 잘 싸울뿐아니라 혁명의 장래가 달려있는 저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혁명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는것ियो…》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켰습니다. 아동단원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 그것은 한갓 어린이들이 귀엽다는 인간적인 감정과 단순한 육친의 사랑과는 비할바 없는 한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혁명적사랑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4년전에 강반석어머님께서 편치 않으신 몸으로 샅바느질과 샅빨래를 해서 한푼두푼 모으시여 혁명에 쓰라고 주신 돈 20원으로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십니다.

20원의 돈-그것은 천금보다 더 귀중한 강반석어머님의 원대한 사랑이 깃든 마지막 유물이였습니다. 투쟁의 모진 풍랑속에서도 어머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절절히 안겨오고 혁명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치게 고무하여주시던 귀중한 돈이였기에 4년세월 소중히 품속깊이 간직하시였던 그 돈으로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뜨거운 은정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눈보라 올부짚는 밀림의 밤 천막안에서, 행군도중의 잠시간에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강령을 작성하시며 밤을 지새우시는 그 어려운 행군속에서도 헐벗은 아동단원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아이들에게 자신께서 주실수 있는 그 모든것을 다 돌려주시고야 가까스로 피로우신 심정을 더시는 아버지사랑!

류레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폭풍우속에서도 조선혁명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품에 안아 손잡아 이끌어주시여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나가시는 뜨거운 사랑!

그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 수행에 대한 줄기차고 드팀없는 혁명적신념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혁명가로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가장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인간애로 충만된 위대한 사랑이였습니다.

소설은 바로 이처럼 아버지수령님께서 혁명을 위하여 바치신 은혜로운 사랑의 한량없는 깊이와 뜨거움에 대하여 감동적인 세부들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으며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책동과의 갈등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전사들과 아동단원들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격조높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참으로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그 사랑속에 혁명의 계승자들은 오늘 당, 국가, 경제 기관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인민군대의 간부들로 억세게 자라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떠메고있으며 우리의 꽃봉오리들은 마안산의 그 사랑속에 아버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꽃봉오리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배울 걱정을 모르는 세상에 부럼없이 씩씩하게 자라고있습니다.

지금 소설을 읽고난 저의 가슴은 피어린 항일의 그날 혁명의 미래인 아동단원들에게 부여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저는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인 청소년들과의 사업을 맡은 일군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새세대들이 누리고있는 행복의 꽃이 영원히 피어나도록, 남녘의 어린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고 있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의 한토막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준 또하나의 혁명적대작으로서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실현의 한길에서 대와 대를 이어나갈 우리 새세대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고결한 혁명의 교과서로 될것입니다.

사로청중앙위원회 지도원 김복숙

가사

백두산 명승가

안호근

밝은 태양 우러르며 장군봉 높이 솟고

노을비낀 천지에 밝은 물 설레이네

천고밀림 바람결에 사향가도 들리는듯

백두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일세

기슭에선 진달래가 봄빛 안고 웃더니

산상봉엔 만병초가 눈속에서 반겨주네

꽃을 봐도 눈을 봐도 혁명의 뜻 안겨오는

백두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일세

조선의 아침노을 여기서 피어나고

주체시대 려명도 여기서 밝아왔네

수령님의 혁명위업 만대에 길이 전할

백두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일세

아 천하의 명승일세

탄부의 영예 빛내여가리

림호권

1. 청춘의 희망이 나래 펼치는

우리의 탄전이 나는 좋아라

검은 금 폭포에 기쁨을 실어

락원의 강산을 꽃피운다네

(후렴)

아 락원의 강산을 꽃피운다네

2. 사랑의 태양등 빛을 뿌리는

정다운 막장이 나는 좋아라

한없이 은혜론 불빛아래서

빛나는 위훈을 새겨간다네

(후렴)

아 빛나는 위훈을 새겨간다네

3. 언제나 이 가슴 불타게 하는

미더운 채탄기 나는 좋아라

수령님 맡기신 초소를 지켜

탄부의 영예를 빛내여가리

(후렴)

아 탄부의 영예를 빛내여가리

생명수에 깃든 크나큰 은덕에 대한 생동한 화폭

-장편소설 《생명수》에 대하여-

최인경

최근에 창작되어 세상에 나온 장편소설 《생명수》(변희근 작)는 그 높은 사상에술적성공과로 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널리 읽히우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지돈관개공사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지난날 봉산벌에서 살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논에 눈석임물과 비물을 받아넣고 농사를 지었으며 물이 고여있는동안에는 온 벌판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장보러 갈 때에도 함지를 타고 다니고 학생들이 학교에도 함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곳 사람들이 어지돈관개의 덕분으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잘살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장편소설 《생명수》는 바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대서사시적화폭으로 력사에 기록되어야 할 대자연개조사업인 어지돈관개공사에 깃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반영하고있다.

장편소설에는 대자연개조를 위한 창조적로동속에서 위훈떨치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해나가는 로동계급의 투쟁과 지식인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 서로 돕고 이끌며 혁명에 이바지해나가는 투쟁속에서 맺어지는 인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건설자들의 생활과 함께 농촌생활, 문석빈일가의 가정생활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활들이 폭넓고 풍부하게 그려져있다.

소설은 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ㄷ언제설계안을 교언제설계로 변경시켜 많은 국가자재와 건설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시공기일을 앞당김으로써 나라의 만년대계를 튼튼히 마련해나가는 건설자들의 빛나는 로력적위훈에 대한 이야기줄거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이렇듯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실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문학이 거둔 귀중한 열매로 된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이룩한 사상에술적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오랜 세월 물고생으로 하여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하늘도 임금

도 줄수 없었던 생명수를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의의있고 감명깊게 모신것이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무엇보다도 어지돈관개공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그렇듯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실로 만년대계의 어지돈언제와 더불어 력사에 길이 불멸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사적은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적성공과를 담보한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문제는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의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적과 같이 그렇듯 위대하고 거룩한 업적을 그리는데서는 력사적사실의 진실한 반영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모든 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어지돈관개공사의 설계와 시공계획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고 몸소 온 나라의 관개하천공사장에 나가시여 건설자들을 로력적위훈으로 고무하여주시였다.

실로 가물과 큰물로 대를 두고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이 땅에 생명수를 주시고 세세년년 만풍년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가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심심산골로부터 넓은 벌방지대에 이르기까지 관개공사가 진행된 이 나라 방방곡곡에 닿지 않는곳이 없었다.

수천년을 두고 가물과 큰물 피해로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고통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영원히 가시여졌으며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개의 나라로 전변되고 메달랐던 이 땅우에는 생명수 넘쳐흐르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바로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아래 이 나라에서 벌어진 천지개벽의 력사를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면서도 그것을 훌륭한 예술적진실로 전환시키였다.

소설은 어지돈관개공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을 그대로 정중히 화폭에 옮기면서 주인공들의 운명을 이 위대한 력사적사적과 결부시킴으로써 문학적인 이야기로 전환시키였으며 의의깊고 감동적인 예술적형상으로 전환시키였다.

실로 독자들의 소설의 갈피갈피마다에서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는 그렇듯 감명깊은 형상들은 모두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우에 자욱자욱 아로새겨진 불멸의 사적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재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작품전반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성이 일관되게 그린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작품전반을 일관하여 뜨겁게 차넘치게 된것은 작품이 어지돈관개공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하면서도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덕성을 작품의 종자로 삼고있기때문이며 모든 형상이 이 종자를 꽃피우는데 하나로 통일되어있기때문이다.

작품에서 형상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땅은 주었으나 물에 대한 소원은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백성보에 들렸을 때 나는 생각되는것이 많았습니다.

당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줄것을 약속했으나 전쟁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때도 나는 그 벌을 지나다닐 때마다 큰 빗을 진 사람같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동무들이 말하다싶이 이 공사를 하자면 많은 자금이 들고 오늘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힘이 부치는 일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어도 하루빨리 봉산벌에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아버지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상은 작품의 형상전반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열쇠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지혁명, 토지개혁을 수행하시여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고도 전쟁으로 하여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시지 못한것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신다.

이때 일부 일꾼들은 저수량에 비해 관개면적이 적기때문에 경제적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지돈관개공사를 뒤로 미를 생각만 하고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오늘의 나라형편에서 큰 관개공사를 벌린다는것이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금덩이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어도 봉산벌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한다

고 하시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어지돈관개공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는것이다.

작품에 심어진 이 종자에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이 체현되어있을뿐아니라 농촌경리와 수리화를 기술혁명의 첫째가는 내용으로 보시고 농민문제, 농촌문제해결의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이 집약되어있다.

작품의 종자에 담겨져있는 감명깊은 사상과 의의 깊은 사상은 작품의 구성과 성격, 인간관계 등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린 확고한 바탕으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하나로 결합시킨 담보로 되고있다.

작품은 저장에서 봉산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에 대한 화폭을 통하여 어지돈관개공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보여주고있으며 이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투쟁과정으로 구성의 대를 세워나가고있다.

작품의 형상전반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덕성으로 일관되게 된것은 또한 종자를 예술적으로 꽃피워나가는 형상의 기본담당자인 주인공의 운명을 수령님과 혈연적으로 련결시켰기때문이다.

봉산벌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백성보의 오랜 양수기관리공인 대성의 아버지 박덕삼을 찾으시는것이다.

그의 영웅적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전사의 잊을수 없는 모습을 회고하시면서 그 아들 대성이 아버지의 뜻을 잇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그리하여 주인공 박대성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가슴에 받아안고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나서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어지돈관개공사를 위한 주인공의 투쟁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그의 모든 운명에 뜨겁게 미치고있다.

어지돈관개공사가 한창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던 때에 또다시 건설공사장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대성과와 그 어머니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친 아버지사랑을 부어주시는것이다.

이리하여 주인공 대성은 아버지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안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 충성의 대들보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나는것이다.

작품에서는 또한 봉산벌력사의 고증자인 정순갑의 운명을 통해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덕성을 일관하게 끌어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로동계급의 전형인 로력영웅 류춘일의 빛나는 형상을 통해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운명이 어

평게 어버이수령님의 품과 땀해야 땀수 없이 맺어
져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덕성이 일관된것
은 또한 어지돈관개건설의 전로정이 일관하게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구현과정으로 그려져있기때문이다.

혼합공사장과 언제공사장, 추도공사장을 빠짐없
이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첫눈에 걸린 고
리들을 헤아려보시고 철강재를 보내주시고 다음날
새벽에는 전화를 거시여 쥘크레인과 가소린차까지
보내주신다.

이렇듯 장편소설은 작품전반을 수령님의 사상과
고매한 덕성으로 차넘치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작품의 종장에서 펼쳐지는 메달랐던 봉
산벌에 어지돈의 생명수가 흘러드는 감격적인 화폭
은 이 나라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목매
여 흘리는 감사의 눈물과 합쳐져 더욱 찬란히 빛나
는것이다.

봉산벌에 깃든 력사의 증전자 정순갑로인은 평생
소원이 풀린 이 감격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
는 평양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 봉산벌에 어지돈물이 왔습니다.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로 이 늙은것도 지금 고
향벌에 생명수가 흘러드는것을 보구있습니다.

하늘두 임금두 주지 못한 생명수를 어버이수령님
께서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고맙습니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수령님의
형상을 매우 감명깊게 창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
는 사랑과 배려는 주인공들의 운명과 뜨겁게 잇닿
아짐으로써 더욱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현지지도과정에 정순갑로인이 병중에 있다는것
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왜놈들과
지주놈들 밑에서 갓은 천대와 구박을 받으면서 누
구보다도 물고생을 많이 하고 전쟁때에는 큰아들을
나라에 바친분이라 하시며 그를 중앙병원에 입원시
키고 유능한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뜨거
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실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산 분이니 물걱정을 모
르는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락을 보며 살게 해주
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은 그 얼마나 사
람들의 가슴을 크게 격동시키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
는 사랑과 은정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
주의적품모와 결합됨으로써 더욱 감명깊게 그려지
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
으시고 동무들이 일하는곳이면 어디라도 들어가야

하며 더구나 위험한곳이라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50미터 험한 굴속길을 걸으시여 막장
끝까지 들어가시며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하시며 로력과 자금이 아무리 더 들더라도
암추도를 파지 말고 명추도를 파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느것이다.

몸소 공사장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를 다 풀어주
시고도 마음이 놓이지지 않으시여 다음날 이른새벽
에는 또다시 전화를 거시여 귀중한 쥘크레인을 보
내주시고 쥘크레인 해체조립과 운반이 걸릴세라 수
풍발전소에 또다시 전화를 거시여 오랜 연공인 공
화국로력영웅까지 이 사업을 방조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령도의 손길은 그 얼마나
감명깊게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것인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의의깊
게 감동적으로 모신것은 장편소설 《생명수》가 거
든 가장 귀중한 성과로 된다.

× ×

장편소설 《생명수》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어지돈관개공사당시의 계급투쟁을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명백하게 잘 그림
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
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한다는데 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
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그것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혁명적
준동이 계속되고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
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것과 관련된다.

특히 이 시기 사회주의건설의 고조를 더욱 높이
는데서 있어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은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되는 장애물로 되어있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
침을 제시하시였다.

장편소설 《생명수》에는 당시의 이러한 사상투
쟁, 계급투쟁의 내용들이 잘 반영되였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
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성
과작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소설이 당시의
계급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우리 당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정당성, 특히는 우리 당 지
식인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였기때문이다.

장편소설의 중심화폭에는 주인공 박대성을 비롯
하여 광동수, 한상도, 남성우, 봉숙이 등 새 세대의
로동계급들이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로동과 창
조적위훈속에서 자신을 혁명화해나가는 의의있는
생활이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여기서 특히 위훈에 대한 갈망에 불타는 젊은 청년건설자 남성우의 혁명화과정과 그를 이끌어주는 주인공의 형상은 매우 생동한 개성으로 의의깊게 그려지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소소유자적인 리기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송병무의 개조선, 부기사장인 황종구의 보수주의사상과의 갈등선, 그리고 간첩암해분자 장억대의와의 적대적인 갈등선 등을 통하여 당시의 복잡한 계급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특히 책임기사 문석빈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지식인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송병무의 성격과 그의 개조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시회관계의 기본과 계급투쟁의 기본내용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그는 낡은 자본주의사상인 개인리기주의사상의 체현자이다.

그는 지난날 보잘것 없는 개인목공소를 차려놓고 목공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할 때 머리속에 깊숙이 박힌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좀체로 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한창 공사가 바쁘게 벌어지고있을 때 먹물통을 가지러 간다고 하고는 남시질을 하기도 하며 사회주의적인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할 대신에 《부업병》에 걸려 돈벌이를 위하여 집에서 찬장을 짜며 남몰래 자본주의를 한다.

이리하여 그는 사람들속에서 《애군령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며 지어는 술몇잔과 피임수에 넘어가 간첩암해분자 장억대의 부추김까지 받는다.

실로 그의 머리속에 박힌 리기주의사상은 뿌리깊은 것이어서 좀체로 고쳐지지 않았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이러하던 그가 어떻게 교양과 비판을 거쳐 점차 로동계급으로 개조되는가를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에 무한히 고무되며 특히는 주인공 대성을 비롯한 동지들의 꾸준한 교양에 감화되고 비판과 투쟁속에서 심각한 자극을 받는다.

이리하여 송병무는 마침내 나무휘틀 대신에 100% 블로크휘틀안을 창안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며 찢크레인 조립의 마지막단계에서 장억대가 감추었던 암나사궤미를 찾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적의 정체를 밝히는데 기여한다.

소설은 송병무의 개조선을 설정하고 해결하는데서 특히 그 성격을 생동한 개성으로 형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의 사상개조과정을 비교적 심각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특히 장억대의 부추김에 넘어가 교연제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소조에도 잘 나오지 않던 그가 찢크레인운전수가 들도록 자기 집 방을 내겠다고 자진해나서는 장면과 자신을 소개한 벽보판이 떨어진것을 대성반장이 다시 붙였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내심 깊이 감동하는 장면들은 형상의 생동성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송병무의 성격과 그의 개조선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는 시기에 있었던 계급투쟁의 기본내용을 매우 생동하게 전형화한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형상은 중소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우리 당 계급정책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한 전형적형상이다.

당시의 사상투쟁, 계급투쟁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보수주의자 황종구와의 갈등선의 형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의 생활 《신조》,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비결은 남들보다 증빨나게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면서 그저 무난하게 일하고 쓸쓸하게 처신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보신주의적생활태도는 당시는 물론 오늘까지도 일부 일군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있는 낡은 사상의 주되는 표현형태이다.

황종구의 형상은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보수주의가 우리 혁명에 얼마나 해독적작용을 하는가 하는 심각한 교훈을 주며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철저히 벌려나가도록 커다란 사상적자극을 준다.

황종구의 보수주의는 ㄷ연제설계를 교연제설계로 바꿀데 대한 문석빈의 선진적인 설계체안을 적극적으로 관철해나가는데 커다란 저애를 주었으며 그는 이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지지하기 위한 대성이네 연구소조활동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리하여 그는 목공기술자인 송병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긴요한 때에 그의 개인주의사상을 부추겨 연구소조활동에 열성을 발휘하지 않게 함으로써 엄중한 부정적작용을 한다.

그가 가지고있는 보수주의, 보신주의의 해독성은 특히 찢크레인의 부속운반을 위한 9톤급케블기중기가 없는 조건에서 대성이네 연구소조가 혁신적으로 창안한 7톤급삭도기중기도입을 반대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부기사장인 보수주의자 황종구의 형상은 우리 일군들이 주관적으로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낡은 보수주의사상을 버리지 못할 때에는 혁명의 전진운동에 엄중한 후파를 미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형상이다.

이밖에도 장편소설은 목공반장 백길만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가운데는 더러 일을 열성스레 하면서도 무슨 새로운 일이 제기되는 때면 처음에는 버릇처럼 한번 올려받든지 두들거리고서야 따라서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한 비판도 보여주고있다.

이상의 형상들은 모두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용적 모순에 기초한 비적대적갈등을 보여주는것으로써 비판을 통해 투쟁을 벌리며 투쟁속에서 교양개조하고 통일단결할데 대한 우리 당 혁명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빛나게 확증하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또한 간첩암해분자 장억대와의 심각한 적대적갈등을 통하여 사회주의하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의 투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억대는 친일대지주의 아들로서 일제의 밀정이며 미제의 고용간첩이다.

그는 보수주의자 황종구와 개인리기기주의자 송병무의 낡은 사상을 악용하며 문석빈기사에게 정신적고통을 주어 교언제설계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책동한다.

장억대의 파괴암해책동은 특히 블록휘틀도면 반침대에 수식오기를 내어 오작시공을 하게 하며 삭도기중기의 쇠바줄을 끊어놓으며 찢크레인의 마지막 조립을 앞두고 암나사끼미를 감추는데서 교활하고 음흉하게 나타나고있다.

간첩암해분자 장억대의 형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도록 교양하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며 독재를 실시할데 대한 우리 당 계급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해준다.

또한 간첩암해분자 장억대의 형상은 그의 운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계급적원썹들이 제아무리 악랄하게 책동하여도 결국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경고해준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우리 당의 계급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책임기사 문석빈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 지식인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한것이다.

문석빈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로동계급에게서 배워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는 지식인의 전형이다.

장편소설에 그려진 문석빈의 형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가 어떻게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며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느라를 심각하게 보여준것이다.

그는 어려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일념으로 2언제

설계에 비해 자재와 건설자금이 적게 드는 교언제설계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내놓은 교언제설계안이 기술협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에도 조금도 자만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시공속도를 단축하겠는가를 두고 꾸준히 탐구하고 모색하며 또 고민도 한다.

그의 정신적고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한다는 티없이 맑은 충성심에서 나오는 고민이었다.

그의 이러한 고민은 새로운 교언제설계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자의 반대와 지어는 위협감과 강박감을 느끼게까지 하는 정신적고통, 문석빈이 공명주의로 하여 로동자들을 고생시킨다고 하는 장억대의 비방증상에 부딪쳐 일시적이나마 주저하고 동요하는데서 더욱 심각하게 그려지고있다.

작품은 그가 겪게 되는 이러한 정신적우여곡절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 파고들어가 깊이 밝혀냄으로써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더욱 심각하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에 그려진 문석빈의 형상의 의의는 또한 로동계급과 지식인의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잘 보여준것이다.

문석빈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하며 그의 교언제설계안을 관철해나가는데서 당의 지도와 함께 주인공 박대성을 비롯한 로동계급의 지시와 방조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인공 박대성은 문석빈이 교언제설계안을 놓고 시공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모대기고있을 때 주동적으로 연구소조를 조직하여 그의 사업을 적극 방조한다.

특히 대성은 철다리공사에서 마지막 세번째 《자끼식휘틀작업방법》까지 실패하여 문석빈이 동요하고 주저할 때 그가 동요하지 말도록 힘을 주며 고무해준다.

주인공 대성은 연구소조의 집체적지혜를 발양시킴으로써 마침내 100%블록휘틀안을 발기하며 찢크레인부속운반이 걸리였을 때에도 7톤짜리삭도기중기를 창안하여 난관을 이겨내도록 한다.

한편 대성이네가 발기한 100%블록휘틀안과 삭도기중기는 문석빈의 과학적인 보증에 의하여 드림없이 확고히 담보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생명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는 로동계급과 지식인간의 과학기술협조와 동지적단결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이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실로 장편소설 《생명수》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을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정당성, 특히 지식인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성과작으로 되는것은 또한 주인공들의 운명과 생활을 통하여 과거와 오늘을 대비적으로 생동하고 심각하게 보여준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행복속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들의 부모들이 착취받고 압박당하여온 지난날을 잊지 않게 하며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물문제가 그 얼마나 절절하고 사활적인 세기적숙망인가를 보여주며 또 그만큼 물에 시달려 피눈물을 뿌려온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영원히 끝장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그 얼마나 고마운것인가를 가슴뜨겁도록 느끼게 하여준다.

어제날의 계급사회와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제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어서 장편소설이 거둔 성과는 대비를 위한 대비, 회상을 위한 회상이 아니라 비록 짙막한 장면속에 그려지기는 했으나 눈에 보는듯이 생동하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계급사회를 체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방불한 표상을 가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작품의 서장에 그려진 농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상징인 백성보, 봄이 오면 물이 벌창하여 벌가운데 마을이 섬처럼 물에 잠긴다고 하여 《수중촌》, 장보러 다니거나 이웃들끼리 오갈 때에도 타고다녀야 했던 《함지배》, 모내기 때면 물속에 갈대를 쫓아 표식을 하면서 모를 냈다는데서 생긴 《헛갈이》라는 별명... 이 모든것은 그대로 물이 없어 타죽고 큰물이 나서 빠져죽어야 했던 어제날의 비참한 참상에 대한 생동한 화폭이다.

큰물이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는 독뱀에게 물려죽어야 했고 마른 목을 추길 한모금의 물이 없어 논판의 고지랑물을 먹고 붉은배알이, 지스토마, 관절염에 걸려 병신이 되고 죽어가야 했던 우리 선조들이었다.

가물에 타죽는 곡식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얼마나 아팠으면 비를 주지 않는 하늘을 보기가 역겨워 샷갯을 쓰고다니였겠는가!

어제와 오늘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어서 장편소설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그것을 주인공의 운명과 밀착시켜 그린데 있다.

주인공 대성은 밀려드는 홍수에 사랑하는 누이동생 순실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그리하여 물에 대한 원한은 영원히 그의 뼈속에 사무쳤고 그만큼 생명수에 대한 갈망도 컸던것이다.

해방전부터 백성보 양수장의 관리공이었던 대성의 아버지 박덕삼은 마을사람들을 위해 한목숨을 내걸고 지주 서력주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해방후 토지개혁이 있는 해에는 누구보다 먼저 봉산벌을 찾으시여 관개의 전망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한가슴에 받아안았고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양수기를 지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이리하여 생명수에 대한 문제는 주인공 대성에게 있어서 인민의 고통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문제로뿐만아니라 자기자신의 피눈물나는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기 위한 그 자신의 운명문제로 제기된것이다.

× ×

장편소설 《생명수》가 이룩한 사상에술적성과는 또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일련의 어렵고 중요한 미학적문제들에 일정한 긍정적해답을 준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창조적로동속에서 형상을 창조하면서도 사람들을 생산문제나 기술문제에 파묻히게 한것이 아니라 생산문제, 기술문제를 의의있는 인간문제로 전환시킨것이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봉산벌에 생명수를 보내기 위한 어지돈관개건설공사에 대한 창조적로동의 이야기이며 그 기초에는 2연제설계안을 교연제설계안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생산기술적문제가 놓여 있다.

그러나 소설은 결코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인간의 활동인 로동 그 자체나 생산기술적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되지 않았으며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 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대자연개조방침을 관철해 나가는 보람찬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 생산기술적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새롭고 진취적인 사상과 보수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사상과의 투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되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에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가 줄기차게 관통되어있으며 지식인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문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밝고 량만적인 생활, 그리고 혁명과 가정과의 관계문제, 남녀 청년들의 혁명적인 사랑관과 원칙적인 동지애에 대한 문제 등 문학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사회주의현실에서의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작품에서 새롭게 제기하고있는 문석빈의 가정문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혁명과 가정에 대하

여 어떤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혁명적가정론리의 문제를 일정하게 시사해주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데서 보여준 또 하나의 귀중한 경험은 밝고 명랑한 작품의 양상속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락천적인 생활감정과 영웅주의적기백을 생동하게 그리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인 천리마기수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러한 영화의 주인공은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옹호의 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쾌활하고 락천적인 감정과 혁명적량만,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며 새것을 위하여 낡은것을 짓부서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진취성, 창조적로동에서 발휘되는 대중적영웅주의, 이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고유한 사상감정이며 특징이다.

장편소설 《생명수》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밝고 랑만적인 감정과 정서가 잘 반영되어있다.

이는 어지돈공사장으로 떠나면서 다람쥐를 가지고가는 그들의 생활과 물축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봉산벌을 적시며 흘러드는 생명수를 찾아 모여오는 물오리떼에 대한 랑만적화폭에서 빛나게 그려지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또한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살리는데서도 긍정적경험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소설에 그려진 몇개의 빛나는 세부들은 형상전반에 생동성과 비반복성을 주고있으며 주인공들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있게 밝혀내며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보여주는 커다란 미학적작용을 하고있다.

생활에 대한 세부화, 세부묘사는 소설문학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묘사의 진실성은 개개의 세부들의 진실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장편소설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세부는 봉숙이와 대성이가 수차를 돌리는 서정적인 장면의 묘사이다.

그들은 수차를 돌리며 가물에 한숨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가슴아파 하늘의 은하수를 땅우에 끌어내릴 꿈을 꾸던 동요시절을 회상한다.

바로 어린 시절 그들의 공상과 동경 속에만 있던 《땅우의 은하수》를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의 뜨거운 마음을 한데 모아 자기들의 꿈과 리상을 이 땅우에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워나갈 서로의 굳은 맹세를 하는것이다.

그밖에도 소설에는 《부엌병》에 걸려 남몰래 《자본주의》를 하던 송병무가 자기 딸 선희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마지막으로 책상을 짜주고 공구함을 가져다 바치는 뜻깊은 세부,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뵈운 감격의 그날밤 수령님의 그 크나큰 사랑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괴로와 밤이 깊도록 장갑을 기워가는 대성의 어머니 오상녀의 형상을 보여주는 세부들은 다 뜻깊고 생동하게 그려진 감명깊은 세부들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생명수》는 이 모든 사상에술적성과로 하여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문학이 거둔 또 하나의 귀중한 열매로 된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무엇보다도 물고생으로 하여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봉산벌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진실한 예술적 화폭속에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이 은덕을 천만년 노래하여 영원히 충성다하도록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준다.

장편소설은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잘 그린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력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또한 물고생으로 하여 피눈물을 뿌려온 지난날과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생명수 흘러넘쳐 세세년년 만풍년 드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생동한 대비와 계급투쟁에 대한 폭넓은 묘사를 통하여 우리 당 계급정책의 정당성을 빛나게 확증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시대의 자취를 더듬으며

변희근

작가들은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한 창작경험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 작품을 쓰게 된 창작적충동에 대하여 먼저 말하곤 한다.

기적과 전변으로 가득찬 우리 시대에 살며 창작하는 작가들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다양하고 벽찬 우리의 현실은 작가들에게 무수한 창작의 소재를 제공하며 걸음마다 창작적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지돈관개공사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지난날 봉산벌에서 살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논에 논석임물과 비물을 받아넣고 농사를 지었으며 물이 고여있는동안에는 온 벌판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장보러 갈 때에도 함지를 타고 다니고 학생들이 학교에도 함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곳 사람들이 어지돈관개의 덕분으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잘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봉산벌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산천도 사람들도 달라졌다.

봉산벌만이 아닌 조국의 전변과 기적의 역사를 너무도 일상적으로 대하는 벽찬 시대이기에 하많은 격동적사실이 벌써 평범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이 벽찬 현실속에 살면서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지니지 못하고 어느덧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낼줄 아는 안목도 무디어져 나는 봉산벌의 위대한 전변을 보고 느끼면서도 작품으로 써야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사리원시내 한복판을 가리마처럼 흐르는 풍치좋은 어지돈운하와 경암호의 실버들이 휘날어진 아름다운 기슭을 거닐며 즐거운 명상에 잠기기도 하였고 푸른 물결 출렁이는 산속의 인공바다-서흥호를 찾아 그 절경에 취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관개수 흘러넘치는 물길을 따라 만풍의 황금나락 파

도쳐 설레이는 봉산벌을 걸으면서 이고장 농민들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생각에 잠겨들기도 하였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인 어지돈관개에 대하여 작품을 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시대정신의 첨단을 걸으면서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발자취를 글로 남겨야 할 작가의 의무를 두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학습하고 그속에 담겨진 높고 깊은 뜻이 더욱 새롭게 깨달아졌을 때 나의 눈에는 서흥호도 사리원의 운하도 봉산벌의 물길도 새롭게 보이였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창작적충동이 세차게 물결치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보다먼저 조국의 지도우에 두번째로 태어난 인공바다(첫번째는 연풍호) 서흥호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사적들을 연구하는데로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나는 어지돈관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하여 바치신 수령님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 봉산벌 농민들과 관개건설자들에게 베풀어주신 한없이 자애롭고 위대한 아버지사랑에 대하여 더욱 폭넓게 그리고 더욱 깊이 알게 되였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나를 흥분시킨것은 전쟁이 포화가 멎은지 여섯달밖에 안되는 1954년 2월에 있는 서흥호언제자리를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데는 깊은 사연이 있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봉산벌농민들의 물고생을 깊이 헤아리시고 어지돈관개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된 그해 가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분여받은 땅에서 거둔 첫 낱알을 선물로 가지고 평양에 올라온 봉산벌농민들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시며 이제는 농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 물때문에 겪어온 불행과 고통에서도 하루빨리 해방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나라의 형편이 좀 꺾이면 인차 서흥강물을 막아 언제를 쌓고 어지돈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리자고 하시였다. 그러신 수령님께서서는 1949년에 벌써 어지돈관개공사에 정지를 조사측량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로 말미암아 중단되고말았다.

은 나라가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였던 그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봉산벌사람들의 물고생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전선길에 오르시여 봉산벌을 지나실 때마다 어려운 전쟁에 물고생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는 봉산벌사람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물에 대한 그들의 숙망을 풀어주시지 못한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수원들에게 나는 여기를 지날 때마다 큰 빗을 진 사람같이 마음이 무거워지오.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 빗부터 먼저 갇아주어야 하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끝나자 전후에 진행할 중요관개공사의 순위를 정하시고 그 기술과제를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농업생책임일군들에게 주시였다. 그런데 농업성의 일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지돈관개공사를 2차공사대상으로 정하고 뒤로 미루어놓았다. 그들은 전쟁직후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내걸면서 어지돈관개공사는 관개면적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투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효과성이 적은데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 때 이 공사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것이였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침일찍 평양을 떠나시여 물이 발라날짐승들도 깃을 내리지 않는다는 황주진등벌과 적들의 폭격에 형체조차 찾아보기 힘든 봉산벌 백성보를 거쳐 서흥강의 상류인 청계골막바지에까지 이르시였다.

깊은 눈속에 발목을 묻으시며 수리산의 가파로운 비탈길을 뚫아오르시여 서당바위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물때문에 겪는 봉산벌농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생각하기전에 경제적타산부터 앞세우면서 관개면적의 예비를 더 찾아내기 위하여 아글타

글 애쓰지 않는 농업성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준절히 깨우쳐주시고 몸소 수많은 관개면적예비들을 찾아주시였을뿐만아니라 어지돈언제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그러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현재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어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말씀을 접하였을 때 저절로 승엄한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 말씀속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나의 머리속에는 해방전 봉산벌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정경들이 되살아났다.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옆집에 다니는데도 합지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홍수가 나면 구들에 차오르는 물을 피하여 지붕우에 올라가 우산을 받고 풍로에 끼니를 끓여먹고 그러다가 한밤중 집이 무너지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봉산벌사람들, 논판의 고지랑물을 먹고 토질병에 걸려 병신이 되거나 한생을 병고속에 시달리다가 한많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 무릎을 치는 물속에서 갈대를 쫓아가며 논갈이와 모내기할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들, 왕가물이 들 때면 백성보의 물을 두고동척(일제의 《동양척식회사》)놈들과 물싸움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러한 봉산벌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에 찬 지난날이 머리에 되살아왔을 때 나에게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봉산벌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속에 담겨져있는 절박성과 심오한 뜻이 더욱 깊이 느껴졌다.

인민들에게 참다운 생활과 더욱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서 소설의 종자를 받아안은 나의 가슴은 새로운 창작적흥분으로 세차게 들먹이였다.

사실 그때는 나라형편이 가장 어려운 때였다. 한 줌의 세멘트, 한조박의 강재가 천금같이 귀중한 간고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지돈관개공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세멘트가 더 필요하다면 세멘트를 주시고 강재가 더 필요하다면 강재를 주시고 지어는 나라에 몇대 밖에 없던 귀중한 찰크레인까지 보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공사에 참가한 관개로동자들과 농민들에게 베푸신 뜨거운 은정은 또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수령님께서 친어버이사랑으로 그들의 생활의 구축구석을 일일이 보살펴주시었다.

내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골에서 일하니 문화생활을 못한다고 걱정하시며 유선방송시설과 영사기와 악기를 보내주시고 겨울에도 밖에서 일하니 춥겠다고 걱정하시며 3천명도 넘는 관개로동자들과 농민청년돌격대원들에게 솜옷과 겨울모자, 겨울신을 보내주신 아버이수령님!

공사과정에는 중증침침 앞을 막아서는 난관도 많았고 애로도 많았다. 그러나 아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 살며 일하는 관개건설자들에게는 두려운것이 없었다.

그들속에는 전선에서 용감히 싸운 제대군인들도 있었고 과학연구기관에서 온 과학자, 기술자들도 있었으며 어제날의 상공업자들과 농촌돌격대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속에는 오직 하나의 념원이 불타고있었으니 그것은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하여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충성의 불길이었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대렬안에 기여든 계급직원들의 파괴압해책동을 짓부시었으며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개인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쓸어버리면서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갔다.

이리하여 마침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떠이고 어지돈언제가 솟아오르고 생명수 출렁이는 인공바다서홍호가 세상에 태어났다. 어지돈물이 처음으로 봉산벌에 흘러들던 그날 정순갑로인은 감격의 눈물속에 멀리 아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쪽하늘을 우러러 큰 절을 울리며 목메인 소리로 뇌이는것이 다.

《아버이수령님, 봉산벌에 어지돈물이 왔습니 다....

하늘도 임금도 주지 못한 생명수를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고맙습니다.》

그렇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물때문에 무서운 불행과 고통 속에 살던 봉산벌사람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어지돈의 생명수는 오직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로고에 의해서만 마련될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 이룩된 위대한 력사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영원히 빛날 사랑의 이야기, 창조의 대서사시를 더듬어 작품을 쓰는 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며 성스러운 과업이기도 하다. 붓끝을 뭉고 모아 백편의 작품을 쓴들 끝이 없을 이야기...

나는 다만 이 감동적인 력사적사실을 얼마만큼이라도 장편소설 《생명수》에 옮겨 우리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개의 나라》로 만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하고 그 한가지 념원에 불타면서 미숙하나마 붓을 달리였을뿐이다.

장편소설을 창작하는 기간은 또한 나 자신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가장 뜨겁게 체험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창작가가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틀어쥐고나가야 할 소설의 종자를 주시였을뿐만아니라 아무 근심걱정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봉산벌의 생명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덕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듯이 장편소설 《생명수》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은정깊은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 은정, 그 사랑이 고마울수록 나는 변변치 못한 작품을 내놓은데 대한 자책감을 금할수 없다. 나는 장편소설 《생명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의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도 그려내지 못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그리기에는 나의 붓은 너무나 무디고 충성심도 부족하였다.

나는 지금 새 작품 창작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이런 자책감에 모대기지 않도록 충성의 열도를 더욱 높이고 나의 붓을 더욱 예리하게 베틀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리라 굳게 결의하고있다.

충성의 한길로 불러주는 생활의 교과서

날이 갈수록 독자들이 많아지는 장편소설 《생명수》는 우리모두를 충성의 한길로 불러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장편소설 《생명수》를 읽고난 우리들은 작품의 주인공처럼 어버이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안고 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의 불길을 높이 고있다.

독자들은 문학작품에서 자기를 찾아보는 때가 제일 기쁘다.

그런데 장편소설 《생명수》는 바로 우리 관개건설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우리 관개건설자들속에서 깊은 사랑을 받으며 널리 읽히고있다.

나는 장편소설 《생명수》를 읽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수리화방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받아안았다.

지난날 물고통을 받으며 눈물겹게 살아온 봉산별인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인 물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위에 찬란한 공산주의농촌마을을 가꾸어가시기 위하여 휴식과 안정을 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에 목이 메여움을 금할수 없다.

공사현장을 몸소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굴안에까지 들어가시였다.

《수령님, 이것은 저희들뿐만아니라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전체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굴안에만은 못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앞길을 막아선 노동자들과 농촌돌격대원들이 목소리를 합쳐 말씀드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동무들, 일없습니다. 동무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굴인데 내라고 왜 못들어가겠습니까. 동무들이 말한것처럼 위험한곳이기때문에 더구나 들어가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그냥 돌아가서는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들어가봅시다.》하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을 한없이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자신께서는 침식과 휴식을 잊으시고 엄동설한에 사나운 눈길을 걸으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뜨거운 사랑만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은혜로운 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겨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주인공 박대성과 봉산별농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는 사람들을 위훈으로 불러준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어지돈공사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장의 식모로 가는 이야기며 돌격대원으로 탄원해나선 봉숙이가 녀성의 몸이지만 제일 어렵고 힘든 추도공사를 맡아나서는 이야기며 80고령인 정순갑로인이 병환으로 자기가 직접 공사를 돕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 금할길 없어 손녀를 돌격대로 보내는 이야기들은 우리 건설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흔들어준다.

나는 소설에 흘러넘치는 충성의 열정을 그대로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칠것을 결의한다.

**항해관개건설 기계화사업소
리기형**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높이 받들고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우자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쌓아올린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79년을 맞이한다.

새로운 보람찬 투쟁으로 빛날 영광의 새해를 맞은 온 나라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새해 첫아침에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자랑스런 성과와 승리를 총화하시고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보람찬 전투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년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대축전으로 장식한 지난해의 력사적승리에 대한 자랑스런 총화이며 제2차7개년계획의 두번째 해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강력적과업을 받들고 제2차7개년계획의 두번째해에도 충성의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워나갈 불같은 결의와 승리의 신심에 차넘치고 있다.

× ×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찬 격동적인 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1978년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1978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자랑스런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인 정치행사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강화되었다. 지난해에 당의 편지를 받들고 전체 인

민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충성의 대진군운동속에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 만년대계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수폴처럼 일떠서게 되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일어났다.

국제친선전람관의 개관,
평양-원산 사이의 고속도로도 개통,
평양지하철도 제3계단 준공,
새로 일떠선 평양시 하신거리와 경흥거리,
봉화화학공장이 제1계단 공사를 끝내고 조업개시,
백두산청년선(길주-해산)철도전기화의 완성.
.....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사변들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련이어 창조되었다.

실로 지난해의 모든 나날들이 이렇게 값높게 흘러갔다. 기적이 솟아나고 솟아나서는 어느덧 평범한것으로 되는 우리 나라.

하기에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공화국창건 30돐을 이처럼 높은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에 넘쳐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혁명강령인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라는 력사적보고를 하신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평양시 100만 근로자들의 장엄한 대시위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흥분과 격동으로 가슴설레임을 금할수가 없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의 자랑스런 력사를 주체예술의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황홀하게 보여준 대집단체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던가.

공화국창건 30돐 경축행사들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족의 대축전으로 진행되었을뿐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수령도 많지만 어느 나라 국경질이 지난해 공화국창건 30돐행사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세계 5대륙에서 온 100여

개의 고의급대표들의 열광적인 참가밑에 것처럼 성대한 국제축전으로 진행되어본적이 있었던가.

은 나라가 민족적대축전의 분위기로 들끓고 충성의 열정, 애국의 열정이 끓어넘치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장엄하게 진행된 공화국창건 30돐행사들에 참가한 우리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더욱 가슴벅차게 느낄수 있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생산과 운수부문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전례없이 심각한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고 많은 나라들에서 연료, 동력 위기를 비롯한 파국적인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가져다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 정초부터 당중앙 위원회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농업 및 교육부문 일군들의 전국적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을 마련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투쟁방침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하시기 위하여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과 농촌을 찾으시어 돌격전에 나선 우리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었으며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잠도, 휴식도 미루시고 오로지 나라의 룡성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쉬임없는 헌신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로고로 하여,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세심히 돌보아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하여 지난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처럼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될수 있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이 빛나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에 나라일에 이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혁명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세심하신 지도와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 우리 문학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많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전진이 있었습니다. 교육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아니라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교육, 과학연구 사업에서도 많은 전진이 있었으며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한 혁명적문예전통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킨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이 창조된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지난해에 이 혁명연극이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것은 주체적연극혁명의 승리를 온 누리에 선포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오늘의 연극무대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연극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는 새형의 혁명연극이 완성되게 되었으며 연극발전에서는 새로운 시원이 열려지게 되었다.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로 하여 우리 나라는 혁명영화와 혁명가극에서뿐만아니라 혁명연극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본보기로 하여 새로운 높은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지난해에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혁명적문예전통의 불패의 생활력을 힘차게 시위하는 크나큰 경사로 되었다.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소년들에게 돌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것도 혁명적문예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로 된다.

지난해에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예분야에서 혁명적문예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수행되었을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가장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기 위한 창조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총서에 모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에서 지난해처럼 크나큰 성과를 거둔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난해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새로운 리정표로 되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문학작품에 모시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를 최상의 높이에서 해결한 본보기로 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에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영예롭고 무거운 사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빛나게 형상한 력사문헌적인 혁명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와 장편소설 《누리에 불는 불》이 나온것은 자나깨나 항상 어버이수령님을 흠모하고 그이를 언제나 가까이 뵈옵고싶어하며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따라배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모시는 숭고한 사업이 소설문학과 영화예술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앞에서, 시대와 력사 앞에서 지닌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문학에서는 특히 소설문학이 자기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확고하게 올라섰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지난해 소설문학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장편소설 《새봄》(김규업)과 《생명수》(변희근)가 창작되어 나온것이다.

토지개혁, 수리화 등 중요한 력사적사변들을 줄거리로 하면서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운명발전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는 이 작품들은 력사적사건의 정치적의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소생하는 새봄을 찾아주시고 사랑의 생명수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 되었다. 작품들은 또한 당의 계급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심오하게 전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지난해에는 이밖에도 《영원한 미소》(김수범), 《금천강》(김영근), 《우리 마을》(백철수), 《강물은 한곳으로》(주유훈), 《별무리》(림병순), 《맹세》(최재석), 《갈매기는 먼바다로》(한경)를 비롯한 장중편소설들이 전례없이 많이 출판되어 사람들을 무한히 기쁘고 흥성거리게 하였다.

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민족의 대경사로 맞이하고있는 때에 장중편소설들이 이와 같이 많이 쏟아져나온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는 경사로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문화생활에서 소설문학작품의 역할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어디에 가나 소설책을 들고다니며 보는것이 사람들의 습성으로 되게 되었다.

지난해에 소설문학에서 거둔 성과는 장중편소설 창작에서뿐만아니라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한 아담한 형식의 단편소설창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난해에 시문학과 아동문학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서사시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여》, 《인민의 나라 주체의 조국이여》와 가사 《백두산 명승가》(안호근), 《충성의 일편단심》(최준경), 《탄부의 영예 빛내여가리》(림호권), 《제대군인 그 총각 영웅탄부 되였네》(안호근) 서정시들인 《당에 드리는 노래》(김상오), 《어머니당의 품이여》(정렬)들은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우리 시문학이 거둔 성과작들이며 독자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생생하게 남아있을 작품들이다.

《만경봉의 무지개》(림금단)의 6편의 동요, 중편소설 《초순이》(박현), 《특수전선》(김동섭), 동화 《눈과 귀》(배풍), 단편소설 《영웅의 아들》(박춘호) 등도 지난해 아동문학이 거둔 성과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그가운데서도 요즘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중편소설 《초순이》는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와 인민의 나라 공화국북반부의 고마운 사회제도에서 맺어지는 대조적인 인간관계들을 생동하게 부각하고 어린 주인공의 우여곡절에 찬 체험과 성장과정을 섬세하고 흥미있게 묘사함으로써 후대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의 대중화방침을 받들고 지난해에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군중문학창작사업도 활발하게 벌여졌으며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우리 문학은 지난해에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놓았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해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설 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립장과 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모신 작품창작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이 형상하는것은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첫째가는 원칙적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당성이 평가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보여주는 대작창작에서뿐만 아니라 아담한 형식의 각종 작품창작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실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혁명전통주체의 작품과 조국해방전쟁주체의 작품,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주체의 작품,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반영한 전투적인 작품을 더 적극적으로 창작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건설분야에서 올해의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도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다.

현시기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타격방향을 맡아나선 영웅적탄부들의 생활과 광부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간공업부문과 대외무역,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산업부문과 교통운수부문 로동계급의 벽찬 투쟁과 생활을 적극 반영하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투쟁도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주체의 작품은 마땅히 이 3대방침의 요구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고 성격을 형상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만이 우리 시대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전형적성격으로 될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을 기술혁명의 측면에서만 보여주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상, 문화 혁명과의 통일적련관속에서 형상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주제가 단순한 기술혁신의 주제에 떨어지지 않고 3대혁명의 주제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와 혁명화의 주제로 되게 해야 하며 주체의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긴장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새 전망계획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총진군운동의 북동이 되고 나팔이 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벽찬 현실속에서 3대혁명의 기수들과 같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자신을 단련하는 한편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의 근본원칙이며 주체문학의 화원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더욱 풍부하게,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문학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적형상에 의하여 안반침되어야 생명력을 가진다. 사상성만 주장하면서 작품을 직선적으로 도해하거나 딱딱하게 만드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요구와 인연이 없다.

올해에 우리 문학은 소설, 시, 아동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사상성에 상응하게 예술적형상수단을 확고히 따라세워야 한다.

소설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맞게 먼저 소설의 질, 예술적형상을 훨씬 높여야 한다.

모든 소설가들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충성심을 키워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해명하는데 필봉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모든 소설작품이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도를 보장하면서도 형상성을 높여야 한다.

소설의 형상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묘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생활을 세부화하고 그것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분석적으로 묘사하지 않고서는 소설의 예술적형상성을 보장할수 없다. 현대적미감에 맞게 속도감을 보장하면서 생활묘사, 세부묘사의 질을 훨씬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소설가들이 뜻깊고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정확히 찾아 감명깊게 그려내기에 힘써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소설창작에서 예술적흥미를 옹계 보장하는것이 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아무리 사상적내용이 풍부한 작품이라도 그것을 독자들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문학작품을 독자들에게 강요할수야 없지 않는가. 문학작품이란 어디까지나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것을 끝낼 때까지 독자들이 스스로 이끌려들어갈수 있도록 흥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창작에서 생산이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하게 꾸리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구성조직을 면밀히 할줄 알아야 하며 흥미를 둔구게 할줄 알아야 한다.

시대정신의 기수인 시문학의 길을 훨씬 높이는것은 올해에 우리 문학앞에 나선 특별히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의 시들은 시대정신을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고싶게, 외우기 쉽게 되어야 하며 한번 읽으면 눈물이 나오도록 감동을 주게 되어야 한다. 서정이 빈곤하고 정치사상성이 로출되며 개념적인 틀이 앙상하게 드러나고 시인의 개성이 없는 산문화된 시는 우리 문학에 잠시도 발붙일 자리가 없다. 서정은 시의 생명이며 기본징표인 만큼 시에 서정이 없거나 빈곤하다는것은 서정시로 되지 못했다는것을 말해준다. 훌륭한 서정시는 언제나 시대에 대한 시인의 철학적인 깊이는 체험에서 북받쳐나오는 뜨겁고 풍부한 서정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문제는 주어진 소재, 시적대상에 대하여 시인이 얼마나 서정적으로 깊이 파악하

고 뜨겁게 체험하는가에 달려있다. 시적대상을 서정적으로 충분히 소화하지도 못하고 생경한 구호를 그대로 웨쳐대기때문에 서정이 넘쳐흐르지 못하는 딱딱한 류형적인 시가 나오게 된다. 시인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얼굴과 목소리를 뚜렷이 드러낼 때 시문학의 화원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화랑들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백열전을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해서는 가사문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 자기 직업과 일터에 대한 사랑,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시적으로 노래한 깊이있고 품위있는 가사를 많이 써야 하며 그 모든 가사들이 다 성격이 뚜렷하고 양상이 독특하게 되어야 할것이다.

올해에 위대한 교육체제를 받들고 아동문학작품도 더 많이 창작해야 하며 그 질도 더 높여야 한다.

아동문학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정확히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지덕체교육을 주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하며 그가운데서도 특히 지적교육을 주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폭넓고 깊게 해주는데 기본을 두는 인식교양적가치가 풍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아동문학작품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생동하게, 흥미있게 창조되어야 하며 예술적형상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

아이에 맞게 창작한다고 하여 상식적이고 유치한 내용으로 작품을 꾸려서는 안된다. 문학에서 아이적인것과 유치한것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아동작품은 어린이들뿐아니라 어른들도 보고 사상미학적교양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 문학앞에 나선 과업은 무겁고 보람차다.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정책을 더 전면적으로 체득하고 창작활동에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작가들은 언제나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적극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해주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작품을 속도전의 방법으로 훌륭히 창작하여 주체문학의 자랑찬 화원을 더욱 풍부하고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자!

흠냄새 나는 주인공을!

고병삼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에는-》 하고 독자들과 약속할 때마다 더구나 그렇습니다. 독자들의 기대에 만족될만한 책을 쓰겠다고 약속하는것처럼 힘들고 책임적인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올해에는 저의 결의가 빈말공부가 아니라 책임적인 실천으로 되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우선 장편소설 《대지는 말이 없어도》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거짓을 모르는것이 땅인줄 압니다. 때문에 흠냄새 나는 주인공을 창

조한다는것은 거짓을 모르는 인간성격, 당앞에 진실만을 말하는 인간을 그려내는것을 의미할것입니다. 해방전에는 길가에서 덩구는 돌맹이처럼 짓밟혀온 인간이 어떻게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사회주의농촌의 계급진지에 굳건히 서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는 대들보로, 그리고 무쇠보습으로 되어 땅을 가꾸고 주체농법의 씨앗을 뿌려나가는가. 그의 성격의 미와 성격의 본질속에 심오한 인간문제가 담긴 문학적인 종자가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적·지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인간성격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떼여놓고서는 생각할수조차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민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여 자주적인 인간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그 축복속에 사랑의 대지를 가꾸어 곳곳이 나가는 주인공을 그리려는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모색하며 고심하던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하는데 모를 박고 이 한해를 탐구와 사색, 적극적인 창작속에서 보내려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집니다.

영원히 죽음을 리승한 인간들

엄단웅

한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지난해는 나에게서 잊을수 없는 참으로 감회깊은 해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첫진군이 시작되었고 공화국 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성과로써 빛내인 해라는데서만 아니다.

지난해 나는 채취공업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을 취급한 작품으로 될 장편소설 《마천령》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았다.

나는 지금이 소설의 주인공들인 3대혁명의 붉은 기수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내가 현실에 나가 같이 생활하고 사귀면서 알게 된 그 인물들은 영웅적위훈으로 명성을 떨쳤거나 특출한 공로를 세운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평범한 보통 근로자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난날의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짙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으며 혁명의 요구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실로 나의 소설의 주인공의 원형들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석같이 무장하고 혁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사람들로서 그 철저한 신념과 의지에서, 그로부터 출발하는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자각과 책임감에서 모든것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서 어제날의 인간들과 비할바 없이 높이 솟아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혁명을 위한 길에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증에 질려 죽음앞에서는 모든것이 무력하고 보잘것 없다고 하면서 방탕과 색정을 고취하고 패륜과 악덕의 세계에서 헤매일 때 이 땅우에는 죽음을 타승하고 영원히 죽음을 모르는 새 인간들이 탄생하고 있다....

주체형의 새 인간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오래인 탐구와 모색속에 특히 지난해의 현실체험과정에 생동하게 보고 느낀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을 빛나게 형상하여 독자들앞에 보이는 것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두번째로 맞이하는 이 해를 뜻깊게 보낼것을 굳게 결의한다.

높은 정신적자세와 깊은 정서적토양

정문향

높은 정신적자세와 깊은 정서적토양을 못가진 시인의 생활과 창작이란 척박한 땅에 겨우 뿌리내리고 자라난 곡식과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심정과 같은 것이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 이러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나는 1979년의 새해에 들어선다.

위대한 전변으로 충만된 이 력사적시대는 시문학앞에 얼마나 무겁고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있는가.

나는 새삼스럽게 이 물음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 시문학앞에 열려진 무한대한 시의 세계를 다시금 내다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도 반드시 천리마를 타고 위대한 작품을 창조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의 기수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또한 발전하는 현실에 우리의 시문학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서정의 빈곤, 벗어나지 못한 산문성과 개성을 못가진 류사성 등 우리의 작품들에는 아직도 이러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시대를 통감하는 정신과 생활의 진실을 체질화된 사상감정으로 깊이 느끼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시인의 높은 정신적자세를 가지고 위대한 주체시대의 새로운 혁명적시문학을 건설하는 시인답게 살며 풍만한 정서로 생활의 진실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것을 결심한다. 다양한 생활과 다양한 형식, 짧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 그러한 시를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이 해에 창작으로 대답해야 할 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 물음앞에서 나의 창작생활을 총화하며 주체적문예이론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기의 시론적기초를 쌓아가려고 한다.

력사의 해를 맞는 영광의 이 아침에 나는 무한대한 시의 세계를 내다보며 혁명적시대에 사는 우리 시인들에겐 새로운 비약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출발선에 들어선다.

혁명적서정과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노래

홍기품

가사창작에 첫걸음을 뗀 작가로서 새해의 창작 결의를 다지는 연단에 서자니 독자들앞에 이렇다할 노래 한편 써놓지 못한 자신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인 서정과 전투적인 기백이 흘러넘치는 노래들을 창작하여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킬 불타는 열망과 창작적흥분으로 지금 저의 가슴은 뿔뿔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격동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를 쓰자면 무엇보다도 가사에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해 창작된 가요중에서 인민들로부터 그토록 사랑을 받는 《충성의 일편단심》, 《인민은 한마음》,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가자》와 같은 노래들이 좋은 실례로 됩니다.

나는 창작실을 사회주의대건설 전투마당으로 옮기고 거창하고 줄기찬 생활속에서 한줄한줄의 가사를 시적형상으로 다듬고 시대의 맥박이 흐르도록 창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독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형상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신종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책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주며 문화적 소양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하나입니다. 특히 혁명적인 책은 청년들의 혁명적의욕을 북돋아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에 새긴 저는 올해에 미제침략자들의 일시적인 강점지역에서 용감하게 싸운 바다가 소년단원들의 투쟁이야기를 담은 중편소설을 세상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후퇴시기에 나 어린 소년단원들은 도처에서 소년근위대를 조직하고 미제침략자들과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아동단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던것처럼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위하여 불굴의 투지로 원수와 싸워이김으로써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수호했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혁명의욕을 북돋아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주어야 할 소설을 어린 독자들에게 주는 작품이라고 해서 흥미만을 추구하면서 사건본위로 나가거나 주인공들의 생활감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주인공의 정신세계와 지향, 생활감정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성격을 생동하게 부각하여 문학적형상성을 더욱 높이기예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두산정우에

박세옥

아침이면
뜨는 해를 먼저 맞고
저녁이면
솟는 달을 먼저 반기는
조선의 산
백두산

수천년
해빛을 이고
수만년
별빛을 이고
하늘에 높이 솟은 산정우에
경건한 마음을 안고 오르니

여기
이끼덮인 바위우에
설레는 천지의 기슭에
깊으신 생각의 자욱을 옮기시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눈에 어려
뜨거워지는 마음이어

그날
수령님 모시였던
그 감격을 못잊어
천리수해는 저리도 설레고
천가락 만가락
폭포소리 울리는 골짜기엔
점점이 단풍이 붉어라

생각이 깊으시여
생각이 깊으시여
수령님 바라보시던
밀림의 저 한끝엔
달빛이 비낀 띄창을 여시고
조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시던
백두의 밀영

그너머 아득히 멀리엔
갈숲에 묻힌 오솔길 따라
총을 쥐시고 떠나시던
못잊을 소사하

구름바다우에
점점이 솟은 산발은
두만강 푸른 물에
군복자락 날리시며 오르시던
왕재산의 참나무숲이 아닌가

아, 백두산 백두산
이 나라 조종의 산아
눈보라 몰아치는
조선의 밤은 얼마나 길었던가
그 밤을 여기서 다 지새우시며
이 땅의 려명을 펼치신곳

이 산에 오르실 때에는
얼음길을 오르시고
이 산을 내리실 때에는
봄을 안고 내리신 수령님

해가 가고
세월이 가도
언제나 잊지 못하시던 그 마음
동해천리 서해천리
굴뚝이 밀림처럼 일어서
현지지도의 그 길을 이어가실 때에도
눈내리는 그 길이 험하다고 아뢰이면
백두산 눈길처럼 험하겠는가
말씀하시고

굽이굽이 험한 령 넘어
이랑이랑
조국의 마지막 밭이랑을 밟으실 때에도
맞으시는 찬비를 걱정하면
백두산의 가을비보다 차겠는가
말씀하시던 수령님

항일의 그날에
첫자욱을 찍으시던
이 산정우에서
조국산천을
감회깊이 굽어보실 때

날리시던 그 옷자락에
천리구름발은 흐르고
멀리 보내시는 시선을 따라
어깨를 들먹이며
조국의 억만산발들은 솟아오르고
환하신 그 미소를 담고
이 나라 천만의 강줄기들이
소리치며 흘러내리지 않았던가

이끼덮힌 바위를
조약돌처럼 밟으시며

줄기줄기 뻗어내린
산발우에
한손을 얹으시고
언제나 못잊으시는
남해의 파도소리를 들으시고

자주의 노래
투쟁의 거센 흐름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지구의 한끝까지 굽어보시고

혁명에 나서시던 그날에 품으신
크나큰 뜻을
이 땅우에 다 펼쳐주시며
걸으신 길 천만리에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시건만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에 있고
이곳에서 싸우시던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해를 맞고
언제나 해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여 옮기시던
거룩하신 자욱이여

아, 혁명의 성산 백두산
수령님 모시여
혁명의 첫 뿌리가 내린
줄기줄기 산발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위엄으로 솟아
주체의 조국을 노래하며
천년만년 길이 솟아있으리라!

공화국 기치

김상오

오랜 겨레의 갈망을 안고
찬란히 솟아오른 기폭,
높은 지향을 싣고
끝없이 나래치는
영원한 영광
공화국기발이여!

너는 반만년
거칠은 력사가 흘러간 땅우에
처음 열린 푸른 하늘
너는 검은 바람 오래 불어간 하늘에
처음 떠오른 빛나는 별

이국광야의
만리 흰 눈판에 스민
붉은 피자욱에 그려졌어라
투사들의 심장속
조국의 그리움과
불타는 열망속에 자라났어라

아, 우리 수령님
그 간고한 혁명의 길 걸으셨음은
기치여,
오로지 너때문에 아니였던가!

너의 그 신성한 기폭으로
우리 겨레의 수난의 력사를 가셔주시고
그 찬연한 별빛으로
이 땅의 새 운명을 열어주시었어라

용감한 우리 전사들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우리러 수령님께 맹세다지고
이 땅의 고지우에 끝까지 지켜선것은
너였다

오만한 성조기를

해저무는 꼴짜기에 구겨박고
재무지속에 마치를 쥐고 서서
눈부시게 우러르던 그날의 기발이여!

언제 어디서나 감동 없이는
복받치는 감동의 눈물 없이는
바라볼수 없어라
만풍년 뒤설레는 대지우에
창조로 불타는 철의 숲우에
민족존엄을 안고 나래치는
공화국의 기치여!

네가 휘날리는 땅우에
우리는 우리자신과
나라의 주인이거니
네가 의미하는 모든것-
조국,
근로하는 인민의 주권

자유와 행복
조국의 무궁한 번영-
이 모든것 목숨으로 지키리라
영원히 너를 받들어나가리라

오, 수령님의 이끄심 따라
너와 함께 달려온 30년!
찬란한 새 력사의 노을속에
온 세계가 우리러 바라보는
주체조선의 불멸의 기치여

진정
너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영광
우리의 미래여라!

내 나라는 살기도 좋아라

김석주

언제 봐도 맑은 하늘
사철 살기 좋은 땅
내 다름아닌 이 땅에 태어났음을 자랑한다

백두의 푸른정기 흘러내려
강산은 수려하고
정다운 만경대 고향이 있어
아름다운 주체의 나라

먼 산기슭 파원에선
9 월의 햇빛 무르익어가고
풍요한 들에선
구슬같은 낱알들이 여물어간다

그 모두 나의것, 나를 위한것
예가 내가 사는 땅

우리 수령님 한평생 가꾸어주시는 나라
나서 마시며 자란
여기 샘물은 달디달고
바람조차 향기롭네

산굽이를 돌아가는 긴 렬차의 기적소리
강제인가 기제인가 비단인가
늘쌍 들어도 좋네, 저 출강종소리
먼 바다 출항의 배고동소리

새 학교에 마지막 창문이 달리고
집집마다 친절히 돌아본
흰 위생복의 녀의사 령길을 넘어가네

마을에 경사가 그칠줄 몰라
정다운 이웃들이 다 축복해주고
친근하고 살뜰한 마음을 나누며
수령님 품속에 화목한 나라

그 모두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예가 내가 사는 땅

날마다 좋은 일들이 기다리네
눈부신 햇빛은 밝게 웃으라고
활짝 열린 길들은 희망 끝없으라고...

밝은 전망들이 펼쳐지고
새라새로운 결정들이 채택된다
인간의 참다운 삶과 권리
법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하여 나는 그 모든것
손을 들어 열렬히 받들어간다
성실한 로동의 땀을 흘리며
이 한몸 이 한마음 다 바쳐

그 모두 나의 영예, 나의 미래
예가 내가 사는 땅

위대한 수령님 여기 계시여
동경의 나라
희망의 나라

이 세상 행복의 락원이
여기에 솟아
한번 와보고싶고
오면 가고싶지 않은곳

그리하여 푸른 공로로
천선의 사절들이 날아오고
먼 나라 배들이
이 땅의 기슭에 닻을 내린다

얼마나 좋은가
다름아닌 이 땅에 내 태어났음이
이 땅에서 살며 일하며 삶을 누려감이

백번 태어나 여기 살고싶네
천년을 만년을 가꾸어가고싶네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이 땅에 내가 산다

강철지구의 인사

계 훈

이고장엔 인사법도 좋구나
어디 가건 그 누구와 만나건
처음 건넌 인사는
쇠물이야기, 쇠물에 대한 이야기

이른새벽 구내길에 들어설 때면
빙그레 반겨주는 축로공아바이
어깨를 툭 치며 건넌 인사
-오늘 또 세가마 쇠물을 끓이려나?

저녁노을 붉게 비낀 정문가에
기쁨 젖어 활개쳐나설 때면
보위대원처녀의 쟁쟁한 목소리
-몇가마예요?

달음쳐 안기는 아이들의 인사도
저녁상을 안고 들어서는
내 안해의 순박한 첫말에도
쇠물이야기, 쇠물에 대한 이야기

쇠물빛이 좋다고
불수록 힘이 난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
그날의 그 영상 언제나 못잊어

우리네 타는 열정 여기에 끓고
우리네 한마음 여기에 스며있어
누구나 맘속의 진정을 비껴보는
아, 쇠물!

쇠물, 이 쇠물속에
온갖 기쁨 온갖 걱정
다 함께 나눠가는 우리네 고장
천만 가슴속의 정도 강철로 땀어지거니

그래서 가장 살뜰한 인사도
가장 뜨거운 인사도 쇠물의 인사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쇠물의 인사

내 고향 강철지구 찾아오는 동무들이여
부디 우리에게 인사말 따로 하지 말고
쇠물을 두고 들어다오
우리는 쇠물이란 말 떠나 다른 인사 몰라라

즐기찬 흐름속에서

조대호

출장길에 돌아와 일보철을 들여다보던 엄대결은 량미간에 주름살을 모았다. 자기가 없는동안의 가을같이실적이 시원치 않았던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버쩍 잡아당기었다. 한손으로 수화기를 들며 돋보기를 벗어 들고 교환을 찾았다.

《수고하우. 내 농기계작업소 지배인이요. 거 신청리를 좀 찾아주우.》

교환이 신청리를 찾은 사이에 그는 서류장의 한 구석에서 보약병을 꺼내었다. 이즈음 그는 군인민약국에 새로 나온 보약에 맛을 들었다. 신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보약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그는 이 몇해어간에 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리 바빠도 약먹는 시간은 어기지 않았고 출장준비를 하면서도 보약병부터 가방에 넣곤하였다.

콩알만큼씩한 알약 몇개를 꺼내여 씹던 그는 오만상을 지으며 물고뿌를 찾았다. 했으나 신청리관리위원회가 나오는바람에 쓴약을 물도 없이 꿀꺽 삼키는수밖에 없었다.

《내 작업소 지배인이우다. 부기사장동무를 좀 바꿔주우. 영? 부기사장동무요? 허허... 그새 편안했소? 한데 동무네 거 왜 그래? 가을같이실적말이요. 아 글썸 26%가 뭔가말이요. 또 거 100정보작업반 조직문제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요? 하여튼 가을같이부터 하고 보지요. 총 령량을 집중하여 가을같이 버쩍 다그치오. 뭐 걸리게 없소? 이동수리차? 가만 그건 좀 알아보구 내보내주겠소. 그리구 또 뭐? 동옥동무가 뭐? 약혼한 처녀가... ..하하하... 싫어한다구? 어머니가? 하여튼 내 한번 나가겠소. 거 다시 말하지만 가을같이부터 빨리 끝내오... 자 수고하우.》

신청리와 전화를 끝낸 엄대결은 수화기를 든채 몇개 리에 가을같이를 냅다밀라고 독촉을 하고는 경영위원회 지령실과 농기계과에 그간의 집행정형과 출장갔다운 경과를 보고하고야 물고뿌에 손을 뻗었다.

속시원히 담배연기를 내뿜던 그는 책상우에 놓인 서류철속에 삐죽이 내민 편지를 꺼내여 펼쳤다. 아 들에게서 온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한지 몇해 안되는 아들이 한개 군의 농기계작업소 기사장으로 일하고있는것이 사뭇 대견하기만 했고 이제는 아들에

게 자기가 20여년간이나 해온 사업을 척 인계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군했다.

두툼한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가는 그의 너부죽한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어렸다.

《음 그래 첫딸을 낳았다! 허허 그러니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던말이군... 하긴 내가 이제는 지배인으로 있는지도 20년이 됐지!》

반백이 넘은 머리를 슬슬 쓸어넘기며 저혼자 소리내여 중얼거리던 엄대결은 벌떡 일어나 뒤집을 지고 한동안 방안을 서성거렸다.

한참후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경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찾았다. 엄대결은 이번 가을에 트랙포트를 더 받을 때는 선손을 써야 한대라도 더 받을수 있다는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당장 가을같이며 100정보작업반 조직문제도 결국은 트랙포트에 걸려있었다.

누군가 툭툭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예, 들어오시오.》

엄대결은 수화기를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3대혁명소조원 진섭이였다.

엄대결은 종이두루마리를 들고 들어온 진섭의 감식한 얼굴을 지켜보며 한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는 전화를 계속했다.

그의 앞의자에 앉아 방안을 휘둘러보던 진섭은 책상우에 미처 치우지 못한 약병을 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소조원동무, 이거 안됐시다. 출장만 좀 갔다오면 제기되는 문제들이 뭐이 그리로 많은지 그간 수고가 많았겠시다.》

전화를 하고난 엄대결은 이렇게 말하며 출장기간 수고가 많았겠다는 진섭의 인사에 만족한 웃음을 짓고 던지시 그의 기색을 살폈다.

늘 송곳이를 눈이 시리게 반짝이며 웃음을 담고 있던 진섭의 감식한 얼굴에는 심중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사람 좋게 웃으며 벗어지기 시작한 머리를 슬슬 쓸어넘기던 손이 굳어져버렸다.

진섭은 손에 든 종이두루마리를 만지작거리며 눈덕을 내리깔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할것 같아 저으기 긴장되였다.

엄대결은 자기도 모르게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지배인동지, 저 신정리 최동욱동무말입니다… 요즘 약혼한 처녀문제때문에 생각이 깊은것 같습니다.》

《예-에 나도 이제 금방 들었습니다. 허허… 저 뭐 그런걸 기지구 고민까지 하구 허허 참.》

저으기 긴장되었던 엄대결은 의자동반이에 몸을 기대며 사람좋은 미소를 지었다.

진섭은 놀라운 시선으로 엄대결의 너부죽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번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참후 그는 오금을 박듯 말했다.

《예, 한번 함께 나가봅시다.》

엄대결은 선선히 대답하며 또 무엇인가고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다.

한동안 망설이던 진섭은 들고왔던 종이두루마리를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지배인동지 엇그제 신정리에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온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것이 타산되고 계획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100정보관리를 위한 년간작업공정표였다.

엄대결은 그것을 힐끔 돌아보더니 딱한 표정을 지었다.

《아, 참 사람들들 전부에도 내 알아들을만큼 이야기했는데… 이걸 또 소조원동무에게까지 제기했구만… 소조원동무도 알다싶이 100정보작업반이야 우리 군에 세개가 있지 않니까. 물론 한개라도 더 늘구고 모두가 100정보작업반을 무어 1인당 10정보의 발을 관리해야지요. 한데 어디 우리에게 그럴만한 힘이 당장 있어야지요. 이불깃 봐가며 다리를 퍼했다고 내 원 참…》

진섭은 믿고 잡았던 나무가지가 푹 부러져나간듯 허전해져 어깨숨을 쉬었다. 그는 혈색좋은 엄대결의 너부죽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작업소에 왜 힘이 없겠습니까?》

《소조원동무도 알다싶이 100정보관리를 하자면 우선 트랙토르부터 적어도 다섯대는 넣어주어야 하지 않니까, 그래 내 이번 출장갔던길에 도기계화처에 들려 한 20대 더 달라고 제기하고 왔시다. 하여튼 래일이라도 신정리에 함께 나가보고 토론합시다.》

《지배인동지, 현재 군적으로 기계화반들에 서있는 트랙토르만해도 30대가 넘습니다. 열두대의 트랙토르는 벌써 보름째 수리직장에 서있습니다.》

진섭은 조용히 말하며 눈덕을 내려깔았다. 가슴 아픈 일이었다. 말끝마다 트랙토르가 걸렸다, 트랙

토르가 없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부속 한두개가 걸려 서있는 트랙토르는 왜 보지 못하는가?

《아-니 그게 아직 나가지 못했던말입니까, 허참, 그걸 아직 수리를 끝내지 못했다니… 내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엄대결은 책상위에 펼쳐놓았던 일보철이며 물건들을 주섬주섬 거두고 돈보기를 집어들며 혈기차게 일어섰다.

널찍한 수리직장에 들어서자 엄대결은 기술지도원부터 찾았다. 뜬어놓은 트랙토르들을 휘둘러보던 그는 문득 한 기대옆에서 운전수와 무엇인가 열심히 쓸고있는 기술지도원을 보고는 곧바로 그에게로 다가갔다.

《기술지도원동무, 게서 뭘하우? 응? 대치차로구만… 내 참, 아 동문 거 조직사업을 하고 수리에서 걸린 고리를 풀어주고 해야지 그렇게 이발 떨어진 대치차나 붙잡고 앉아있으면 어찌우? 내 출장가기 전에 뭐라고 했소?》

엄대결은 딱하다는듯 분해해놓은 트랙토르들을 가리켰다.

《저 사실 가공반과 공무반은 지배인동지의 지시대로 양수기와 줄짱생산에 총집중하고 짬이 없었습니다.》

기술지도원은 기름걸레로 손을 닦으며 진섭을 돌아보았다.

《아 그래도 트랙토르수리야 제때에 해야지 그래. 우리 작업소의 기본임무가 뭐요? 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우…》

그러며 돌아서던 엄대결은 줄칼을 들고 기술지도원의 뒤에 서있는 한 운전수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 》

신정리 기계화작업반의 그 최동욱이라는 운전수였다. 그는 기술지도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떨어져나간 대치차의 이발을 용접으로 붙이고 줄칼질을 하고있었다.

그것을 기웃해보던 엄대결은 기름 묻은 대치차를 발끝으로 건드려보다가 옆에 있는 장갑으로 싸쥐여 한번 뒤집어보고는 맛갓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건 두었다 후에 하구… 창고에 어서 가보우, 이번에 몇개 해결해왔으니 어서 새것을 타다 맞추고 나가우…》

《지배인동지, 이것도 조금만 더 손질하면 쓸수 있습니다. 》

최동욱은 자신없는 소리로 말하며 기술지도원의 눈치를 살폈다.

《알만하우, 물론 재생해써야지. 그러나 지금 당장 가을갈이가 걸렸는데 언제 그러고있겠소?》

《돌이숫돌에 조금만 더 갈면 됩니다.》

엄대결은 새 치차를 주겠다는것도 마다하는 동육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손을 짓고 돌아서버렸다.

《마음대로 하우.》

동육은 그 소리는 못들은듯 이발을 용접한 대치차를 들고 돌이숫돌을 찾아가고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진섭의 걸음은 무거웠다.

수리직장을 나서서도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지배인동지, 아무래도 기대별로 걸린것을 알아보고 풀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진섭은 서있는 트랙터들이 마음에 걸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예? 예...에 이제 소조원동무도 지내보면 알겠지만 500대나 되다보니 아무래도 저쯤이야 늘 서게 되지요. 나도 처음 15대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소조원동무처럼 안타까와했는데 이제는 별수가 없습니다. 500대의 트랙터를 다 뚫운다는게 그리쉬운일이겠시까. 이제 부속품을 해결해왔으니 가동률도 좀 올라가겠지요.》

엄대결은 이런 말을 남기고 창고쪽으로 가버렸다.

머리를 거연히 쳐들고 활개질을 해가며 걸어가는 그를 지켜보던 진섭은 무거운 생각에 잠겨 다시 수리직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두개의 부속이나 공무반원들의 일손이 채 미치지 못해 서있는 수리직장안의 트랙터들이 자꾸만 눈앞에 밟혀왔다.

그는 기술지도원을 다시 만나 이미 료해했던 걸린 부속명세를 확인하고 가공반과 공무반원들을 찾아갔다.

《동무들, 수리직장에 좀 가봅시다. 벌써 보름째나 열두대의 트랙터들이 동무들의 손을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볼트 몇개와 인양기의 련결부가 없어서 혹은 몇군데 용접을 못해서 당장 가을갈이를 해야 할 트랙터들이 서 있습니다...》

수첩을 펼쳐들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진섭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었다.

《...우리 로동계급이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만든지 트랙터들이 저렇게 서있는것을 아버지수령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정열에 넘쳐 반짝이던 진섭의 까만 눈에 피잉 물기가 어렸다.

돌이숫돌에 용접한 대치차를 갈던 최동육이 먼저 진섭의 앞으로 나섰다.

《자 우리모두 달라붙어 제격 한두개씩 깎아 수리를 끝냅시다.》

《합시다.》

이미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입었던 동무들까지 다시 작업복을 덧입으며 나섰다.

《동무들 고맙습니다.》

진섭은 그들을 한아름에 안을듯 팔을 벌리며 수리장쪽을 가리켰다.

그날밤 수리직장안은 들끓었다. 선반공들이 자기가 깎은 부속을 들고와 운전수들과 수리공들의 일손을 도왔고 공무반원들은 용접기를 아예 현장으로 끌고와 불꽃을 뿜기였다. 나이 지숙한 기술지도원도 최동육이도 부리나케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하하... 거 동육동무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예, 그런 솜씨를 가지고 농장쳐너 하나 후려잡지 못해?》

진섭은 유쾌히 웃으며 뜯어놓았던 부속들을 능숙하게 조립하고있는 동육의 어깨를 쳤다.

《거 뭐 사람이야 이 기계속과는 다르지요.》

최동육은 얼굴을 붉히며 시물시물 웃었다.

《하하하... 기계속과는 다르다?! 였소! 한데 그 문제도 어느 고리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오늘처럼 진공적으로 달라붙어 보지요.》

진섭은 이렇게 말하며 유쾌히 웃었으나 마음 한 귀에는 500대나 되다보니 이렇게 여라문대쯤 서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던 엄대결의 말이 무겁게 매달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기술지도원동무, 처음 지배인동무랑 작업소를 조직했을 때는 15대뿐이었다지요?》

진섭이와 함께 뒤부분을 조립하던 기술지도원은 한동안 그를 뻔히 쳐다보다가 활기를 띠었다.

《예,그랬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5대를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허허...참...》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생각깊은 어조로 계속했다.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에는 당장 모내기철이 다가왔는데도 논을 갈아엎을 부림소 한마리 변변한 것이 없구. 나쁜놈들은 협동조합이 망했다고 떠들 어대지...15대의 트랙터로 스무개 협동조합의 논밭을 다 갈아주어야겠는데... 참 그때 막막하던 생각을 하면... 트랙터들을 내보내놓고는 지배인동지와 함께 부속품과 공구주머니가 든 구력을 메고 밤낮으로 트랙터들을 찾아다니곤했지요. 그때는 수리공도 교대운전수도 없었구. 대치차 한개예비도

가지고있지 못했지요. 정말 그때 지배인이자 수리공이였구 교대운전수였시다. 우리는 그때 발머리나 논둑에서 트랙토르를 수리했구 운전수들과 함께 한지에서 쪽잠을 자면서 논밭을 갈았지요.

그런데 한번은 저 지금 신정리 부기사장동무가 앞바퀴고정나사 한개를 꺾어프리지 않았겠시까. 글썄 지금에는 그런 고정나사 한개쯤은 못 한개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으나 그때는 만년필만한 고정나사 한개때문에 트랙토르를 며칠씩 세워야 했지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혈떡거리며 달려온 엄대걸은 절반이 푹 부러져나간 고정나사를 들고 털썩 논판에 주저앉아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이걸 어찌겠소 응? 예비도 없지... 참 이게 어떤 트랙토르요! 동무 이 트랙토르가 서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쇠스랑으로 논판을 쪼아 일구고 풀구메로 씨레를 쳐야 한단말이요. 어영? 이진 또 뭐요?》

꺾어져버린 고정나사를 들고 한숨을 짓던 엄대걸은 고정나사가 꺾어져나가며 기관부뚜껑을 찌그러뜨린것을 보고 다시 한번 펄쩍 뛰었다. 손바닥만큼 칠이 벗겨지고 찌그러진 부분을 쓸어만지는 그의 손은 떨리었다. 그는 쇠붙이에 웅이 박히고 기계기름에 절어 참나무등걸같이 된 손으로 자꾸만 어루쓸며 꺼지게 한숨을 쉬고있었다.

《...지배인동진 그 밤으로 우리를 보고 트랙토르를 정비하라고 하고는 30리길을 장달음을 쳐 작업소에 들어가 고정나사를 만들어가지고 도로 30리를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을무렵에야 트랙토르수리를 끝내어 논판에 들여세우고 논머리에 나앉았지요. 그때야 허기증이 나서 우리는 허리춤에 차고다니던 밀떡보자기를 꺼냈지요. 한데 이틀간이나 허리춤에 차고다니던 밀떡은 뽕얇게 곱팡이가 꺼버리지 않았겠시까.》

기술지도원은 어느덧 깊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어버렸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부속품들을 조립해나갔다.

수리작업은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기본적으로 끝났다. 래일이면 일여덟대는 당장 전야로 나갈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어 진섭은 기술지도원과 헤어져 지배인실을 향해 걸어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협동화방침을 끝까지 받들어 가리라는 불같은 충성심! 그렇다! 그때는 보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불덩이같은 심장으로 논

밭을 갈아 협동화의 터전을 다져왔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다시금 그때는 지배인이었고 수리공이였으며 교대운전수였다는 말이 가슴을 찼다. 고정나사 한개를 위해 밤길 30리를 장달음을 치는 엄대걸의 모습이 사뭇 숭고하게 눈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 충성으로 다져온 터전위에 오늘의 현대적농기계기지가 일떠선것이다.

진섭은 지배인실앞의 은행나무밑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엄대걸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있었다.

은행나무잎이 한잎두잎 소리없이 떨어져 2층 지배인실에서 내비치는 전등불빛아래의 땅우를 황금빛주단으로 수놓았다.

《이젠 작업소의 트랙토르가 500대나 되다보니 아무래도 저쯤이야 늘 서게 되지요. 나도 처음 15대를 가지고 일할 때는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별수가 없습디다.》

낮에 하던 엄대걸의 말이 다시금 가슴속에서 무겁게 뒤채였다.

15대와 500대! 참으로 빨리도 달려왔다. 그러나 엄대걸은 이 줄기찬 생활의 흐름속에 주저없이 뛰어들지 못하고있었다.

왜서인지 지배인실의 책상우에 놓여있던 보약병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진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배인실의 환한 불빛을 쳐다보며 한숨을 지었다.

머리우에 어깨우에 꽃보라인양 황금빛 은행잎이 소리없이 내려앉고 어느 구석에선가 귀뚜라미가 여무지게 울어댔다.

이윽고 진섭은 번다한 생각을 털어버리듯 힘있게 고개를 짓고는 지배인실로 올라갔다.

엄대걸은 량수책상우가 비좁게 문서들과 도면들을 벌려놓고 앉아있었다.

《어서 오시오. 소조원동무, 내 찾아가려고 했시다. 아무리 따져봐도 신정리 100정보작업반 조직문제를 트랙토르를 더 받아온후에 해야겠시다.》

엄대걸은 혈색좋은 목을 슬슬 쓸며 진섭의 기색을 살폈다.

《지배인동지, 밤이 깊었습니다. 그것은 후에 참모회의에서 토론하고 오늘은 그만 들어갑시다.》

출장을 갔다와서 온종일을 숨돌릴새 없이 뛰어다니고도 또 밤이 깊도록 책상앞에 앉아있는 엄대걸을 보니 속이 무죽해졌다.

《허허... 늘 그런걸요. 바빠 뛰다보니 언제 한번 조용히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군요.》

엄대결은 책상위의 문서들을 주섬주섬 걷어놓고 담배를 붙여물고 나앉았다.

《지배인동지, 전 대학실습기간 저 도농기계부문 일군 경험교환회에서 한 지배인동지의 토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엄대결은 경험교환회에서 15대의 트랙토르로 처음 농기계작업소를 꾸리고 군내 협동조합의 농사를 짓던 이야기를 무려 한시간반이나 구수하게 했었다.

《음 그랬던가요. 허허… 거 뭐 별로 경험이라것도 없는걸 늘 토론을 하라구 해서… 그때 정말 어려웠지요.》

엄대결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진섭의 생각에로 끌려들어가며 벗어지기 시작한 머리를 술술 쓸어넘기었다.

《그때 꺾어진 고정나사못 한개때문에 밤길 30리를 되짚어나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엄대결은 진섭이 왜 새삼스럽게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수 없다는듯 뻔히 건너다보았다.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때는 내 서른소리를 할때니까요. 허허… 별의별 경난을 다 겪었지요.》

엄대결은 은연중 무엇인가 가슴에 걸리어 속궁근웃음을 웃었다.

《지배인동지! 저는 술한 트랙토르들이 서있는것을 리해할수가 없습니다. 한대의 트랙토르가 한시간을 서도 그것은 사건화되어야겠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진섭이 조용히 하는 말이었으니 엄대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볼수가 없었다. 낮에 수리직장에서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른 뜻을 가지고 눈앞에 떠올랐다.

《뭐 그렇게까지야 나도 이제 나이들다보니 전갈지 못합니다. 내 일을 쓰게 하지 못해서 그렇시다.》

《지배인동지, 저희들이 중심고리를 잘 틀어잡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엄대결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앉아있었다.

방안에는 벽시계소리만이 가득찼다.

진섭은 전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를 더는 건드리고싶지 않아 먼저 일어섰다.

《지배인동지, 이제 들어갑시다.》

《예? 예 먼저 들어가시우. 나도 인차 들어가겠습니다.》

엄대결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말을 더듬거리며 영거주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버렸다.

진섭이 돌아간후에도 그는 책상위에 몸을 기대고 한팔로 턱을 고인채 오래도록 앉아있었다.

신정리에는 다음날 당장 나가자고 했지만 며칠후에야 떠나게 되었다.

운전칸의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도 엄대결은 여느때없이 자리가 배기여 궁깃거리며 진섭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

20여년간의 지배인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였다. 때로는 자기의 아들 같은 사람앞에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얼굴 뜨끈한 맛도 보았고 철없는 젊은이들앞에서 울컥하고 치미는 불뭉치를 이를 악물고 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저 진섭은 언제 한번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이 늘 진중하게 대했고 침발린 소리는 없어도 자기의 지난날을 값높게 쳐주고 이모저모로 자기의 사업을 도우려고 원심을 쓰고있었다. 며칠전 사무실에서 느닷없이 꺼낸 작업소조직당시에도 끌려들어가 이야기를 하고나서도 그는 전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었다.

이동수리차는 다락발건설장을 에돌아 집채같은 벼랑가리를 통채로 끌고오는 트랙토르들과 어겨가며 기세좋게 달리고있었다.

만석벌의 몇개 리를 거쳐 신정리에 이른것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였다.

엄대결은 기계화작업반의 휴게실에 들어앉아 부기시장과 통계원, 정비원들을 불러 가을같이 정형과 트랙토르들의 가동정형을 기대별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한참후 최동욱이 종이두루마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선뜻 지배인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서있었다.

진섭은 그에게 어서 말하라고 눈짓으로 고무했으나 동욱은 목을 움츠리고 쭈뼛거리기만 했다.

《거 보니까 또 100정보작업반 조직문제를 가지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건 후에 봅시다.》

동욱은 지배인의 말에 그만 풀이 죽어 돌아서버리고 말았다.

《지배인동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을같이 제 기일내에 끝내고 토지정리도 다 해놓겠습니다.》

부기사장이 그때야 용기를 내어 나섰다.

《아 아,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어서 가을같이 나 끝내고봅시다. 지금 당장 돌릴 트랙토르가 있소? 기술력량이 있소?》

무엇인가 말할듯하던 진섭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엄대결을 지켜보며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그날밤 농장관리위원회에 갔던 엄대걸은 밤이 퍼
나 깊어서야 기계화반으로 돌아왔다. 휴게실텔레
비존앞에도 침실에도 진섭은 없었다. 어데를 갔을
가하여 발뽕발뽕 트랙포르차고에로 나갔다.

진섭은 거기서 동욱이와 마주앉아 시꺼먼 세척용
기름속에 손을 잠그고 부속들을 닦고있었다.

《동욱동무, 그래 그 동무가 트랙포르를 못타겠다
우?》

《본인이야 그렇지 않지요. 한데 아무래도 그 동
무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동욱이 어쨌게 대답하며 더수기를 굵적거렸다.

《거 트랙포르를 못타 진공적으로 냅다 공격을 해
보우, 하여튼 그 처녀동무에게 트랙포르운전법부터
배워주워 퍽 태우고 불판이지...》

동욱의 약혼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에게로 다가가던 엄대걸은 무춤 굳어져버리
고말았다. 선뜻 다가갈수가 없었다.

진섭은 마치 오랜 구면친구와 함께 일하고있는듯
했다. 그는 어디에서나 수리공이었고 교대운전수였
으며 그들의 다정한 길동무였다.

트랙포르밑에서 몸을 굽히고 부속을 조립하고있
는 진섭을 지켜보던 엄대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눈
을 감았다. 20년전의 자신이 돌이켜졌다. 그렇다,
그때는 자기도 저렇게 수리공이었고 교대운전수였
으며 운전수들과 수리공들의 길동무였다. 운전수들
과 머리를 맞대고 트랙포르부속들을 맞추었고 힘들
어하는 운전수의 교대운전수가 되어 트랙포르우에
서 밤을 밝히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걸린 고리를
팔을 부르걸고 나서서 풀어주곤하였다.

진섭에게서 넘쳐나는 젊음이 부러웠다. 얼핏 보
기에는 손에 기름칠을 할것 같지 않게 깨끗하였으
나 아무데 가서도 수리공들 운전수들과 한데 섭쥔
려 땀을 흘리는 그의 정열이 부러웠다.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던 엄대걸은 무거운 걸음으
로 돌아서버렸다. 뜰앞의 감나무밑에 앉아 담배를
불어물었다.

한참후 진섭이 왔다.

《왜 안들어갑니까?》

《여기가 좋군요. 소조원동무도 좀 쉬어야겠시다.
여기 나와서까지 그러다가 앓겠시다.》

엄대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혈육의 정이 어려있
었다.

《일없습니다. 동욱동문 참 좋은 동무더군요. 하
하하... 약혼한지 한해가 되었는데도 밤마다 트랙포
르운전법을 배워줄 때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답

니다. 그 처녀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봐야 할것같습
니다.》

그를 이윽히 쳐다보던 엄대걸은 옆에 자리를 내
며 비켜앉았다. 관리위원회에 갔다가도 그 문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것이 부끄러웠다. 진섭에게
무엇이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진섭은 그의 옆에 앉았다.

두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을밤! 취할듯한 구수한 난알향기는 온 대지에
차넘치고 포근한 정적속에 밤은 깊어갔다. 부속을
깎던 이동수리차운전수도 잠들어버렸건만 저 멀리
긴골등성이밭에서 트랙포르 불빛들은 별무리마냥
쉬임없이 반짝였다. 머리위의 감나무가지에서 연이
든 감알이 툭 떨어졌다. 살진 감나무잎들이 팔랑거
리며 소리없이 땅우에 내려앉았다. 좋은밤이었다!

《지배인동지, 저기로 좀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진섭이 오랜 침묵을 깨뜨리며 긴골등성을 가리
켰다.

《가봅시다.》

엄대걸도 선뜻 일어섰다.

두사람은 밝은 달빛아래 한적한 들판의 밤길을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긴골등성을 올라가면서 진섭이 먼저 생각깊은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난 오늘 동욱동무의 말을 듣고 많은것을 생각하
였습니다. 여기 동무들은 토지정리 설계뿐아니라
별써 저기 긴골등성이에 전망대를 세울것까지 계획
하고있습니다. 1인당 10정보씩의 밭을 관리해서 정
당 12톤의 강냉이를 생산하고 어버이수령님을 모
시겠다는 불같은 충성심을 나눈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었습니다...》

진섭이와 나란히 호젓한 포전길을 걸어가던 엄대
걸은 새삼스럽게 그의 아래우를 더듬어보았다.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고 파란 운동화를 받쳐신은
단정한 몸에서는 설새없이 열기가 뿜어나오는것 같
았다. 아직 코밑에 면도칼을 대기 저어하는 감싯한
얼굴에서는 웅심깊은 눈이 수많은 사연을 이야기해
주고 말할 때마다 하얀 송곳이가 눈이 시리게 반짝
였다. 그에게서 향긋한 기계기름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오늘도 동욱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것
을 생각했습니다... 동욱동무도 그렇고 저 기술지도
원동무도 그렇고 모두 훌륭한 동무들입니다. 기술
지도원동무는 며칠전에 나에게 처음 작업소가 조직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그때처
럼 일하지 못하고있다고 합니다만 그 동문 20여년
간이나 우리 작업소의 트랙포르와 함께 살며 오늘

은 500여대 트랙토르의 부속품 하나하나를 심장으로 헤아리고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우리 작업소를 떠받들고있는 동무들을 저는 아직 모르고있었습니다…」

엄대걸은 평지에서 말을 걸채이며 그의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다.

이윽고 가을갈이가 한창 벌어지고있는 긴골등성이밭에 이르렀다.

진섭은 한 트랙토르에로 달려가 운전수를 교대하여 운전대를 잡고앉았다.

엄대걸은 발머리에 뿌리고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진섭이 한참동안이나 발을 갈 때까지도 엄대걸은 그대로 나무등걸처럼 발머리에 앉아있었다.

진섭이 다시 몇고패를 갈고났을 때 엄대걸이 트랙토르의 앞을 막아나섰다.

《소조원동무, 내 좀 갈아봅시다.》

엄대걸은 진섭이 말없이 내주는 자리에 올라앉아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가속변을 지그시 눌러 기관상태를 가늠하더니 변속기아를 넣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트랙토르는 성이라도 내듯 몸을 부르르 떨더니 왈각 앞으로 나갔다. 보습날이 깊숙이 박히며 헛바퀴가 돌았다. 트랙토르를 멈춘 엄대걸은 보습을 들고 후진기아를 넣었다. 한데 이번에는 트랙토르가 제발고랑에서 벗어나 외로 달려갔다. 다시 제 고랑에 들어세우고 보습을 박았다. 했으나 이번에도 트랙토르는 말을 듣지 않고 강냉이그루만을 허비며 앞으로 나갔다.

엄대걸의 아마에는 식은땀이 내배였다. 땀을 훔치는 손이 떨리었다.

《허허… 이젠 다 잊어버렸군…》

허거픈 웃음속에 하는 말이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리었다. 자기의 팔다리처럼 말을 듣던 트랙토르였다. 열정에 불타는 심장과 함께 고동치던 이 정다운 발동소리조차 이 순간에는 두려웠고 갑자기 중풍이라도 인것처럼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것을 잊어버린것이였다. 이제는 어엿하게 농기계작업소 기사장으로 자란 아들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여생을 말쑥없이 편히 보내자는 생각속에 하루살이식으로 살아온 나날들이 가슴아프게 돌이켜졌다. 귀중한 트랙토르가 서있는것보다도 당장 눈앞의 비판이 두려워 가을갈이실적을 두고 어성을 높이고 한개의 대치차쯤은 안중에도 두지않게 되어 버렸다. 1인당 10정보의 밭을 맡아 대풍을 마련하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안고

희망에 넘쳐 살아가고있는 최동욱의 불타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말없이 20년간을 트랙토르와 함께 살고있는 기술지도원의 뜨거운 심정도 몰라보고 일생동안 감기약 한알 먹어보지 않던 몸에 보약을 써가며 그날그날을 하루살이로 살아왔다. 트랙토르가 500대나 된다고 허리띠를 풀어놓고 사무실의 량수책상앞에 앉아 전화통과 보약병에만 매달려있는 사이에 생활은 그를 기슭으로 밀어내놓고 줄기차게 흘러갔다. 그런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때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한 운전칸에 나란히 앉아있어야 할 운전수들과 수리공들은 그를 버리고 생활의 한복판에서 도도히 흘러가고있었다. 저 최동욱이도, 기술지도원도…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앞서가버린 것만 같았다. 불시에 고독감이 무섭게 엄습했다. 진땀이 배게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었다.

《소조원동무, 난 모든것을 잃어버렸시다. 난 그만…》

걱 목이 막혀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지배인동지, 어서 계속 앞으로 내모십시오. 전쟁의 포화속에서 피흘리며 배운 운전법인데 그렇게 다야 잊어버리겠습니까.》

무겁게 고개들 든 엄대걸은 다시 몸이 굳어져버렸다. 그는 진섭을 똑바로 쳐다볼수 없었다.

진섭은 여전히 감ış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따듯한 고무의 시선을 보내여주고있었다.

《소조원동무, 나를 좀 따끔히 채찍질해주우… 처음 작업소가 조직되었을 때는 고정나사 한개를 두고도 가슴을 쳐대던 내가 오늘은 수십대의 트랙토르가 서있는것을 보면서도 가슴아파할줄을 모르게 됐시다… 최동욱이와 같은 운전수들이 제기하는 1인당 10정보관리문제는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뒤로 미루고… 그러고도 무슨 큰일이나 하는것처럼 떠돌아다니기만 하였시다…》

엄대걸은 이제까지 가슴속에 부각부각 피여오르는 심정을 활 털어놓듯 속 시원히 말했다.

《지배인동지, 다 알고있습니다. 어서 그때처럼 운전대를 든든히 잡으십시오.》

진섭은 변속기아를 넣어주며 엄대걸에게 트랙토르를 몰라고 눈짓을 했다.

무엇인가 더 말할듯 고개를 돌렸던 엄대걸은 꼭 입을 다물어버리고는 운전대를 힘있게 잡고 가속변을 지그시 눌렀다. 진섭이 인양기를 조절해주자 트랙토르는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지르며 깊숙이 박힌 보습을 끌고 앞으로 나갔다.

《지배인동지, 좀 더 속도를 높이십시오.》

《예!》

《됐습니다. 가만 거 옷에 기름이 묻습니다.》

《허허… 가만두시오. 옷에 기름칠을 해본지도 오래입니다.》

두사람이 어깨나란히 함께 모는 트랙토르는 고르로운 발동기소리를 울리며 사래긴 밭을 갈아나갔다.

엄대걸의 심장은 다시 트랙토르의 고르로운 발동소리와 함께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문득 며칠 전 사무실에서 옷주머니에 넣은 아들의 편지생각이었다.

그는 밭머리에서 트랙토르를 돌리며 진섭을 돌아다보았다. 자기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있는 진섭의 시선은 너무도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었다. 불같은 열정과 깊이를 알수 없는 호수같이 웅심깊은 성품, 한없이 따사로운 마음… 그것은 젊음에서만 오는것이 아니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한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성품이었다.

기사장으로 일하고있는 아들도 바로 저 진섭처럼 살고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것이 단순한 농촌기계화의 운전대뿐이겠는가. 그것만 넘겨받는다면 그도 바로 나처럼 이렇게 기슭으로 밀려나버리고말것이 아닌가. 나처럼 이런 가슴아픈 순간을 맛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모든것을 아들에게 써보내리라. 나의 이 순간의 심정을 그대로 써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밭머리에 우등불이 타올랐다.

운전수들이 모여와 그들을 지켜보며 웃고 떠들어대고있었다.

두사람은 나란히 트랙토르를 몰아나갔다. 밭머리에 모여서있는 수많은 운전수들의 축복속에서…

얼마후 엄대걸은 운전수들과 함께 트랙토르 전조등불빛앞에 모여앉았다.

웃고 떠들어가며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1인당 10정보의 발관리를 위한 100정보작업반조직문제

와 아까 동육이 들고 왔던 토지정리실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하하하… 그때는 여기에 또 한쌍의 부부운전수가 탄생하겠군 응? 허허… 좋은 때요. 동육동무, 그래도 가동률은 무조건 90프로이상 올려야 이걸 할 수있소.》

엄대걸은 동육의 어깨를 짚고 이제까지 볼수 없던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지배인동지두, 우리를 믿으십시오. 그건 문제없습니다.》

동육이도 얼굴이 벌개서 땀관같은 가슴을 퍼먹은소리를 쳤다.

《허허… 믿어야지 믿구말구. 우리 작업소의 500대 트랙토르가 다 그렇게 뛰기만 하면 트랙토르를 더 받지 않고도 이런 100정보작업반을 땃개는 더 조직할수 있을거요.》

엄대걸은 그렇지 않느냐는듯 진섭을 돌아다보았다.

《그렇습니다. 동무들 이제 지배인동지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지금 가지고있는 트랙토르를 잘 써먹어야 합니다. 저게 어떻게 되여 만들어진 트랙토르입니까…》

진섭은 기쁜 마음으로 엄대걸의 뒤를 받쳐주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엄대걸은 이 몇시간사이에 한결 젊어진것 같았다. 아들의 편지를 두고 아들이 또 무슨 일을 했다고 말끝마다 자랑을 하며 전화통과 보약병에만 매달려있던 그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기 위치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것이다. 아직은 줄기차게 흘러가는 생활의 본궤에서 벗어나 개핀물처럼 살아온 그 아늑한 기슭에서 거세찬 흐름속으로 선뜻 뛰어들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30여년간이나 트랙토르우에서 굳어진 로동계급의 근본까지를 다 잊어버린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새벽빛이 희붉히 밝아왔다.

한가정

안선옥

《철웅아!》

순정은 와플 놀라며 눈을 떴다. 그는 꿈결에 팔을 휘저으며 아들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것만 같아 먼구스러워 옆에 누운 손님들의 얼굴을 살폈다. 크지 않은 려관방에는 두 손님이 더 누워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내린 달빛에 둥글넙적한 얼굴이 온통 하얗보이는 너인은 어느 군회관지도원이라는데 도예술선전대에 무슨 토막극대본을 베끼러 왔다고 한다. 저쪽 침대가녁에 팔을 드리우고 어린애처럼 췌근췌근 자고있는 처녀는 새벽급행차로 ㅁ시에서 왔는데 어느 유치원교양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모두 순정의 먼구스러움에는 전혀 인연이 없다는듯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다행이었다. 순정은 달빛에 팔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였다. 파랗게 열린 하늘가에서는 한껏 여문 별들이 숨박꼭질을 했다. 그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으나 오히려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졌다. 정작 꿈이었다고 생각하니 아쉽기가 그지없다. 귀여운 아들이 못견디게 보고싶었던 마음의 연장이었는지, 아니면 그 애가 전국소년예술소조축전도심사때문에 오늘 올라온다는 소식을 받아서인지 꿈에 어린것을 보았다.

...꽃들이 만발한 공원이었다. 그는 한손에 너울거리는 풍선을 쥔 철웅의 손목을 잡고 공원을 거닐었다. 자주빛 꽃잎새들에서 하얀 나비들의 날개를 떨고 싱그러운 향기가 공원을 한가득 메웠다. 공원 한가운데 려꽃잎이 흐느적이는 못에는 돌로 깎은 코끼리가 네다리를 뚝 버티고섰는데 긴 코끝에서 뿜겨나오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오르다가는 포물선을 그으며 못주위에 휘뿌려졌다. 그 서슬에 옷을 입은채 물참봉이 된 조무래기들이 하늘에서 뿌려지는 물줄기를 저마끔 두손에 받느라고 법석 고아대고있었다. 순정은 철웅이도 그속에 뛰어들면 어찌랴싶어 려뭇으로 향하던 발길을 슬그머니 돌렸다.

이때였다.

《철-웅아!》

《처-얼-웅-아!》

삼시에 여러 갈래의 되알진 목청들이 합창을 이루었다.

《어머니, 형, 나두 미역감올래!》

어린것은 어느새 손아귀에서 풀려나 물속에 침범 곤두박혔다.

《저, 깊은데...》

순정은 눈앞이 아찔했다. 철웅이 금방 뛰어든 자리에 서서히 물주름이 번져가고있을뿐이었다. 주인을 잃은 빨간 풍선이 누구인가를 찾으려는듯 물가녁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더니 하늘로 꺾끗이 솟아올랐다.

《아니, 철웅아! 철웅아!》

마음이 한줄만해진 순정은 허겁지겁 물넙으로 비틀걸음을 놓다가 화강석을 다듬어놓은 공원의자에 무릎을 부딪치는바람에 놀라 잤던것이다...

꿈에서까지 어린것을 보고나니 가슴이 찌르르했다. 보고싶었다. 못견디게 보고싶었다. 곁에 있다면 꼭 그러안고 불우물이 오목한 그것의 말랑말랑한 뺨에 실컷 입을 맞춰주고싶었다.

《깜찍한것!》

눈앞에서 어린것의 까만 눈이 새물새물 웃는것 같다. 그는 저도모르게 혼자소리를 했다. 그 귀염둥이와 헤어진지가 벌써 일주일째다.

그는 그대로 누워있을수가 없어 다시 팔목시계를 보았다. 겨우 십분이 지났을뿐이었다. 초조한 마음을 붙들어서우지 못한 그는 어서 날이 밝았으면 하고 바랐다. 철웅이네들이 낮차로 올라온다고 회관지도원너인이 어제 예술단에 갔다 알아왔기때문이다.

순정은 가슴가득 즐겁게 머리 들고 일어서는 생각을 굴렸다. 먼저 철웅이를 만날까? 아니 그애들이야 열두시에 도착한다니까 아직 시간이 많지. 먼저 악기공장 판매부에 들려야겠다.

군급의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에서 회계원으로 일하고있는 순정은 도에서 있는 회계원강습에 올라와다가 이렇게 려관에 머무른 몸이 되었다.

다른 회계원들은 이미 강습을 마치고 그제 저녁에 모두들 돌아갔으나 아들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형위원회 위원인 그는 도에 올라온 기회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였다.

유치원경음악단이 바이올린 1번수인 철웅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순정은 유치원에 각별한 열성을 갖고있었다.

그래서 교양원들까지도 철웅이 어머니는 《학부형》이라는 글자앞에 《모범》이라는 말을 두어개 붙여도 아깝지 않다고들 했다.

이번에도 역시 출장으로 떠난차에 유치원사업까지 한몫 맡아가지고 왔던것이다. 물론 순정이자신이 술선 자진한것이긴 하지만.

전국 어린이 노래와 춤 축전에 합격되어 올라가는 유치원경음악단에서는 그 인원을 배로 늘이는 것과 관련해서 새 악기들을 사들인다, 연주하던것을 보수한다 야단법석이었다.

순정은 의례 모범학부형으로서 이럴 때 유치원의 명예를 위해 한몫 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겼다.

도심사에서 클라리네트 두대를 더 넣으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순정은 유치원교양원들에게 도에서 강습이 끝나고 올 때 꼭 클라리네트와 같이 오겠으니 넘려 말라고 장담까지 했었다.

그는 클라리네트라는 꼬부랑말이 잘 번져지지 않아서 클락새라고 했다가 교양원들을 웃기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강습을 끝내고 어제야 악기공장 판매부로 가니 이미 검수된 클라리네트는 금방 다나간 뒤였다.

어느 군협동농장과 어느 련결농기계공장에서까지 무슨 합주를 한다는것이였다. 유치원뿐만아니라 대학은 물론 로동자, 농민들까지 모두 예술축전에 참가하는 때이니 악기들이 긴장되어 검수되어들어오는 족족 팔리는 판이라고 하면서 얼굴색이 녀자처럼 희고 계란형으로 기름한 판매지도원이 오히려 미안스러워하며 오늘 아침에 오라고 했던것이다.

악기도 구하고, 어린애도 만나고, 학부형위원으로서도 뻔뻔하고, 순정은 명절날처럼 즐거웠다.

그는 판매부에 들러 우선 악기를 사고 애들을 태운 기차가 오기전에 철웅이 아버지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남편도 보건일군협의회때문에 도에 올라와 있었다.

(아니야, 내가 철웅이를 데리고 먼저 불쑥 나타난다면? 호호 그이가 깜짝 놀랄테지?!...)

남편과 어린애, 순정은 마음을 끝없이 정화시키며 훈훈한 봄바람이 흐르는 꽃밭속에 서있는것만 같은 생각에 더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남편은 순정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는 사람이었다. 처녀총각시절에 서로 알지 못했던 그들은 벗들의 소개로 가정을 이룬 뒤에도 왜서인지 젊은 시절에 책에서 읽은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지는 못했다. 남편이 어쩌다 집에서 쉬는 날이면 서먹서먹하여 부엌에서 일없이 서성거리던 순정이였다. 언젠가는 그이가 어린것에게 선물한 함흥모방직산 꽃담요를 덮은 철웅의 발이 새끼손가락기장만큼 밖으로 빼여져나오던 때 남편은 장기강습에 갔다가 돌아왔었다. 순정은 문을 열며 《철웅아!》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마주 달려나가 가방을 받으면서도 눈을 꼭게 흘기며 볼덴 소리를 했었다.

《당신은 그저 철웅이밖에 몰라요!》

그러나 남편은 악의 없는 그 시새웁은 들은동안 등 순정의 어린 코등을 살짝 툇기며 느물느물 웃더니 밖에서 노는 철웅이부터 찾으러 나갔던것이다. 그는 강습에 갔던 사람이 이상스레도 불룩한 배낭까지 메고왔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 남편 몰래 배낭을 헤집었다. 입을 썉 벌린 배낭아구리에 어린애 장난감 트락포르가 보였다.

《아이, 트락포르! 신통도 하네...》

손바닥에 바퀴를 굴러니 제법 투둑투둑 발동소리까지 낸다. 배낭속의 《보물》들은 신기하기도 하다. 없는게 없었다.

《야, 불도젤!》

《오토기!》

《자동차!》

순정은 연신 탄성을 울리며 장난감들을 끄집어냈다. 여러줄로 늘어선 장난감들이 백화점 완구매대 진렬장을 방불케 했다.

순정은 훌쩍해서 방바닥에 잤아든 빈 배낭을 털러다가 목직한 촉감에 손을 넣었다. 손에 닿은 감각으로 일전에 부탁했던 책상장식용잉크병이라는것을 느낀 순정은 《어마나, 그인 참...》하며 생긋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순정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둘러 배낭속의 물건을 꺼내든 순정은 아연해지고말았다. 그것은 장난감로켓였다. 공치주둥이처럼 기두쫘이 뽀족한 《로켓트》는 은빛몸체에 다섯개의 붉은 별까지 달고있었다.

이윽해서 남편이 어린것을 안고 들어왔다. 뜻밖의 혜택에 어리둥절해진 철웅은 자기를 위해 기을

인 아버지의 수고는 아랑곳없이 트랙포르며 자동차, 불도젤서편 아름이 벌게 안고 마당으로 내뺐었다.

《아니, 그걸 다… 그러다 다른 애들이 망가뜨리면 어쩔려구…》

순정이 급한 소리를 했다.

《놔두오. 다른 애들이랑 다같이 놀게…》

순정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눈을 내리깔았다. 부채살같은 속눈썹이 눈가장자리를 덮었다.

《제 부탁은 한가지두…》

《허어, 너자들이란 어린애라니까…》

남편은 허허 소리나게 웃고말았다. 순정은 뽀로통하여 원고개를 돌리었으나 가슴에 흘러드는 그 웃음은 류다르게 정다왔다.

그런 남편이었다. 남편의 온몸을 사로잡은 사랑의 전부는 철웅이었다. 남편들은 모두 어린애가 생기게 되면 안해에게 바치던 사람까지 다 애들에게 날라가는것 같다. 아니, 그것이 안해들에게 더해지는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런 남편이 순정에겐 싫지 않았다. 그이가 얼마나 어린것이 보고싶으랴. 순정은 봄빛이 흐르는 가슴에 조용히 두손을 얹고 생각을 고쳤다. 판매부에서 일을 보고 그이와 함께 역으로 나가 어린것을 만나야겠다. 물론 남편은 두말없이 찬성일것이다. 순정은 흐뭇했다. 정든 생활의 보금자리를 멀리 떠난 출장지에서의 한가정의 상봉! 그 어느 가정에나 차례지는것이 아닐 이 상봉은 때이르게 순정의 가슴을 설레게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을 켜면 옆손님들이 깽겟 갈아 달빛에 빨간 함박꽃무늬가 자주빛으로 보이는 나이론꽃보자기를 침대우에 폈다. 순정은 유치원아이들이 집짓기놀이를 할 때처럼 귀를 맞추어서 꽃과자를 차근차근 올려쌓은 다음 보자기귀를 여미고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철웅은 여러가지 새참들중에서도 과자를 유별스레 좋아했다. 금방 눈앞에 어린것의 호물거리는 입이 보인다. 순정의 얼굴에도 웃음이 함뱍 어린다… 과자를 먹던 어린것이 갑자기 입을 싸쥐며 얼굴을 찡그린다. 《엄마! 엄마!》 다급한 소리를 지르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아, 그렇지, 순정은 철웅의 흔들리던 앞이발을 뽑아주지 못하고 바빠 떠난것이 생각되었다. 어린것이 엄살을 쓰는바람에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후에 뽑아주리라고 그만두었던것이다. 그 애를 만나면 이발부터 뽑아줘야겠구나. 그러다 덧이라도 나오면 어찌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어린애를 만나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어느새 달빛이 설퍼지기 시작했다. 미구에 동녘을 티운 빨간 노을이 창문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 ×

빨간 꽃벽돌들을 열기설기 덧엿어 꽃이며 별을 새겨 두른 울바자안에 자리잡은 악기공장 판매부사 무실은 이른아침부터 붐비었다.

여기저기에서 따룩따룩 주산알 굴리는 소리들이 노래가락처럼 방안을 메웠다.

《순정동무, 야단났소!》

이미 안면있는 판매지도원이 순정을 보고 먼저 반색을 하는데 그의 설핀 눈썹 량꼬리가 눈에 띄게 아래로 처졌다.

순정은 그 눈썹을 보고 오늘 일이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했다.

《안녕하세요?》

순정은 눈웃음을 그리며 그에게로 몇걸음 다가갔다.

《클라리네트는 암만해두 래일 다시 봐야겠소.》

《예- 예?...》

《도예술단에서 갑자기 사가는통에...》

판매지도원은 오른손가락들을 뽕뽕이 세워 기를 발라넌긴 머리칼을 빗질하듯 쓸어올리더니 손을 썩썩 마주비비며 순정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꼭 내려가야겠는데... 애들 공연이라면 오금을 못쓰면서들두...》

순정은 곱게 눈을 흘겼다.

《어떻게 해보지요!》

그는 의자를 밀어놓으며 책상앞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

《그러게 누가 안주겠다나? 준단말ियो... 줘...》

이때였다. 머리에 빨간 삼각수건을 쓴 처녀가 불쑥 책상앞에 나타났다.

《지도원동무, 도예술단에 클라리네트와 <피콜레>를 다 공급했습니다.》

처녀는 《출고증》이라는 쪽지를 내밀었다.

《아, 마침 창고원동무가 왔구만. 예비가 없소?》

《클라리네트는 다 나가고 <피콜레>가 조금 있습니다.》

《피-콜-새밖에 없다?...》

판매지도원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책상을 도막이며 생각에 잠겨있더니 순정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요. 없اذ지 않소?…)

가느스름하게 쪼프린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늘 검수되는것으로 래일 무조건 주겠소.》

《저… 그럼… 그 <피꼴새>라두…》

순정은 마치 소중한것을 잃어버릴가봐 겁나듯 얼른 말꼬리를 텃어었다.

언젠가 유치원에 갔다가 악기장속에서 투명한 빨락종이에 파리를 틀듯 동글동글 말아넣었던 악기선생각이 났다. 그 빨락종이안의 상표가 바로 《피꼴새》였다. 철웅이를 비롯한 바이올린수들에게서는 바늘을 따르는 실과 다름없이 귀중한 악기선이었다.

유치원에서 《피꼴새》 부탁은 없었으나 악기선의 예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것은 없었다. 더구나 그 장난꾸러기들이 련습하면서 끊어뜨리기가 일췌일텐데… 그러잖아도 이틀째나 약속을 어겨 미안스러워하던 판매지도원은 순정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선선히 수표한 쪽지를 내밀었다.

《자, 이제 다요. 부장동무의 결재가 나오면 창고로 가요.》

《고마와요. 이쪽것은 래일 꼭 되지요?…》

《믿으시오.》

쪽지를 받아든 순정은 마지막 결재를 받으려고 판매부장 책상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우뚝 멈추어섰다. 책상은 비어있었다.

순정은 어제 얼핏 부장의 얼굴은 익혀두지 못했어도 그의 하얀 안경테만은 기억하고있었다. 한것은 사람들이 모두 《백부장》이라고 불려서 안경테 색깔과 신통히도 꼭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진하게 남았는지 모른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안경을 끼었다. 그러나 부장은 아니었다. 검은테안경이었다. 순정은 대기의자로 다가가 앉았다. 시계를 보니 열시였다. 열두시까지지는 아직 시간이 넉넉했다.

다시 문이 열리었다. 연한 향수내가 먼저 바람에 실려들어왔다. 연록색브라우저를 입은 처녀가 반짝거리는 노란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처녀는 판매부출입이 처음인지 누구에게라없이 다소곳이 머리숙여 인사를 했다.

귀밀이 빨강게 익어올랐다. 처녀는 어색함을 지우려는듯 이마전에 드리운 몇오리의 머리칼을 쓸어올리느라 두번째 손가락을 맏시있게 뺏뺏이 켰다.

《저…》

누구도 어리둥절해 섰는 처녀컨으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순정은 그가 새벽 급행차로 올라와 한호실에서 잔 처녀임을 힘들지 않게 알아보았다. 잠결에 문을 두드려 열어주면서도 눈섭가장자리에 비방울만하게 맺힌 검은 기미를 눈에 익혔던것이다.

《영옥동무!》

순정은 목소리를 죽여 그를 부르며 손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다.

《아이, 먼저 와계셨네.》

뜻밖에 구원자를 만난 처녀는 재빨리 순정이 띄여준 결자리로 다가왔다.

《언니가 이리루 오실줄 알았으면…》

《처음인가부지요?》

《네… 애들 축전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앉아있노라면 담이 커져요. 호호…》

《아이참…》

처녀는 밋지 않게 눈을 살짝 치떴다. 그때문에 기미가 술많은 눈섭속에 잠겨들었다. 다시 이마전에 흘러내린 고불고불한 머리칼을 추스르느라 맏시있게 손가락을 세우는 처녀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순정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웃음의 물결이 일었다. 순정은 자기의 처녀시절을 보는듯했다. 자기에게도 이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흘러가버린 시절이었다. 지금은 비온 뒤 푸른 초원의 들꽃처럼 청신한 자기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라기보다 가정, 아이, 남편-거기에 더 마음이 쓰이는 자신을 느닷없이 발견한 순정은 마음 한구석이 이상스레 허전해지면서도 이름 못할 기쁨으로 뿌듯해지는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순정의 야릇한 눈길을 느낀 영옥은 도리어 안절부절을 못해하며 되물었다.

《가만 있어요!》

잠간 여유를 두었던 순정은 지도원의 책상머리에 오구구 몰켜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물러나기 시작한 다음에야 《어서 가봐요!》했다.

순정의 곁에 가방을 놓은 처녀는 그속에서 몇장의 종이를 꺼내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책상앞에 바투 다가선 처녀는 들어오면 때처럼 조심히 머리숙여 인사를 했다.

《저…》

책상우에 올려놓은 작은 책꽂이에 가리워 머리칼이 반나마 썩어진 이마만 보이는 판매지도원은 양 어깨를 귀밑으로 바싹 솟구고 주산알을 뒤흔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머리를 들었다. 그 서술에 머리칼이 눈두덩까지 가리워버렸다.

판매지도원은 다시 다섯손가락을 뿔뿔이 세우고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동문 어디서 왔소?》

이런 장소에서 애어린 처녀는 뜻밖이라는듯 지도원은 쾅한 눈으로 그를 곧추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속눈썹 량꼬리가 우로 들렸다. 처녀는 수줍은듯 머리를 숙이며 들고있던 종이장을 내밀었다.

《음-口시에서?! 또 예술축전이군...》

범상하게 종이쪽지를 들여다보던 판매지도원은 큰소리로 되뇌었다.

《피-꿀-새?》

그의 눈썹 량꼬리가 다시 아래로 늘어졌다.

《야단이군. 이젠 다 나갔는데...》

《어쩌나?》

처녀의 목소리를 불안스레 떨렸다.

《당장 중앙심사가 시작되는데...》

처녀는 전국 어린이 노래와 춤 축전에서 현악합주가 뽐히었는데 도축전심사에 내려왔던 선생님들이 인원이 너무 작다는 의견을 주어 사장했던 악기들까지 다 보수해서 동원하는데 오늘중으로 《피꿀새》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 야단이군, 아침에 도예술단에서 다 털어가구...》

말끝을 흐리던 지도원은 순정이쪽을 던지시 바라보았다.

순정은 시치미를 떼고 그의 눈길을 피했다.

불현듯 언젠가 유치원학부형협의회때 일이 떠올랐다. 口시 현악합주와 우리 군 경음악이 도에서 승부를 겨루고있다는 것과 한개 도에서 기악종목이 둘씩은 올라갈수 없으니 그중에서 하나는 미끄러질거라고들 했다. 교양원들은 물론 학부형들까지도 모두들 단단히 결심을 하고 맞서자고 버르었던 것이다.

그럴수 없지. 1등을 양보할수는 없어.

《곰급전표》가 손에서 금방 빠져나가기라도 하듯 얼른 주머니에 넣은 순정은 침착하게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태연히 눈길을 떨구고 무릎우에 촛촛히 일어선 치마주름을 세우기도 하고 펴기도 했다.

무엇인가 물을듯말듯하던 지도원은 눈길을 돌려 처녀에게 긴 설명을 하였는데 여전히 처녀는 머리를 수인채 구두코로 마루바닥을 각작거릴뿐이었다.

순정은 시계를 보았다. 갑자기 그의 눈이 휘둥그래지었다. 시계는 여전히 열시였다. 순정은 다급히 시계를 귀에 가져갔다. 이상스레도 쟁쟁하던 초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아침에 뒤설레던 나머지 시계태엽감기를 깜빡있었던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열두시를 알리는 고동이 울기 시작했다.

순정의 애모쁜 마음에 부채질을 해주듯 렬차의 긴 기적이 여기까지 들려왔다. 것처럼 기다리던 어린것과의 상봉은 물거품이 되었다. 아쉬웠으나 달리 할수도 없었다. 역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차에서 내린 유치원아이들이 발에 흙 한점 묻을세라 아동궁전빠스가 대기하고있다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서둘러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던 순정은 문이 열리는바람에 얼핏 눈을 주었다.

먼저 흰 안경테가 눈에 띄었다. 기다리던 부장이었다. 부장의 얼굴에는 희색이 넘쳤다.

《지도원동무, 악기들이 창고가 터지게 들어왔소.》

《아, 그렇게 빨리... 마침 됐습니다. 클라리네트도 있겠지요?》

《물론이요.》

부장을 기다리던 여러 사람들이 줄레줄레 일어섰다.

순정도 얼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힘들지 않게 먼저 결재를 받았다.

《피꿀새》는 언제쯤이면 되느냐고 부장에게 묻는 처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출입문을 나서 창고로 향했다.

× ×

판매부를 나온 순정은 발길이 어디에 놓이는지 모르게 허둥거렸다. 어서 남편과 함께 철웅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니 좁전에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아쉽던것이 어느결에 사라지고 마음이 이상스레 뒤섰었다. 어느덧 체신소앞에 이른 순정은 철웅이패들이 정말 도착했는지 알고싶어 전화를 하려고 문을 열려다 주춤 섰다. 《전화》라고 쓴 창유리앞에 눈에 익은 모습이 보였기때문다.

진한 밤색바지, 연한 갈색의 반듯거리는 구두, 물결쳐간 고수머리...

틀림없는 남편이었다. 순정의 생각을 긍정이라도 하듯 남편의 석신했던 청이 문밖에까지 들렸다.

《예 예.서관관리원동무입니다? 예?... 나간지 오래 뻘뻘구요? 알았습니다... 예예, 수고하시오...》

이렇게도 뜻밖에 그리고 꼭 만나야 할 순간에 남편과 우연히 맞닥들인것이 반가웠다. 송수화기를 놓은 남편이 출입구쪽으로 걸어나오자 순정은 얼결에 몸을 피해 우체통과 가지런히 섰다.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은 사방을 두리번거리었다.

《저...》

순정은 몇걸음 다가가다 말고 다시 섰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것만 같이 공연히 마음이 불안해났다.

《철웅이 아버지!》

남편은 선뜻 뒤를 돌아보았다.

《아, 마침 당신이여구만. 찾아가려던길이었소. 여보!》

남편은 터벅터벅 순정에게로 다가왔다.

《아이, 큰소리로...》

순정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여보, 애들이 도착했다요.》

《저도 그 일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좋소. 우린 그 애들을 낳았을뿐이지 그 애가 이렇게 자라도록 부모로서 한일이 별로 없구려. 나라가 그 애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니... 여보, 저녁에 구경가지요.》

《예?》

순정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함께 가지요. 그래서 금방서관에 전화를...》

《저... 지금 곧 가서 만났으면 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던길이지요? 핫하...》

남편은 웃었다. 넓은 턱볼 같이 수북한 그의 눈썹이 더 많아보였다.

《만나는것도 나쁠게야 없지...》

순정은 마음이 조금해나는데로 어서 남편이 궁전쪽으로 발길을 돌려주기만을 바랐다.

《그럼, 어서...》

남편은 옆으로 두어걸음 옮기더니 앞가슴에 두손을 짚끼고 어딘가 먼곳을 바라보았다. 순정의 머리우 가로수가지에서 갑자기 새들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어미를 찾는 아기새들의 울음소리였다.

《우리만 철웅이를 만나면 다른 애들이 섭섭치않을까? 별로 그에게 도움줄 일도 없는데...》

《예?》

순정은 눈을 크게 떴다. 검은 눈동자에 숨길수 없는 의혹이 가득 서렸다.

《그만두지요. 저녁에 가서 보면 되지...》

순정은 말문이 막혔다. 얼핏 시계를 보던 남편은 저녁 7시에 궁전앞에 있겠노라며 바삐 순정의 곁을 물러났다.

《...?!》

삼시에 이름할수 없는 공허가 순정을 휩쌌다. 그처럼 철웅을 사랑하던 남편이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한 그다. 그는 남편을 믿었었다. 꼭 함께 가리라고, 그것도 먼저 가자 할줄로 믿었었다. 순정은 노여웠다. 무엇인가 배반당한것만 같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는다. 저만치에서 사람들의 물결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모습이 뿌연게 흐려보였다. 나무가지 새둥지로 모이를 가지고 온 엄지새들이 후룩 후룩 날아들었다. 삼시에 울음소리들이 그쳤다. 어미새들이 새끼들에게 연방 모이를 주어섬긴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정의 눈에 이슬이 피었다. 봄날처럼 훈훈하던 마음에 눈석이로 터갈리운 얼음장들이 내리는것 같았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알수 없는 힘이 등을 떠미는대로 저도모르게 체신소문을 열고 돌아섰다. 전화를 신청하자 곧 궁전접수가 나왔다. 마침 철웅의 담당교양원이 전화를 받았다.

《아이, 철웅이 어머니시군요. 네, 철웅이랑 모두 건강해요. 악기는 차차 보충하기로 했어요. 연습을 하면서... 네... 그런데 어디 아프세요?... 호호... 아버지도 오시겠지요?》

《아니, 네... 저... 그저...》

《호호, 부러워요. 아주 리상적이에요. 예, 기다리겠어요. 학생서관으로 오세요. 철웅이랑 알면 막 좋아서 떨거예요...》

순정은 송수화기를 놓고 문을 나섰다. 천천히 걸어 학생서관으로 향한 길에 들어섰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경치좋은 바다가에 새로 세운 학생서관으로 가자면 해안거리를 에돌아가야 했다. 세거리를 지나서자 시원스런 바다가 눈앞에 확 열렸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다. 어려서부터 순정이들을 품어주고 먹여주고 노래를 배워준 바다였다. 순정은 여기서 수영을 배웠고 어느 행가는 해상체육경기에 물스키 선수로 뽐히기까지 했었다. 그때 경기에서 공화국 신기록을 수립하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기술이 높다는 평을 받았고 도일보의 제4면에 집체사진까지 실렸었다.

즐거운 추억이었다. 단발머리 그 시절에는 너무도 멀리 있는 것만 같던 《어머니》라는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허거운 웃음이 나왔다. 그때처럼 꿈, 바다, 랑만의 소용돌이속에 묻혀들기보다 《아이》, 《남편》에 저도모르게 얹매여 생활의 야릇한 추억들이 멀리 물러가고 치녀때는 것처럼 스스로도 아름답던 환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이 그는 놀라웠다. 잊을 수 없는 그 바다, 그 추억을 안고 끝없이 걷고만 싶었다. 그이가 정말 달라졌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설레 설레 머리를 저었다. 갈마드는 그 어떤 환영을 털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검질기게 달라붙는 그 환영의 버팀줄을 끊으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러나 마음은 이내 《철웅이》라는 커다란 힘에 서로 이끌려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새삼스레 자기는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단발머리 시절에 국어책에서 배운 《모성애》라는 말이 생각났다.

내가 지금 지나친 《모성애》에 빠져서 이럴까? 참, 《부성애》라는 말은 없다는 것도 생각되었다.

바다가로 다가간 순정은 백사장으로 내려섰다.

파도에 밀린 잔물결이 발치에 갈마들며 놀리듯 어리광쳤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깊숙이 찍혀진 발자국이 파도에 묻혀 어느결에 반반해지곤 했다. 비릿한 물냄새가 폐부를 채웠다. 마음이 상쾌해졌다. 흰갈기를 날리며 기슭을 향해서 금방 곤두박질듯 달려오던 파도몽치들이 웬일인지 기슭에 채 닿지 못하고는 허리를 몽텅 잘리운 채 다른 파도에 몽치에 묻혀버리곤 했다. 순정의 눈앞에 억센 숨결로 태동하는 바다만은 예나제나 변함을 모르는 것 같았다.

역시 바다는 단발머리 그 시절처럼 순정의 마음을 조용히 달랠 줄도 알았다.

× ×

학생려관이 다가올수록 순정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벌써 경쾌한 경음악의 선율이 귀전을 두드리는 듯했다. 어린것을 데리러 저녁마다 유치원에 갈 때면 늘 들어온 소리여서 이젠 박자까지도 몸에 밴 것이었다. 그러나 러관은 생각과는 달리 조용했다. 들까불며 소리치며 악기들을 요란스레 두드려대는 어린것들의 즐거운 소음이 쏟아져 나와야 할 창문들이 고요한 경적을 안고 열려진 채 찾아오는 낮선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순정은 울긋불긋한 공원을 가로질러 곧추 현관으로 들어섰다. 알른알른한 대리석을 깔아 무엇이든 거울처럼 마주 비치는 복도에는 아이들이 언제나 앉아눌 수 있게

안락의자들이 주렁한데 하얀 썩우개에 무늬 돌친 갖가지 꽃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현관문과 마주선 뒤문도 온통 유리로 되어 있었다. 유리창 저편으로 굽히는 바다가 보이고 흰갈매기들이 유유히 날아예고 있었다.

좌-파도소리, 끼룩끼룩 갈매기의 노래, 금방 현관으로 달려들어올 듯 문밖에서 춤추는 푸른 물결... 순정은 어린이들을 위해 갖추어진 너무나도 우아한 정경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봉어무늬가 새겨진 파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야!》하고 환성을 올리던 순정은 《여보시오, 어디 가시우?》하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흰 머리칼이 들성들성 섞인 머리를 뒤로 높지 않게 쪽찌올린 중년을 벗어난 부인이 접수구 안쪽책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수?》

《애를 만나려구요. 철웅이라고 합니다. 자군 유치원경음악단이예요.》

《오늘 낮차에 온 애들이군.》

《네, 그래요!》

그러나 접수원녀인은 접수대장을 소리나게 덮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오침시간이 돼서 접수를 하려거든 20분 후에 오시오...》

(이십분?!)

순정은 우스워났다.

《아이참, 어머니두... 철웅이가 우리 아들이예요...》

《아들이 여기 왔대구?》

녀인은 반색을 하며 창구로 머리를 내밀다가 움츠러들었다.

틀어올린 머리칼이 옷창턱에 걸렸던 것이다.

《그래, 아들이 뭘 잘하나?》

《저... 잘하긴... 그저 바이올린수예요...》

《저런... 아들을 잘 뵈구만...》

녀인은 진정으로 기쁜 듯 하얀 이발을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순정은 녀인이 곧 들여보내주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며 명령을 기다리는 전사처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헌데, 이거 정말 미안하구만. 애들의 오침시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네...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구...》

너인은 사정해도 소용이 없다는듯 순정의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금 있다가 와보라구…》

순정의 바로 코앞에서 덜컥하고 띄창이 닫기였다.
《어머니, 저녁차로 내려가야 합니다. 출장왔다가 잠깐 만나려는데요.》

《글쎄 안되오.》

너인은 미간에 주름발을 세우며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순정은 안타까웠다. 너인이 야속스러웠다. 그는 사정을 해볼셈하고 접수실로 들어갔다.

《저…》

그러는데 밖에서 처녀애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야, 나비! 나비!》

《에구, 저 버릇이라구야… 일요일이라구 따라나서더니…》

너인은 누구에게라없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애, 조용하지 못할가! 지금 우리 애들이 자!》

그러자 나비를 찾던 목소리가 잦아든듯 감감했다.

《어머니, 꼭 만나야겠는데요…》

순정을 바라보던 너인의 눈에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형용 못할 안타까움의 흔적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자식들 둔 너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이 순간 접수원너인의 무쇠덩이 같은 마음을 흔들어주었는지도 모른다.

《할머니, 나 나비!》

다시 쟁쟁한 목소리가 들렸다.

《애, 조용 못할가. 지금 우리 애들이 자…》

너인은 방금 출연을 앞둔 녀배우처럼 심중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더니 뚱뚱한 몸을 일으켰다.

《올라가보시우. 오침이 채 안끝났으면 기다려야 하우다.》

심드렁하게 몇마디 주의사항을 이른 그는 창걸으로 다가가았더니 천천히 부채를 흔들었다.

순정이 바빠 계단을 오르는데 토닥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야-야, 철웅이 엄마 온다!》

얼결에 순정은 뒤를 돌아보았다.

순정은 한마을애들을 알아보고 반가운 나머지 그들을 덤석 품에 안아올렸다.

《너희들은 오침 안하니?》

《오침했어요.》

《벌써?!》

《많이 잤는데 두 할머니 나비 잡으려 못나가게 해…》

《그래 쫓겨오느냐? 호호… 나두 혼났다. 할머니 무섭지?》

《힝, 할머니 좋아! 철웅이 아까 의사선생님이 이발 뽑아주니까 엉엉 우는거 업어줬다!…》

철이는 제법 얼굴을 찡그리며 우는 시늉까지 했다.

《뭐?… 접수원할머니가?》

순정은 가슴이 몽클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너인의 모습은 이미 계단 굽인돌이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

《철아! 우리 철웅이한테 알려주자!》

어느결에 순정의 품에서 훌렁 빠져내린 애들은 주먹같은 발들을 엇바꾸며 다급히 계단을 올랐다.

오침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순정은 《지군 경음악단》이라고 표족을 단 문앞에 다가섰다. 그가 막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녀교원의 귀익은 목소리라 들려왔다.

《착한 어린이 여러분!》

《네-엿!》

《빨리빨리 고운 옷 입자요. 오늘 오후에는 땡땡 타고 영웅산 견학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 산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한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바다로 달려드는 미제원썹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셨다고 영웅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야!》

아이들은 짹자그르 손뼉을 쳤다.

순정은 수십의 환성속에서도 철웅의 목소리를 끝가려들었다. 철웅은 문가에 서있는듯했다. 순정은 어린것을 금방 품어줄 생각에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철웅이는 호실에 남아서 어머니와 이야기하세요.》

잠시 안에서는 기척이 없다. 이어 철웅의 불부은 소리가 들리었다.

《싫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철웅이를 찾아오시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구요?…》

《힝, 싫어요. 갈래요! 갈래요!》

어린것은 떼를 썼다.

《?!…》

순정은 선자리에 굳어졌다. 얼마나 보고싶던 아
들일가? 그 애와 잠간 헤어져도 여러날처럼 여겨지
는 순정이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의 말일지라도
섭섭하기 그지 없었다.

이때 계단을 밟는 조용한 발자국소리들이 들렸다.

살그락살그락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다.

순정은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계단을 에도는
하얀 위생모가 먼저 보이더니 눈부시게 흰 위생복
에 뺨뺨이 풀밭을 세워입은 두 여인이 올라왔다. 한
여인은 적십자표가 붙은 파란 빛갈의 가방을 어깨
에 메었고 다른 여인은 한쪽 귀로 흰김이 불리는
남비를 들었다. 남비속의것이 무엇인지 구수한 냄
새가 풍겼다.

《선생님, 아까 이발을 뽑는 애는 이상이 없겠지
요?》

남비를 든 여인의 말이다.

《일없어요. 귀엽게 생긴 녀석인데 어찌도 응석받
이인지… 호호… 집계를 대기도전에 엄살을 쓰는통
에…》

위생가방을 멘 여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밥도 안먹고 투정을 부렸다우. 누가 생이발을
훔쳐가졌으면 큰일났겠수다. 허허허… 그래서 닭고
기죽을 끓여오느라구… 후-뜨겁다…》

《잘했어요. 얼마나 귀중한 애들이예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이라고 하신 애들인데…》

순정은 저도모르게 문앞에서 물러났다. 무엇때문
에 이 문앞에 서있는 가 하는 새삼스런 생각이 들
었다. 철옹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이제
할일조차도 별로 없지 않는가? 어머니인 그가 미처
관심하지 못한 일들도 아버지수령님의 파사로운 해
빛아래 온 나라가 이같이 보살핀다. 그는 어머니로
서, 그러한 아들을 사랑한다는 어머니로서 이 순간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또 무엇이 아들에게 필요하
지 몰라 머리를 숙였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때
문에 그 애를 만나려고 하는가? 그 애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온밤 온하루를 가슴 태웠을까? 어머
니의 사랑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는 얼굴이 뜨거웠다. 제가 안고온것이 과연 《사
랑》이라면 저들의 불같은 마음들에는 과연 어떤
엄청난 표현을 붙여야 하겠는가?

쫓기듯이 서둘러 복도구석으로 간 그는 열어젖힌
창문을 마주 향해 서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시원한
해풍이 목을 간지럽혔다.

순정의 눈앞에 해빛이 자글거리는 포석도우로 승
용차들과 버스들, 화물자동차들이 동체를 번쩍이며
줄지어 달리고있었다. 빨간 빛갈의 몸통이에 두줄
로 된 흰 띠를 두른 뺨스가 정류소에 와서 멎었다.
덜컹 문이 열리며 머리 흰 할머니가 먼저 내렸다.
팔에 풀빛완장을 두른 차장처녀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내리웠다. 그러자 지나가던 녀학생이 닥큼 그
짐을 받아들더니 할머니와 나란히 걸어갔다. 다음

에는 아이를 안은 여인이 내렸다. 그 뒤를 따라 내
리는 청년의 손잡이 여인의것인듯싶다. 청년을 기
다려선 여인이 짐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청년은 오
히려 여인을 앞세우며 어서 가자고 한다. 사양하던
여인은 끝내 지고만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빨간 넥
타이를 맨 소년단원애들이 그 짐을 들겠다고 저마
끔 때를 쓴다. 갑자기 정류소는 웃음판이 된다. 뺨
스안의 사람들까지도 차창으로 목을 빼들고 호호호
하 떠들썩하다.

할머니, 녀학생, 아이 안은 여인, 청년, 소년단원
들… 그들은 모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안다면
뺨스에서 내린 그 순간부터였을것이다. 그러나 순
정의 시야에 가득찬 그 모습들은 마치도 오랜 세월
한가마에서 밥을 끓이며 정든 한집안식구처럼 보인
다.

순정은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꼭 들어찬것만 같
은 온 도시의 정경을 통채로 눈에 담을듯 바라보고
또 보았다. 공원속에 들어앉은 화려한 아빠트들, 저
기 공장굴뚝에서 치솟는 흰 연기, 바다바람에 춤추
는 가로수들, 만선기 날리며 돌아오는 고기배의 긴
고동소리… 조잘대며 웃어대며 검푸른 바다로 뛰어
드는 조무래기들…

늘 보아오던 이 레사로운 정경은 뒤설레는 순정
의 마음속에 사회주의 우리 제도라는 거창한 대화
폭이 되어 저 바다의 물결처럼 출렁이며 춤을 추는
것이였다. 그 모든것이 너무나도 가슴뜨겁게 그리
고 새삼스레 느껴지는데 순정은 놀랐다. 문득 남편
의 말이 귀전을 때렸다.

(나라가 애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는군!)

우리 애, 다른 애들… 기악합주와 경음악…

언젠가 남편이 사온 장난감을 아들이 벌게 그리
안고 나가던 철옹을 보고 다른 애들이 땅가프릴가
봐 걱정하던 일이 생각났다…

순정은 마음속에 조용히 머리 드는 어떤 충격때
문에 눈앞에 무수한 불꽃 같은것들이 세차게 튀겨
오름을 느꼈다. 방금전 《우리 애기》들의 잠을 지
키던 여인의 모습도 그 불꽃속에 합성이 된다. 거기
에는 남편의 모습도 있다.

눈섭가장자리에 기미가 있는 영육이의 모습도…

뺨스에서 내린 초면이면서도 다정한 사람들… 어
머니도 생각 못한 죽크릇을 들고 식을세라 달려가
는 사람들… 순정은 마음속에 튀겨오르는 그 무수
한 불꽃들이 한데 모아지며 굵은 불줄기가 이루어
지는것을 느꼈다. 삼시에 눈앞에 뿌연게 흐려오더
니 불편으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었다.

(그래, 그 애들에겐 어딜 가나 살뜰한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구나. 아니, 온 조국이, 온 나라가 바로 그
애들의 어머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인 나는…)

흘러간 추억들이 환영처럼 눈앞에 일른거린다.
어린것이 세상에 첫울음을 터뜨리던 날 아버지보다
먼저 주사약병을 들고 달려오던 의사선생님들. 앓
지도 않는 애에게 하루에도 그 몇번씩 청진기를 가

저다대던 고마운 사람들, 온 마을이 어린애를 둘러싸고 희희락락거리던 그 밤 뒤늦게야 돌아온 남편은 방구석에서 얼굴을 붉혔었지. 그 다음 밝고 화려한 꽃침대, 꽃이불, 유치원의 미끄럼대, 비행기놀이터... 은금빛으로 번쩍이는 악기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새참들...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 애가 받아안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인 순정이가 준 것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온 나라가 주었다. 우리 나라가 주었다!!

(세상에 더없이 좋은 나라! 우리 나라!! 한가정!!...)

순정은 부끄러워났다. 어쩌면 자기가 오직 《나》라는 심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는 것만 같았다. 자책으로 몸부림을 치고 싶었다. 그제야 그는 남편의 처사가 옳았음을 느꼈다. 그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황히 계단을 내렸다.

《아니? 벌써 만났소?》

접수원녀인의 목소리였다. 어느새 그는 한달음에 아래층까지 내려왔던 것이다.

《아이, 어머니, 일없어요. 저... 이거나 좀 전해주세요...》

순정은 가방에서 꽃보자기에 싸놓은 것을 꺼냈다.

《아니? 왜 만나지 않구? ... 노했나?》

그제야 녀인은 얼굴에 웃음을 그리는데 눈가장자리에 촌촌히 모여선 주름발들이 한동안 굳어졌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정은 녀인이 참으로 인정있고 너그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어머님, 뭐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것을 꼭 줘...》

《새애기네 집 애 이름이 철웅이라구 했지?》

《네? 아니, 어머니, 철웅이가 아니예요. 우리 애들에게 노파주세요...》

순정은 《우리 애들》이라는 말이 이상스레 복도를 크게 울리는 바람에 오히려 면구스러웠다.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참, 별일도 다 있지. 쯔쯔...》

순정의 뒤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던 녀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가볍게 혀를 털었다.

순정이 마당으로 나섰을 때였다. 종전에 할머니에게 나비를 잡아달라던 처녀애가 현관 그늘에서 서서 잡자리춤을 추고 있었다.

.....

아름다운 우리 나라 모두 한가정
고마우신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넓고넓은 사랑의 품속에 안겨
꽃봉오리 우리모두 《왕》이랍니다

처녀애는 팔을 꼬부렸다퍼기도 하고 랑손을 짹짹 소리나게 마주치다가는 어깨우에 넉넉 앉기도 하면서 맑은 청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래 《왕》이다. 너희들이 《왕》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단다!! ...)

순정은 눈물어린 눈으로 어린것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자꾸만 목이 메고 눈앞이 흐려지었다.

순정은 얼른 마당을 벗어나고 싶어 달음박질하듯 걸었다. 그가 막 모서리를 둥글게 죽인 꽃밭을 에두는데 노란 가방이 눈에 띄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악기공장쪽에서 내려오는 처녀였다. 영옥이었다. 처녀는 바람에 불리는 머리칼을 두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추슬러올리며 걸음을 옮기는데 걸음발이 께 무거워보였다.

순정은 처녀를 마주한 순간 방금 궁전에서 본 《모시 현악합주단》 간판과 함께 《피콜레》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때문이였구나!)

말할 수 없는 자책이 성급히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래 모두가 1등을 해야 해. 이 좋은 나라에서 한 식솔끼리 앞서고 뒤선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순정은 영옥을 소리쳐 불렀다. 처녀는 놀란 눈으로 사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순정을 알아보며 반색을 했다.

《아이, 어디 가셨었어요? ...》

《걱정 많았지?! 내가 잘못했어.》

《...?!》

《영옥이, 가자요!》

《가다니? 어디루요?》

《악기공장 판매부루...》

《거긴 뭇하러... 빨리 내려가서 대책을 세워야 해요.》

《글쎄 맘 놓으래두. 내가 주겠어.》

《주다니요? 무엇을?》

처녀의 울퉁한 눈망울에 이름할 수 없는 기대와 불안이 한데 엮여돌았다.

《〈피콜레〉를...》

《예?! 무엇을요?!》

처녀는 놀랐다. 그 다음은 짱충 발을 모두었다.

《정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일가?!》

《?!》

영옥은 모를 일이라는 듯 머리를 좌우로 까딱하더니 말없이 순정을 따라섰다.

순정은 대답 없는 영옥이 쪽을 바라보았다. 처녀의 맑은 눈동자가 새물새물 웃고 있었다. 웃입술에 숨겨져 여적 보이지 않던 덧이가 살짝 드러나 해빛에 반짝했다. 비방울만한 기미도 눈썹속에 찾아들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순정의 걸음은 빠르고 가벼웠다.

(우리 나라! 한가정!)

순정은 가슴속에 이랑높은 파도를 일으키며 머리를 밀러와 쿵쿵 흥벽을 두드리는 어떤 거창한 생각에 문힌채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언니! 같이 가요!!》

뒤에서 때가닥거리는 구두발소리가 잦은가락으로 들렸다.

탄부들의 인사 외 3 편

리광근

시원한 아침바람을 몰아안고
막장에 들어서는 젊은 탄부들
오늘도 소대장이 밤교대 친구들에게
먼저 한마디 새 소식을 전한다
-밖에서는 함박눈이 별판을 덮고있네

결결한 쇠동발조작공 그 소식 들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건네는 대답
-가슴이 설레이네
땅우에는 풍년눈이 내리고
막장에는 세발과의 석탄이 쏟아지고...

또하나 기쁨으로 전해지는 소식
《새 신랑초소장》의 안해의 사진이
운탄직장 영예게시판에 큼직이 나붙었다고,
밤교대소대원들이 환성을 울리며
안팎의 경사라고 떠들썩인다
-남편은 혁신자로 숙보에 나고
안해는 밤사이에 사진이 나고

좋다, 즐거운 교대시간
아침에 저녁에 깊은 한밤에
갱박과 갱안의 새 소식을
서로의 인사로 주고받으며
탄부들의 막장생활은 흐르고 흘러

언제나 새 소식으로 들끓는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탄광에 오셨다고
영광의 그 소식을 기다리며
뜨겁게 오고가는 탄부들의 마음
깊어가는 갱도와 함께 나날이 깊어져

좋다, 유쾌한 탄부들의 인사
탄발을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땅속에서 합쳐지는 새 소식에
조국은 새 령마루에 큰 걸음 옮기고
땅우에는 새생활이 곱절로 피어난다

천길땅속에 콘베아 돈다

에헤라 스리슬
천길땅속에 콘베아 돈다

오른쪽 왼쪽 두 굴길에서
벨트가 휘도록 석탄을 싣고
하나의 탄주머니로
승벽내기 스리슬슬

끝없는 흐름따라
탄부들의 마음도 하나로 흘러
뜻깊은 이해의 그 첫달에
중대별경쟁을 서로 무을 때

저마다 앞선다고
앞다투며 토론하던
1 중대의 탄캐기공
2 중대의 콘베아운전공

새 7 개년 앞날의 꿈을 안고
오고가는 경쟁속에
생산은 부쩍부쩍
마음속엔 정이 들어

탄캐기공 그 청년의 손길을 싣고

운전공 그 처녀의 마음을 싣고
에헤라 번쩍번쩍 두 굴길에서
충성의 검은금 흘러흐른다

그 언제 보아도 미더운 그들
어찌다 같은 교대로 서로 만나면
너나없이 좋은 경험 주고받으며
출근길 퇴근길 다정히 걸어

익살군 친구들의 눈에 띄우면
건네는 룡담에 얼굴 붉히며

다하지 못한 말 가슴에 품고
말없이 서운하게 헤어지고

하는 일 말은 일터 모두 달라도
뜨겁게 오고가는 그들의 마음
두 굴길 석탄의 흐름을 따라
하나의 탄주머니에 하나로 흘러들어

에헤라 땅속에 콘베아 돈다
에헤라 땅우에
청춘들의 꿈으로 석탄산이 솟는다

아버지와 아들

처음으로 막장에 들어선 아들이
어른이 다 된듯 못내 대견하여
이제 말은 일을 걸싸게 해제길
아들의 모습을 가까이 보게 되어
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기쁨만이 한가득, 잠시 말이 없었다
천천히 둘러보는 막장이
어찌면 전에없이 정다워지고
소대원들 잡아주는 축하의 손길에
아버지된 자랑이 뿌듯이 차올랐다

미더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가다려 품어두었던 그 말
탄부의 성미대로 단 한마디
-여기가 너의 일터다!
웅글은 아버지의 그 목소리에
아들의 가슴은 몽클하였다

그 옛세월 오소리굴 막장에
애어린 아버지를 들여앉힌 할아버지
죽음의 일터에서 대를 물려야 할
원통한 가슴에 피눈물을 삼켰다는
할아버지의 격한 모습이 보여오는듯

아버지의 눈빛도 이슬에 젖어
조용히 막장을 더듬었다
형광등불빛이 탄벽에 별빛처럼 뿌려지고
채탄기무쇠톱날에 석탄이 폭포처럼 내렸다
집채같은 쇠동발이 천정을 받들며 움직이었다

우람한 기계들의 거창한 동음
간간이 울려오는 탄부들의 웃음소리
조국의 천길땅속깊이에 꽃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가슴후더워
아버지의 평범한 말이 되새겨졌다

웅심깊은 믿음의 한마디 말
얼마나 많은 뜻으로 들려오는가
그 옛날엔 눈물겨웠던 죽음의 일터
오늘은 가장 보람찬 일터로
아버지의 가르침은 힘있게 울려왔다
-여기가 나의 일터다!

순간, 위엄있는 그 목소리
온 막장에 메아리치는듯
아들의 가슴은 다시금 몽클하였다
그는 행복한 웃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조국은 깊고깊은 자기의 한품에
두세대의 탄부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내 걸어가는 갯도길을...

내 나서 처음

정든 고향을 떠나

조국을 위해 첫걸음 옮긴곳은

풀쉴이 우거진 한여름의 초소길이었다

철갑모아래로 흐르는 땀을 씻으며

총창에 불리우는 성에를 닦으며

내 걷고걸은 그 초소길에

떠나온 고향길이 언제나 따라서며

조국이 귀중함을 말없이 깨우쳐주었다

어린 시절 즐겁게 눈사람을 빚으며

철없이 뛰놀던 고향집의 낮익은 뜨락,

물장난을 하며 오가던 학교길의 도랑물소리

병사의 이 가슴에 정답게 안겨주며

아버이수령님품에 자란 아들이

걸어야 할 청춘의 첫걸음을 익혀주었다

오,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품을 떠나

내 삶의 첫걸음이 시작된곳은

잊지 못할 병사시절의 그 초소길,

지금은 내 그 길을 떠나

조국을 위한 첫 로동의 갯도길을 걷는다

쏟아지는 석수가 안전모를 두드릴 때면

비내리는 고향길처럼 마음속에 다가오는

잊지 못할 그 초소길,

퍼붓는 소낙비도 즐겁던 그 길에서

우람하게 일어선 이 탄전을 안고온것인가

가슴 한껏 궁지에 차오른다

아침의 노을속에 석탄산들이 키를 솟구고

그침없이 오가는 끝이 아득한 탄차를

별판에 일떠선 웅장한 수직갱의 철탑들

오, 초소길에 바쳐진 병사의 나날은

이 땅에 거창한 생활로 펼쳐졌나니

아, 병사시절의 초소길에 이어

새로이 걷고걸은 오늘의 갯도길

땅우에 꽃피는 행복한 삶을 안고

천길 땅속을 기쁨에 넘쳐 걸어간다

번영하는 조국의 그 앞날에

영원한 청춘의 삶을 이어가며-

발파소리 울리는 고향의 밤

정동찬

몇몇해만인가

초소에서 돌아온 고향의 밤

탄광마을의 밤은 깊어가는데

고향집 벽을 흔들고

이 가슴 흔들여주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언제나 고향의 노래처럼

그립던 발파소리

언제나 고향마을 소식처럼

듣고싶던 발파소리

초소로 떠나갈 때는
가는 길에
어서 가라고 잘 가라고 울려주더니
돌아온 이 밤에는
기다렸다고 반갑다고
이 가슴 울려주누나

지금쯤 막장에 계실 아버지
또 하루 탄벽을 허물어낸 기쁨을 담아
이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발파소리 정다운
내 고향의 밤

그 어느 늦은 밤이던가
은은히 들려오는 발파소리에
문득 수저를 멈추시던 아버지
마지막 발파소리 멀어질 때까지
마음속에 그 소리 외우며 웃음짓던
그 얼굴 떠올라라

길고긴 나날
우리 아버지 쌓아올린 그 석탄더미
내 고향에서 조국땅 한끝까지
얼마나 많이 실려갔던가
멈출줄 모르는 강물의 흐름처럼
밤에도 새벽녘에도
화차의 긴 대렬은 공장지구로 떠나갔거니

소년단야영의 푸른 바다길에
울려오는 기적소리 들을 때도
나는 소리치고싶었네
얘들아, 우리 아버지 캐낸 석탄으로
저 열차들이 달린다고

내 병사시절 초소의 푸른 산발너머
솟아오르는 공장굴뚝의 흰연기를 볼 때도
나는 소리치고싶었네
우리 아버지 캐낸 석탄으로
창조의 노을속에 연기는 피어오른다고

아침마다
길가는 사람들 무심히 걸어가도
새벽길 흔드는 발파소리에

아버지와 나란히 웃음지으며
그 손에 이끌려 학교에 갈 때
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어느덧 내 자라나
중대 교양실 창가에서
입당청원서를 쓰던 그날 밤
아버지-로동자
아버지-공훈탄부라 적을 때
내 얼마나 긍지로왔던가
미더운 계급의 아들임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생을 살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증 받아들고
목매여 서있던 아버지
버력에 깔리고 탄차에 찢기던
그 옛날 생각하며
더더욱 눈물에 젖던 어머니
그날의 모습 떠올라 잠 못드는
고향의 밤
그 어느 막장에선가
또한번 발파소리 울려오는데

아, 땅우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시간에
그 누구도 알아못본 길에서
조국땅 깊이깊이 발파소리 울리고 울려
내 나라 수송전선에 기적소리 높고
내 나라 주체공업의 숨결은 거세차거니

사랑하는 내 고향
탄광마을의 밤이여
계급의 의지를 담아 울려오는 발파소리에
이 아들은 대답하노라
나를 기다렸노라고 불러주는 발파소리에
피끓는 심장으로 대답하노라

살아 한생을 탄부의 이름 지녀
지하전선 돌파구의 저 발파소리로
수령님께 기쁨드릴 충성의 노래 부르리라
발파소리 발파소리
한생을 부르며 갈
아, 나의 노래여

조국의 말아들로

김정철

깡박에 나서도 환희에 넘친 얼굴
깡안에 들어가도 환희에 넘친 얼굴
아버이수령님 지난밤도 밤깊어
친히 전화로
우리 탄광을 찾아주시었다는 이야기

가득가득 석탄을 퍼시고
떠나가는 탄차들을 바래우며
생각은 가슴에 젖어오고
돌아보면 한 교대동무들
빛나는 눈빛들에 결심은 타오르고

이해의 계획을 빛나게 넘치자면
동무들이 다시한번 뛰어야 하겠다고
아, 새 7 개년이 시작되던 첫해에도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해의 마지막 돌격전에서도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신 수령님
믿음이면 이보다 더한 믿음이
영광이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또 있으랴

언제나 이 믿음을 안고 살기에
가로등 밝은 유보도와
들꽃향기 풍기는 출근길을 뒤에 두고
한말과 더 굴진공은 말없이 암벽을 밀어가고
쏟아지는 석수속에서도
동발공의 웃음소리 그렇듯 높을수 있었어라

이 믿음을 안고
채탄기는 세차게 탄층을 때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지심 깊이에서도
티없는 기대에 제 얼굴을 비쳐보며
압축기공쳐너 불우물 짓는 막장이여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의 그 첫자리에 서있고싶어
조국땅 하많은 일터들을 두고
방선의 제대병들 달려오는 여기

탄광 목장이며 바다가 휴양소
사랑이면 가장 크나큰 사랑을
우리 탄부들에게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품속에서
사랑도 첫자리
믿음도 첫자리
그 첫자리를 탄부 우리는 지켜섰거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날이 이 탄층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보람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길우에
충성의 세찬 불길로 타번지노라

오, 어버이수령님 세워주신
믿음의 첫자리를
언제나 위훈의 첫자리로 빛내이며
조국의 말아들로
탄부 우리는 가노라
탄부 우리는 가고가리라

새해 첫 아침에

아침이다.

우리를 찬란히 비치는 밝은 태양이 행복넘치는 아빠트창문마다에 반가이 웃는 새해의 첫 아침이다.

맞고 보낸 나날이 무수하고 해를 거듭하여 수십 번. 설날의 아침도 많고 많았지만 유난히 밝고 따사로우며 환희로운 저 태양.

동해의 푸른 물결 박차고 백두의 눈덮인 령봉우에 높이 솟아올라 조선의 아침을 선포한 이해의 장엄한 첫 태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갑게 찾아왔다.

새벽들이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아버지원수님께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옷단장, 몸단장을 서두른다. 늦잠꾸러기 막내녀석도 벌써 멀끔히 세수를 하고 제먼저 옷을 입혀달라고 야단이다.

《아버지, 내가 먼저 인사드릴래.》하며 막내녀석은 옷을 입기가 바쁘게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앞에 다가가 서는것이였다.

《애들아, 우리 다같이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 새해인사를 드리자.》

우리 가정은 이렇게 상쾌하고 명랑한 첫 아침을 맞이했다.

거리거리에 명절의 분위기 넘치고 집집마다에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아가는 설날의 행복한 시간이 흘러간다.

첫날의 격동적인 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얼마후 우리 온 가족은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았다. 친구인 림동무가 가족들을 데리고 설날을 함께 즐기러 찾아오자 방안은 더욱 화기에 넘치는듯 했다.

우리는 커다란 감격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하였다. 자애로운 미소가 어리신 수령님의 영상을 우려러 사람들은 삼가 웃기를 여미며 마음속깊이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지난해의 성과도 가슴벅찬것이지만 제2차7개년 계획의 두번째해인 1979년의 밝은 전망이 가슴가슴을 시원히 넓혀주는것이였다.

방금 아버지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격동이 너무 커서 모두들 자리를 뜨지 못하고 즐거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내옆에 앉은 림동무는 새해에 자기가 곧 출장가게 될 안주탄광에 대하여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지난해에 새 채탄기를 시험제작하여 그곳 로동계급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평양탄광기계공장의 기계설계기사인 림동무는 올해에 아버지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직접 탄광막장에 들어가 기계의 성능을 확인해보고 보다 능률높은 채탄기로 개조하리라는것이였다.

새해의 휘황한 전망과 이룩될 성과에 대하여 흐뭇한 마음으로 헤아려보던 나는 어느덧 순서에 따라 바뀌는 텔레비존화면에 이끌리였다.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기란 언제나 감회깊은 법이다.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지난해를 더듬어보았다.

1년-한 인간의 생활에서는 비교적 길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한 나라의 력사에서는 너무도 짧은 순간이다. 하지만 지나온 1978년이 순간으로 생각되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제2차7개년계획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지난해에 해놓은 일이 너무도 많고 거창하기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루하루를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온 변혁의 1년이였으며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력사적인 1년이였다.

조국땅우에 창조의 대서사시를 수놓으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지난해 신년사를 통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려일으키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1월에 전국농업대회를 여시고 한랭전선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끄떡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만풍의 열쇠를 쥐여주시였으며 끊임없이 견고 걸으신 현지도도를 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새 면모를 갖추고 힘있는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남포와 강서, 청진과 단천, 회령, 온성, 경성, 원산과 함흥, 순천과 해주-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 전변과 기적이 따랐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의 대양주에서 온 109개 대표단과 세계 벗들의 국제적축원 속에 민족의 대경사로 진행한 공화국창건 30돐 기념축전,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 100만 수도근로자들의 장엄한 대시위... 수령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을 온 세상에 떨친 감격의 나날들이 떠오른다.

주체조국의 위용과 번영을 두고, 수령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 인민을 두고 외국의 벗들은 찬란의 목소리를 합쳐 말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이다.》고,

《조선의 자라는 참으로 많고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인민의 통일과 단결은 가장 큰 자랑의 하나이다.》라고...

대경축행사에 참가했던 레바논의 한 대표는 《피압박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다.》고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였다.

격동되는 마음속에 또 안겨오는것이 있다. 실로 지난해야말로 얼마나 많은 력사적인 대기념비들이 창조된 해인가!

우리 인민은 충성의 마음을 쏟아붓고 다듬어 풍치좋은 묘향산 일각에 현대적민족건축술이 집대성되어있는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국제친선전람관을 일떠세웠고,

평양-원산사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써 아름다운 이 땅위에 또하나 주체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의 탄생을 온 세상에 자랑했다.

지하의 건설자들이 평양지하철도 제3계단공사를 훌륭히 마무리여 9월의 명절을 장식할 때 철도건설자들은 길주-혜산사이 철도전기화를 완성하여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달려 조선사람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100일전투의 불길이 충성의 가슴들에 타번져갈 때 안주탄광 태향갱 굴진 6소대의 미더운 탄부들은 《안주속도》의 포성을 높이 올렸고 대안의 영웅건설자들도 새로운 비날론속도, 《대안속도》 창조의 화불을 힘있

게 추켜들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100일전투가 치렬히 벌어질 때 수송전사들은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1978년!-새 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이 빛나게 완수된 이 해야말로 변혁과 기적의 1년, 그것은 곧 우리 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1년이였다.

나는 지난해에 거둔 모든 성과의 밑바닥에 어버이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어있음을 너무도 뜨겁게 느끼며 언젠가 한 외국의 벗이 읊은 시구절을 상기해 보았다.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세계를 비치시는 위대한 태양,

인민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그이를 노래부른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는 변하여도 세계인민들은 그이를 영원히 우러러모실것이다.

인민들이 흠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인민을 위해 만수무강하십시오.

인민을 위해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지난해의 성과들이 펼쳐지는 텔레비죤화면을 보면서 나는 림동무의 얼굴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도 한결같이 피어오르는 행복한 미소 속에 배여있는 뜨거운 마음을 읽는다.

새해 첫 아침을 맞는 우리모두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하고 큰 충격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간절히 바라는 뜨겁고도 승엄한 마음이었다.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하나의 념원으로 도도히 굽이쳐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시였고 래일의 승리와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위하여 싸우는 남녘의 혁명가들과 인민들도,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의 앞길을 내다보며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도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이 아침에 삼가 웃김을 여미며 인사를 올릴것이다.

또다시 보다 휘황한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에게는 하나의 절절한 념원이 간직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탄부의 영예

리동후

탄부가 일하는곳은 수천길 땅속이다.

그리고 자연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는 전투가 동반되는곳이다.

그러나 탄부들은 여기서 로동의 보람을 느끼며 값높은 삶의 영예와 긍지를 지니고있다.

물론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탄부라는 직업을 놓고 사람들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영예와 긍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진속을 선듯 대답할수 없는것이다.

나는 안주탄광에 나가 1년 가까이 현실체험을 하는 기간에 30년을 고스란히 일해오는 어느 한 채탄공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그러면 그가 지니고있는 아니 우리의 모든 탄부들이 심중에 깊이 지니고있는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채탄공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늘상 캐내는 석탄이 검은 색 그대로만 보이고 꼭 같은것으로만 눈에 보인다면 단 며칠을 일하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지루하고 싫증이 나서 이미 일자리를 바꾼지 오랫동안것이라는것이다.

날마다 캐내는 석탄의 색깔이 다르게, 아름답게도 보이고 때로는 웅대한것으로도 보이는 탄부의 눈!

탄층이 사태져내리며 벨트우에 실려나가는 기름진 탄이 더없이 소중한 보화로 보이는 탄부의 눈!

이런 눈으로 탄부들은 이 땅우에 펼쳐지는 새로운 모습들과 무수한 위훈을 바로 자기들이 캐내는 그 석탄에서 보는것이다.

방직공들이 갖가지 아름다운 천을 짜내는 직물폭포, 아슬아슬한 질안탐아래 사시절 쌓이고 쌓이는 비료산, 사뭇치며 쏟아지는 쇠물폭포, 벌에 실린 금나락의 물결, 훈훈한 방안에 피어나는 웃음까지도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탄부들이다.

신문과 방송이 전하는 격동적인 위훈을 들으며 읽을 때에도 자기들의 보람을 먼저 생각하며 그 모든 성과와 위훈을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처럼 가장 가까이 느끼는것이 바로 우리의 탄부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이 없이는 제철소와 제강소는 물론 다른 모든 공장들과 기차, 배같은것을 움직일수 없으며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석탄은 모든 공업의 동력으로 되며 중요한 원료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석탄이야말로 공업에 없어서 안될 중요한 동력이며 원료인것이다. 이처럼 귀중한 석탄을 캐내는 주인공들이 바로 다름아닌 우리의 탄부들이다.

참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을 떠메고 나가는 탄부들의 영예와 긍지는 얼마나 큰것이며 또 탄부들의 사명은 얼마나 영예롭고도 숭고한것인가!

탄부들의 전진속도에 따라 사회주의대건설의 속도가 좌우되며 탄부들의 성과에 따라 모든 전투장마다 창조와 기적이 솟아오른다.

때문에 지하전선을 지켜선 초병들은 쏟아지는 석수를 소낙비처럼 맞으면서도 무겁게 실리는 지압과 봉락구간을 한치한치 헤쳐넘으면서도 그렇듯 락관에 넘쳐 용맹한 사자들처럼 탄맥을 향해 정대가 휘도록 전기드릴을 들이며 채탄기의 정날에 불꽃을 날린다.

같은 작업대상, 같은 그 기계, 같은 그 사람들로 일하는 막장에서 어찌하여 전에없이 상상할수 없는 새 기적, 새 기록이 창조되는가?

여기에도 하나의 비결이 있다.

현실체험을 하고있을 때 몇가지의 감동적인 사실들이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그때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창조를 위해 온 탄광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굴진과 채탄에서 아직 세상에 있어보지 못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갱들에서 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어났다.

청년갱에서 세대군인들로 무어진 굴진 5소대도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치열한 전투를 벌렸다. 그러

나 그들은 전투총화를 며칠 앞두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자기들이 세운 굴진계획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엄숙한 시각이었다.

사정없이 지압이 내려누르고... 물통이 터지고, 지긋게 막아서는 암반... 교대당 굴진계획은 하루이틀 뒤로 밀려나가니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할길 없었다.

멈춰선 대오는 다시 전진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소대 전원이 막장 휴게실에 모였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소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동무들,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를 다진 우리가 계획을 못하고서야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몸이 육탄이 되어 뚫고나갑시다!》

소대장과 세포비서가 막장을 향해 나섰다. 그들이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자 소대 전원이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따라 불렀다.

승엄하게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온 막장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소대장이 피끓는 가슴에 전기드릴을 중기마냥 부여안고 막장으로 뛰어들었다.

한사람의 주저와 동요가 있으랴!

소대는 앞으로만 나아갔다.

동발을 섬기는 사람, 정대를 대주는 사람, 운반공이 뛰고 굴진공의 눈길에 펄펄 불이 일었다.

시각마다 교대마다 다시 굴진속도는 높아갔다.

드디어 빛나는 승리로 총화짓는 그날, 갱구앞에 나선 소대 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러 감격의 이슬로 옷깃을 적시였다.

발과굴진으로 411.5미터! 놀라운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이 수자는 탄광의 탄부들을 흥분시켰으며 다른 모든 굴진공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었다. 태항강에서는 606미터 또다시 두번째 전투에서 청년갱 제대군인 5소대에서는 700미터, 1갱에서는 800미터 이상의 높은 기록을 창조하였다.

과연 상상할수 없는 이 높은 기록이 어디서 솟았는가!

이것은 바로 탄부들 굴진공들의 심장에서 태어난 기록이다!

깊은 땅속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막장, 여기서는 오직 혁명가의 고도로 되는 자각성만이 요구된다.

그렇다. 바로 굴진속도의 그 높은 비결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지하전선을 지켜선 영웅탄부들이 어떤 신념으로 살며 싸우는가 하는 높은 정신적자각과 자세에 달려있다.

천공속도, 발파효률을 높이는것도, 새로운 적재, 운반설비를 개조해나가는것도 탄부들의 높은 충성심에서 발휘되는것이다.

한생을 막장에서 살며 석탄을 캐내고 또 캐여나도 성차하지 않는 그 마음.

삶의 역센 뿌리를 탄전에 깊숙이 내리고 그 어떤 명에도 표창도 바람없이 모든 지혜와 창조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성실한 영웅탄부들이 지하전선을 지켜냈기에 날을 따라 석탄산은 더 높아진다.

언제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새날을 맞는 이런 영웅탄부들에게 우리 인민은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더운 초소에 세워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고마움에 목메이는 탄부들,

정녕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예롭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 탄부들에게 값높은 삶의 영예가 빛나는것이어라.

그때문에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 더 높아지고 탄발은 더 넉넉히 마련되고 석탄산이 하늘가에 더 높이 솟아오르는것이다.

깊고깊은 땅속에 서있어도 언제나 탄부들이 서있는곳은 온 나라가 석탄을 부르며 지켜보는 한복판에 서있으며 창조와 기적으로 위훈떨치는 대비약의 높은 언덕우에 자랑높이 서있다.

오늘도 이런 척후병들이 공업의 전초선에 서있는 한 온 나라에 대주는 공업의 식량은 끄떡없이 담보되고있다.

희망과 신심을 주는 시

사람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마디의 말로 굶뵌수 없는 자기 일생이, 말하자면 심장이 고동을 멈출 때까지의 길수도 짧을수도 있는 일생이 추호도 변함없는 자기 신념의 총체로 발현되기때문입니다.

시 《수령님, 병사는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조선문학 1978년 7호)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옳은대답을 안겨 준 시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도 그림던 수령님을
영광스럽게 제가 뵈옵게 된다면
그이를 어떻게 맞이하며
무엇부터 말씀올릴가
.....

《스물일곱해나마》《병상에 누워》있는 서정적 주인공은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한적한 밀림속의 락엽에 지나지 않던 우리들에게 땅과 공장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을 문득 뵈게 된다면 그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부터 말씀올릴가 하는 깨끗한 생각을 가슴속깊이 품고 삽니다.

이런 귀중한 생각은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녀보겠지만 서정적주인공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절절한것이 아니겠습니까!

.....
군모채양가에 손을 딱 붙이며
그이께 보고를 올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는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

이 몸이 바라는것
환하신 웃음으로
우리 수령님 기뻐하시게
군복어깨우에 전투장구 가쁘히 메고
어려운 임무를 받는 전사로
런대의 대렬앞에 나서고싶을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자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이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것이겠습니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을 혁명을 위하여, 자기 조국과 인민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바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게 합니다.

시 《수령님, 병사는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 길에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그 어떤 불구름도 뚫고 헤치며
육박하던 그날의 그 자세
생명이 살아 고동치는 한
수령님 주신 임무를 어길수 없는
병사의 변함없는 이 자세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축적이 있음으로 하여 어떤 난관도 뚫고 대오의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저역시 서정적주인공과 같은 사람으로서 제가 서야 할 위치가 있으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튼튼히 지켜갈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됩니다.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을 소박한 감정속에 깨우쳐주는 시, 바로 이런 시가 좋습니다.

이 순간 저도 서정적주인공과 함께 솟구치는 충성의 열도로 가슴불태우며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말씀드립니다.

.....
-어버이수령님이시여!
더 큰 임무를
저에게 명령으로 주십시오!
.....

청진시 경성군 경성을 김승구